현대불교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6년(서기 2002년) 4월 3일 수요일 (주간) 제 363 호



법석 조대 **법전 스님** 조계종 종정



"수행자의 가장 절친한 친구는 천장과 벽, 방바닥이니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할 것입니다."

"계율을 지키지 않고 부처님 심종心宗을 전수했다는 소리를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성실하고 부지런하며, 이웃을 생각하는 것이 참된 조사선의 정신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12 · 13면

조계종 제11대 종정 법전 스님

추대위 만장일치로 … 원로회의 의장 도원 · 부의장 원명 스님



이달 18일 조계사서 종정추대 법회

조계종 제11대 종정에 법전스님이 추대됐다.

조계종은 3월 26일 19명의 추대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추대회의를 열고 제 11대 종정에 도림 법전(道林 法傳 · 사진)스님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세수 77세, 법랍 63세의 도림 법전 스님은 1926년 전남 함평에서 출생, 39년 영광 불갑사에서 설제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여 사미계를 수지하였고, 49년 성철 청담스님과 함께 봉암사 결사에 참여한 이래 제방의 선원에서 50 하안거를 성만한 불교계의 대표적 선승 가운데 한 분이다. 스님은 85년부터 해인사에 주석해 왔으며, 96년 해인총림 방장, 2000년 원로회의 의장을 맡아왔다.

추대회의 후 조계종 기획실장 현고스님은 기자회견을 통해 "추대회의에서 숭산 성수스님을 비롯한 추대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수행 외길을 걸어온 종단의 큰 어른인 법전스님 추대를 결의했다"며 "부처님오신날이 임박해 있는 만큼 종정스님 추대 법회를 4월 18일 오전 11시 조계사에서 봉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열린 원로회의에서는 원로회의 의장에 도원(파계사 대비암 회주)스님, 부의장에 원명스님(대구 관음사 조실)이 추대됐다. 수석부의장 종산스님은 유임됐다.

한편, 조계종 원로회의는 이날 북한산 관봉 서울외곽고속도로 공사 등으로 자연환경과 수행 환경 침해와 관련 "영산과 수행환경을 정부가 앞장서서 보전할 것을 촉구"하는 원로회의 유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원로스님들은 유시에서 "전국 명산대찰을 해치는 개발사업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어 이에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2천만 불자들은 합심하여 민족의 영산과 수행환경을 여법히 지켜나가는 호법신장으로서 신명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2 · 3 · 12 · 13면

김원우 기자 wkim@buddhapa.com



시민휴식공간으로 거듭나는 조계사

'한국불교 1번지' 조계사가 최근 도량확장불사를 통해 시민휴식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지난 2월초 시작된 도량정비작업으로 대웅전 앞마당이 예전에 비해 2배 이상 넓어졌으며, 200여 그루의 나무를 심고 토담을 설치해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으로 변해가고 있다. 조계사는 이달말 도량 조경작업을 마친 뒤 일주문 건립 및 대웅전 보수불사, 만불보탑 건립 등을 통해 수행도량이자 전통가람으로서의 면모를 갖춰나갈 계획이다. 사진= 고영배 기자

한 · 중 · 일 불교우호 교류대회

10월 28~30일 한국서 … '인류평화창조와 불법' 주제

제5차 한 · 중 · 일 불교우호교류대회가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2박3일간 한국에서 개최된다.

한 · 중 · 일 불교대표단은 3월 27일 서울 롯데호텔 피콕 룸에서 준비실무회의를 갖고 테러와 전쟁종식을 기원하는 세계평화합동기원법회, 불교환경사진전시회를 열기로 했다. 특히 '인류평화 창조와 불법'을 주제로 열리는 한 · 중 · 일 국제학술강연회는 각국 1인의 기조연설과 각국 2인의 주제발표로 진행된다.

3국 대표단은 이번 한 · 중 · 일 대회에 한국 200명, 중국 60명, 일본 60명등 총 320명을 참가시키기로 하고, 개최장소를 한국 측에 위임키로 합의했다.

이에 앞서 3국 실무대표 3월 27일 오전 종단협의회 회장 정대스님을 예방했다. 김원우 기자



◇사리가 들어있는 수정(가운데)과 수정을 보관하는 금곽(오른쪽), 달마바라 스님이 사리를 보관할 목적으로 지녔던 장신구(왼쪽).

부처님 진신사리 1과 조계사 석탑서 발견

조계사는 최근 대웅전 앞 7층 석탑을 이운하는 과정에서 부처님 진신사리 1과를 발견했다.

7층 석탑 탑신부 두 번째 층에서 발견된 진신사리는 발견 당시 가로 15.8Cm, 세로 11Cm 크기의 장방형 은합 속에 들어있던 지름 8Cm의 원형사리함 안에 보관돼 있었으며, 진신사리는 이 원형사리함 속에 있던 3Cm 크기의 수정에 들어 있었다.

은합에는 "불타 세존 응화(應化) 2940년(1913년) 인도 실론섬(지금의 스리랑카)의 달마바라 스님이 모시고 와 친히 증정했다"는 내용이 한자로 새겨져 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a.com



청년불교조직 '수혈' 시급하다

청년 종교의식 조사 지회수 반감 · 연령층 노령화 · 이탈자 급증

청년 포교에 적색 등이 켜졌다.

조계종 포교원과 대한불교청년회가 지난해 5월부터 4개월 동안 실시한 '청년불자 종교의식 설문조사' 결과 96년 284개에 이르던 대불청 지회 수가 2001년 124개로 절반이상이나 준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청년 불자들의 연령별 분포는 30대가 49.4%로 가장 많아, 96년 30세 이하 회원이 70.7%에 이르던 것에 비하면 5년 동안 신입회원이 들어오지 않아 청년 불자들의 연령층이 노령화 되고, 조직의 감소 현상도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조사결과과 대한불교청년회(이하 대불청)의 당면문제에 대해 회원들은 '회원참여저조' (63%), 프로그램 미비(11%), 재정적 어려움(7%)이라고 응답했으며, 청년회에 대한 소속사찰에 대해 응답자의 31.9%가 부정적 평가를 하고 있어 소속 사찰의 지원이 절실함을 보여주고 있다.

청년회원들의 활동기간은 1년~5년(34.7%), 5년~10년(21.3%), 1년 미만(21%), 10년~15년(14.5%), 15년 이상(8.5%) 등으로 조사됐으며, 활동 5년을 전후해 이탈자가 많았다. 이런 현상은 프로그램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관련기사 3면

김주일 기자 jkim@buddhapa.com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초파일에 시험 13건 … 너무하다

올해 부처님오신날인 5월 19일(일요일) 정부산하기관의 각종 자격시험 실시가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여 불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2002년 국가자격증 시행계획에 따르면 5월 19일 각종 자격취득을 위한 실기 및 필기시험은 총 13건에 이른다.

이날 실시되는 시험은 리눅스마스터 1, 2급, M-Commerce 관리사 2급, 정보처리, 정보기



기, 그래픽스 검정시험, 컴퓨터 활용능력 2, 3급, IPCT 1급, TEPS, JPT, NetWork Master, PCT시험 등이다.

또 이날부터 온라인이나 직접 현장에 가서 접수를 해야 하는 시험도 11건이다. 하지만 성탄절인 12월 25일에는 국가 산하기관 시험이 한곳도 예정돼 있지 않아 종교편향의도가 숨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사고 있다.

물론 직장인을 배려하여 일요일 날 시험일정을 잡은 것에 대해 일단 이해가 가지 않는 것도 아니지만 그날이 국민의 50%가 신앙하는 '부처님오신날'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렇게 시험일자를 몰려잡은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 국민의 축제일이라 해도 무방한 초파일날 시험을 본다는 것은 시험을 보는 사람이나, 시험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큰 고민일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부처님오신날 집중돼 있는 시험분야는 불교계가 타 종교보다 월등히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진 IT분야. 불자들이 부처님오신날 절에 가기 위해 시험을 거부할 경우 교계의 IT분야 인력부족현상은 더욱 커질 수도 있다는 예상까지 할 수 있다.

부처님오신날 시험이 실시되는 것과 관련, 정광진(회사원) 불자는 "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인 한국정보통신인력개발센터에 시험일이 부처님오신날이니 시험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겠냐고 물어보니 '현재로서는 시험일자가 바뀔 가능성은 없다. 불편하더라도 해당 시험에 응시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대답만 들었다. 과연 12월 25일이 일요일인 경우 자격시험을 보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불교계 차원의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아직 시험이 50여일 남아 있는 만큼 정부차원의 특단조치가 있기를 고대한다.

김원우(취재1부 차장)

불자의 생각

금주의 주제: **조계종 종정**

1. 제11대 종정에 법전스님이 추대되었습니다. 새 종정 스님이 가장 비중을 두어야 할 사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징계자 사면을 통한 종단 화합 ②사찰 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 ③승가 교육 제도 보완 ④포교 기반 강화 ⑤승단 수행 풍토 확산

2. 조계종 종헌상 종정의 임기는 5년(1차 중임가능)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적절하다 ②종신제로 해야 ③10년 단임으로 해야 ④기타

설문 참여: 4월 4일까지 buddhanews.com에서 참가하세요. 푸짐한 경품이 기다립니다. 설문결과는 현대불교 364호 9면에 실습니다.



사 설

새 종정 모신 조계종

조계종 제11대 종정에 도림 법전스님이 추대되었다. 전국의 불자는 물론 온 국민이 경하할 일이다. 인류의 스승이요 선각자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과 역대 조사의 법통을 계승하고 한국불교 1600여년의 법맥 상승을 상징하는 조계종의 종정은 국민과 종도들의 안심입명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종정의 자리는 존경스러운 것이기도 하지만 국민과 종도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된다는 책임도 있는 위치이다.

우선 종도들이 안심할 수 있는 것은 단 2차에 걸친 종정추대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아 추대했다는 사실이다. 이제 종단이 안정되고 화합의 분위기 속에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모습을 보며 종단의 안정이 불교발전을 가져 올 뿐만 아니라 국민안정과 국가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었다.

법전스님은 '절구통 수좌'라는 별칭을 들을 정도로 피나는 참선수행을 한 모범 수좌로, 해인사의 주지와 총림 방장 그리고 종단의 최고원로 의결기관인 원로회의 의장까지 역임한, 종단의 화합과 발전에 염원을 다한 역군이며 대원력의 지도자이다.

새 종정스님이 지닌 검소함과 청정가풍, 높은 수행력이 스님들은 물론 모든 불자들의 귀감이 되어 조계종을 비롯해 전 종단에 청정수행 풍토가 확산되고, 스님의 덕화가 불교계에 두루 미쳐 불자들의 귀의처가 되어 불교교단의 위상이 이 사회에서 확고히 자리잡게 되기를 바란다.

또한 분규로 얼룩진 아픔을 씻고 안정 기조에 들어선 조계종이 새 종정스님 추대를 계기로 더욱 화합하고 발전된 모습을 보여 한국불교 중흥은 물론 이 사회를 밝게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힘차게 분발해 주길 기대한다.

청년불교 활성화 대책마련을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에서 청년증교의식 조사보고서인 〈청년포교의 현실과 지향〉이 발표되었다. 우선은 이러한 보고서가 나온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 정확한 현실인식이야말로 올바른 대처를 위한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는 청년불교가 급격히 쇠퇴하는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여러 가지 사항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대불청 지회수가 96년에 비해 반이나 줄고, 신규 회원의 충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청년회의 노령화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 것은 충격이다 못해 한국불교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수 없다.

청년회원 참여가 갈수록 저조한 이유는 여러 측면에서 분석해볼 수 있으나 사회참여 요구가 왕성한 청년들의 활동공간으로 종단이나 청년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청년들에게 적절한 위상과 권리, 소속 사찰이나 종단의 일에 일정한 역할을 부여하고 또 발언권을 주어야 한다. 지원도 제대로 안하면서 청년 불교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할 수는 없는 일이다.

청년들이 흥미를 갖고 그 왕성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들에게 그 영역에 대한 책임과 권리를 함께 주는 것이 필요하다. 청년불자들의 참여의식을 고취시키며, 그들이 적극적으로 앞장 설 무대를 만들어 주는 것이야말로 청년포교의 첫걸음이다.

조계종과 대한불교청년회가 이 보고서를 근간으로 하여 장기적이고 전체적인 조망 아래 청년포교가 새롭게 발흥될 수 있도록 활성화 대책마련에 나서기를 촉구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주 필 : 김병규
인 쇄 인 : 김규석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 :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한마음으로 종단중흥 노력"

"모든 문제 대화·협력으로" 4개항 결의문 채택

태고종 대각정진대법회 성료

지난해 양쪽으로 나뉘어 1년여 동안 내홍을 겪은 태고종(총무원장 운산)이 종단 스님들이 대거 동참한 가운데 3월 29일 '태고종도 한마음 대각정진대법회'를 열고 화합과 종단 중흥을 위해 정진할 것을 결의했다.

일우, 혜초 스님 등 승정, 운산 총무원장, 운곡 종회의장 등 3원장과 각급 기관장, 전국 교구 종무원장 등 태고종의 지드자급 스님 5백여 명이 동참하여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된 대각정진법회는 승정추대장 봉정, 종단 간부임명장 수여, 종정 법어, 대회사, 기원사, 축사, 결의문 채택 등의 순으로 성대히 봉행됐다.

종정 덕암스님은 혜초스님이 대독한 법어에서 "종도 모두가 새 마음으로 지난 일을 자성의 기회로 삼아 쉼없이 사견을 경계하여 안으로는 부지런히 극념의 공을 닦고 밖으로는 부쟁(不諍)의 덕을 넓혀 후회없는 현도(玄道)의 길을 가야한다"고 설했다.

총무원장 운산 스님은 "화합된 힘으로 침체된 종단을 중흥 발전시켜 대승교화종단으로서의 위상을 회복, 불교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하자"고 역설했다.

이날 참석 스님들은 △분규분쟁을 지양하고 종단의 모든 문제는 승가의 육화(六和)정신에 입각, 대화와 협력으로 푼다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각종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종단의 정체성을 확립, 호혜균등한 이상적 승가공동체를 실현한다 △수행풍토를 조성하고 속불혜명(續佛慧命)의 법도와 기강을 확립, 종단 위상을 제고한다 △사회복지, 봉사, 경제정의실현, 인권, 환경, 남북교류 등 대사회 활동 적극 전개한다 등 4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경숙 기자 gslee@buddhapia.com



◇운산 총무원장(앞줄 오른쪽) 등 태고종 간부스님 5백여 명은 3월29일 세종문화회관에서 화합과 종단 중흥에 노력할것을 결의하는 대각정진 법회를 열었다.

교육·포교원 예산비중 높아져

조계종 통합종단 40년만에 처음

조계종은 기획실(실장 현고)은 3월27일 기자회견을 갖고 2545년도 중앙종무기관 결산내용을 브리핑했다.

브리핑에서 기획실은 "지난해 예결산 집행결과 통합종단 출범 이후 처음으로 총무원 운영비(44억2천여만원)보다 교육원 포교원 복지재단 운영비(60억원)지출이 많았다"며 "현재 종단운영이 교육 포교중심으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분담금이 67.7% 인상되면서 각 본말사들의 불만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23개 교구 1300여 사찰이 분담하는 금액은 전체 분담금 의 20%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조계사 선본사 보문사 등 3개 직영사찰 분담금이 전체의 26%(40억원), 8개 특별분담사찰은 16.5%(25억 5천만원)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김원우 기자

불교시민·단체 프로그램 공모

조계종, 4월19일까지 접수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정대스님)이 불교계의 시민사회 단체들을 대상으로 2002년 불교 시민·사회단체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실시한다.

불교 시민사회단체 활동의 전문성과 활동 영역의 다양화, 불교 시민운동을 활성화를 위해 실시되는 '불교 시민·사회단체 공모사업'에는 총 5천여 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불교 시민사회단체 공모사업은 4월 19일까지 총무원 사회부에서 접수받으며, 공모사업 안내서 및 신청서를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한편, 조계종은 가을 경 2001년 공모사업 성과를 정리하여 발간할 자료집을 전국에 배포하여 불교시민사회운동 활성화에 이바지한다는 방침이다. 문의는 사회부 02) 735 - 5864.

김원우 기자

중앙승가대 敎史전시실 5월 개관

학풍진작 · 단합 목적, 사료수집 착수

중앙승가대가 학교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교사(敎史)전시실'을 5월 개관한다.

중앙승가대는 3월25일 학교발전기획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사료(史料) 수집 및 전시실 구성안 마련 등 세부작업에 착수했다.

승가학풍 진작 및 학교 구성원의 단합을 목적으로 한 교사전시실은 본관 4층 강당의 양쪽 복도에 마련되며, 패널과 진열형태로 구성된다. 내용은 학교 연대사를 중심으로 △설립 및 성장기(79~88년) △도약기(89~95) △팽창기(96~2000) △김포학사와 승가교육의 질적 발전기(2001~2002)로 나누어지며, 패널은 주요사건이나 사안에 대한 사진으로 제작하고, 진열장에는 졸업장이나 학적부, 학교 물품 등을 전시하게 된다.

전시형태는 '도입부'와 '본전시'로 나뉘며, 도입부에서는 학교명칭, 마크, 교육실천 강령 등이 먼저 배치되고, 이어 '본전시'는 네 파트(성장기, 도약기, 팽창기, 질적 발전)로 나뉘어지며, 각 파트별 경계부분에 기둥을 세워 시각적인 구분을 할 방침이다.

특히 중앙승가대는 각 기수별 동문명단을 동판이나 타일로 붙이고 이후 졸업생들 명단도 붙일 공간을 확보하는 등 소속감을 높이는 장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앙승가대는 교사전시실 개관 이후에도 계속 자료를 보완해 '교사'를 편찬할 방침이다.

한명우 기자

"종교 신문 적극지원"

박문석종무실장 밝혀



문화관광부 박문석 종무실장(사진)은 3월27일 현대불교 김병규 주필 등 10여명의,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등 종교 신문 편집국장 초청 간담회에서 문화관광부 차원의 예산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 실장은 "신문사들의 개별 또는 연합 프로젝트에 대해 올해 3천여 만원까지 지원하고, 내년에는 더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현대' 만평

김 영 민



청년불자들 다 어디갔나?

제보받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이 보다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제보창구를 상설하고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화됐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사안(사건, 사고, 미담, 사진 등)에 대한 취재요청은 물론, 각종 행사나 모임에 관한 소식도 좋습니다. 기사화되는 제보 가운데 불교발전과 기사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또한 지면제작과 관련한 문의나 투고, 의견개진은 물론 출판과 관련한 각종 제안도 환영합니다.

제보자의 신원은 한국전문신문협회 윤리강령에 의거해 철저히 보호됩니다.

제보전화 : 722-4162 FAX : 737-0698 인터넷 주소: buddhanews.com

통도사 적멸보궁
금 강 계 단



보살계 수계산림 대법회

귀의 삼보하옵고

불보종찰 통도사 적멸보궁 금강계단은 자장율사께서 부처님의 진신사리와 가사를 모시고 전국 불자들에게 부처님의 계율을 설하여 1357년간 전승해온 유일한 계율의 근본도량입니다.

금년도 **통도사 금강계단 보살계 수계산림법회**를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봉행하오니 불자님들께서는 두루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불기 2546년 4월 일

■ 일 시
- 입제일 : 2002년 4월 17일(음 3월 5일) 수요일
- 회향일 : 2002년 4월 19일(음 3월 7일) 금요일

■ 장 소 : 통도사 금강계단
■ 계 사 : 전계아사리 현산 영철 대화상
■ 동참금 : 5만원
■ 접수처 : 본사 기와 접수처 및 각 말사

▷ 연락처 부산포교당 (051)816-2241
마산포교당 정법사 (055)246-8393
울산포교당 해남사 (052)211-3340
밀양 무봉사 (055)354-3296
서울포교당 구룡사 (02)575-7766
창원포교당 구룡사 (055)255-6359
밀양 표충사 (055)352-1150
창녕 포교당 (055)533-2295
서울 보현사 (02)355-9815

교통편
◉ 통도사 버스 - 부산 : 온천장 지하철역 앞 08:00 ~ 9:00
울산 : 울산공설운동장(08:00) 공업 R(08:40) - 무거 R(08:50)
◉ 대 중 교 통 - 부산 : 노포동 시외버스, 고속터미널
울산 : 시외버스터미널, 대구 : 고속터미널「부산행 일반고속」
서울 : 동서울고속터미널

대한불교 조계종 제15교구 본사 영축총림 통 도 사 전계사 현 산 대화상 주 지 현 문 합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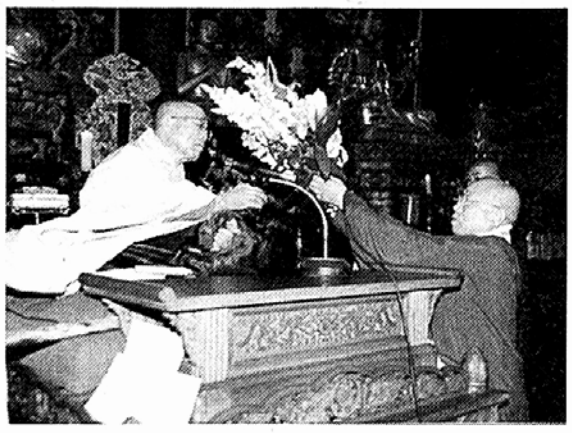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583번지 / ☎ (055)382-7182 FAX (055)382-7196

조사선 중시 수행풍토 확산 기대

조계종 11대 종정 법전 스님 추대 연저리

대한불교조계종(1962~현재) 역대 종정

제1대(1962~66)	효봉 대종사
제2대(1966~67)	청담 대종사
제3대(1967~71)	고암 대종사
제4대(1972~74)	고암 대종사
제5대(1974~79)	서옹 대종사
제6대(1981~90)	성철 대종사
제7대(1991~93)	성철 대종사
제8대(1994)	서암 대종사
제9대(1994~98)	월하 대종사
제10대(1999~2001)	혜암 대종사
제11대(2002~)	법전 대종사



◇법전 스님이 11대 종정으로 추대된 다음날인 3월 27일 해인사 대중스님들의 축하 인사를 받고 있다. 사진은 법좌에 앉은 법전 스님에게 해인사 주지 세민 스님이 꽃다발을 봉정하고 있는 모습.

조계종은 3월26일 해인총림 방장 법전 스님을 새 종정으로 추대했다. 이에 따라 안정을 바탕으로 종단발전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법전스님은 추대회의 후 곧바로 해인사로 향해, 종정으로서의 '일성(一聲)'을 뒤로 미뤘으나, 4월 2일로 예정된 기자회견에서 종정교시를 내려 종단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교계에서는 법전스님이 온화한 성품과 깊은 수행력으로 후학들을 이끌어와, 최근 조계종의 안정을 기조로 한 발전이 기대된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또 스님이 조계종의 종풍을 확립한 봉암사 결사에 참여하고 50 하안거를 성만하는 등 대중들에게 몸소 보여준 수행력은 종단의 승풍진작, 수행풍토 일신, 화합승가 구현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원로회의 수석부의장 종산스님은 "수행에 밝은 법전스님이 종정에 오른 만큼 수행위주의 종단운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종정추대회의는 한차례 연기되고, 추대위원 간 의견 상충이 있어 투표로 의견을 조율하는 등 진통을 겪었으나 마지막에 법전스님 쪽으로 가닥을 잡으며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추대회의를 거치면서 현안으로 떠오른 것은 조계종 내에 깊숙이 스며든 문중간 파벌 의식 해소. 이에 대해 종단차원에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종정 추대에는 62년 통합종단 출범이후 5명이나 종정을 배출한 해인사 독주에 대한 견제가 나오는 등 첨예한 대립양상으로 갔던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 원로의원 스님은 "종단의 중요한 사안들이 본질을 벗어나 조계종 양대 산맥인 법어 · 덕숭 문중의 본사 간 세력다툼으로 비춰지는 것이 큰일이다"며 "조계종단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수행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문중이 약해(?) 소외된 원로스님들과 수행납자들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성품 온화… 안정 기조속 종단 발전 전망
일부선 "문중간 파벌해소 특단대책을"

●축하메시지 잇달아●

3월 26일 법전스님이 종정으로 추대되면서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한 각계 인사와 민주당, 한나라당 등 정당 등에서 "봉암사 결사에 참여하는 등 한국불교발전에 공을 세우신 법전스님의 종정되심을 축하드린다"는 내용의 축하메시지가 답지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전화 한 통화로 편리하게
구독료 자동이체 하세요!
※계좌번호 변경이나 해지를 원하실 때도 전화로 알려 주시면 됩니다
신청 및 문의
02)737-0090

김 대통령 축하 전문

법전 큰스님께서 대한불교조계종 제11대 종정으로 추대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불교의 대승(大僧)으로서 조계종 총무원장과 원로회의 의장을 역임하신 탁월한 지도력과 종단의 두터운 신망을 통해 앞으로도 불교계의 발전은 물론 국민화합과 조국발전에 더 한층 이바지해 주시기를 바라며, 항상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큰스님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불기 2546. 3. 27
대통령 김 대 중

조계종 종정은

종통승계 · 임기 5년
1회 한해 중임 가능

조계종은 한국 불교의 대표 종단이며, 종정은 조계종의 종통을 승계하고 최고 권위와 지위를 갖는다.

조계종 종헌에 따르면 종정은 승랍 45년, 세수 65세 이상의 비구(比丘) 법계(法階) 대종사(大宗師) 가운데 원로의원(현재22명)과 총무원장, 중앙종회 의장, 호계원장이 모여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추대하도록 돼 있으며 임기는 5년이며, 한 차례 중임할 수 있다.

종정은 전계대화상 위촉권, 포상과 징계의 사면복권권, 종단 비상시 원로회의 재적 3분의2 제청에 의해 중앙종회 해산권 등의 권한을 갖고 있다.

조직 정비 · 교육 체계 강화해야

의식조사서 나타난 청년불교 활성화 방안

'청년불교 활성화 해답은 무엇인가?'

조계종 포교원이 3월26일 발표한 '2001년 청년불자 종교의식 조사'에서 청년회가 당면한 문제로 지적된 내용은 회원참여 저조, 다양한 법회 프로그램 미비이다. 여기에다 청년회의 회원 구성이 노령화되고, 자체적인 수행이 미약하며, 5년을 전후로 해 회원의 이탈자가 많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해결방안은 △전반적 신도조직의 재정비와 네트워크 형성 △교육체계화와 제도화 △프로그램 개발 △사찰에 기반한 청년회로 전환 △청년불자 인식전환 등 5가지로 집약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불청 조직이 96년 284개 조직에서 2001년 124개로 급격히 준 것은 어린이 청소년, 대불련 조직의 침체에 기인한다. 이같은 현상은 전반적 신도조직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여기에다 청소년 대학생 회원이 단계적으로 대불청으로 흡수되지 않는 조직적 연계가 단절돼 있다는 현상을 나타낸다. 중 · 고등 학생회와 군불자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조직 간의 인적(人的) 이전의 틀 마련이 시급하다. 이는 전국 신도조직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종단차원에서 연계관계를 설정, 인적이전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그간의 교계의 지적이 옳았음을 보여준다.

또 청년조직이 자체 모임에 그치지 않고 사찰과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조직으로 재탄생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지적은 현재 90%의 청년조직이 사찰을 중심으로 활동 중이지만 사중과 별도의 활동을 하면서 사찰 또는 주지스님과의 관계

중 · 고학생회 · 군불자와 연계조직 구축
소모임 활성화 · 수행 프로그램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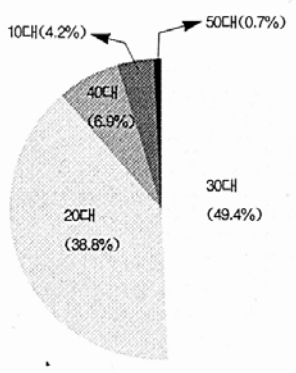
청년 불자들이 입회후 5년을 전후하여 탈퇴해버리는 악순환으로 인해 노령화 되는 청년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청년불자 교육의 체계화와 제도화가 필수적이다. 1년 차 경우 기본교육 절수행, 2년 차 전문교육, 4~7년 차 참선 독경 지도자교육, 8년 차 재 교육 등 단계별 연차별 프로그램 분화가 절실하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대불청과 종단, 전문가가 연구팀을 구성, 다양한 프로그램의 조사와 분석, 새 프로그램 개발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청년조직의 특성을 살리는 수행프로그램과 실천 활동을 다양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동호회나 소모임 활성화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가 원만하지 못하고, 지역사회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활동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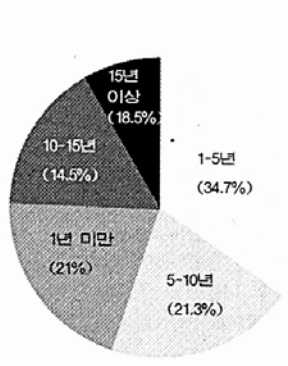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청년 불자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청년회에 참여하고 주인의식으로 활동하겠다는 인식제고가 시급하다. 대불청 차원의 지역별 간담회를 갖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하다는 여론이다.

김원우 기자

■청년회 연령별 분포



■청년회원 활동기간



"가까운 시일내 회의 소집"

새 원로의장에 추대된 도원 스님



하겠다"고 밝혔다.

스님은 "종단이 그동안 어려운 시기를 거쳤다"며 "앞으로 종단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나아갈 방향을 일일이 지적하겠다"고 말했다.

"원로회의법 개정 등 미진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가까운 시기에 원로회의를 소집할 생각"이라는 스님은 "종단의 여러 산적한 문제들을 총무원장과 상의하여 풀어나가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편 김대중 대통령과 김종필 자민련 총재는 26 · 27일 "도원 큰 스님께서 대한불교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에 추대되신 것을 축하드리며 큰 스님의 원력으로 귀 종단과 불교계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라는 축전을 보내왔다.

종단발전 일익 담당할 터

"부처님 가르침대로 그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3월26일 제 18대 원로회의에서 원로의장에 추대된 도원스님은 "원로들의 뜻을 받들어 원로회의가 종단발전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도원 스님은 도원스님은 1928년 경북 영천에서 출생하여, 42년 파계사에서 종현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여 탄허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했다. 스님은 50년 범어사에서 동산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으며, 49년부터 30하안거를 성만했다. 52년 월정사에서 중덕법계, 65년 대덕법계를 품수했다. 68년 월정사 주지, 72년 파계사 주지, 81년 (학)능인학원 이사장, 84년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85년 제8대 중앙종회의원, 90년 (학)동국학원 이사이다. 99년부터 원로회의 차석부의장을 맡아왔다.



부의장 원명 스님은 원명스님은 30년 경북 김천에서 출생하여, 43년 수도암에서 구산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44년 송광사에서 구산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했으며, 50년 해인사에서 상월율사를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스님은 78년 중앙종회의원, 79년 송광사 주지, 81년 대구사원주지연합회 초대회장, 88년 불교대구교육원 이사장, 89년 불교대구교육원 원장을 역임했다. 현재 (사)마하야나 불교문화원 이사장, 수성구 청소년수련관 이사장, 조계종 원로회의 의원이다.



일주문



소년가장팀에 500만원

법타 평불협 회장은 3월 17일 통일음악회를 통해 모인 기금 중 5백만원을 조계종 포교사단 소년소녀가장팀에 전달했다.



강원 경승단 현판식

원행 원주 구룡사 주지는 3월 27일 춘천 삼운사에서 강원경찰청 경승단 현판식을 가졌다.



청주불교방송국 사장

현중 서울 보승사 주지는 3월 11일 열린 청주불교방송 이사장단 회의에서 청주불교방송 신임사장으로 선임됐다.



삼문사 대웅전 낙성법회

세운 대전 삼문사 주지는 삼문사 대웅전 낙성 및 삼존불 점안법회를 11일 오전 10시 봉행한다. (042)823-0332



감사위원에 임명

노옥섭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장은 3월 26일 감사원 최고의결기관인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됐다.



제6회 개인전 열어

이연숙 조계사 신도회장은 3월 27일~4월 2일 서울 인사동 단성갤러리에서 제6회 개인전을 개최했다.

"노인들 꿈과 기쁨주는 공간으로"

울산시립노인요양원장 명관 스님



일체의 사회활동을 접었던 스님이 새로운 각오와 의욕으로 복지활동을 재개한 것은 울산시립노인요양원 수탁이 석남사로 결정됐기 때문.

"석남사가 재정적, 인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어 든 힘이 된다"는 스님은 "요양원 운영은 석남사 대중스님들이 모두 합께 하는 것이며 복지나 의료분야를 공부한 스님들이 각종 봉사활동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석남사 대중 봉사활동 적극 동참

"노인들이 바로 석가와 미륵이라는 생각으로 성심 성의껏 공양할 것입니다. 그분들은 마땅히 공양 받으실 권리가 있는 우리 모두의 부모님들이기 때문입니다."

3월 29일 개원한 울산시립노인요양원 원장인 명관스님(사진)은 울산시립노인요양원이 노인들의 안식처로 꿈과 기쁨을 주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개관에 앞서 지난 1월부터 요양원에 머물며 직접 시설 미비점 보완을 비롯한 개원 준비를 꼼꼼히 챙겨 온 스님은 85년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했을 정도로 복지분야에 대한 관심이 각별하다. 한때 장애아동들을 위한 재활원에서 활동하다 요양원에서 숙식하며 노인분들에게 필요한 사소한 것까지 알뜰하게 챙기겠다는 스님은 직원들에게 '내 부모같이 섬길 것'을 늘 강조하고 있다.

요양실, 진료실, 물리치료실, 상담실 등 최신 시설을 갖추고 의료서비스, 문화체험, 일상생활 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울산시립노인요양원은 자원봉사자 및 물품 후원, 결연 후원을 위한 후원회원을 모집 중이다. 재가노인들에게도 혜택을 확대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도 구상 중인 스님은 "노인요양원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해 시설을 개방, 많은 이들이 함께 행복을 누리는 복지공간으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한국비구니 위상·수행 알릴터"

미국 조지아大서 강연 혜원 스님



동국대학교 선학과 교수 혜원 스님(사진)은 미국 아틀란타에 위치한 조지아대학 동양학연구소의 초청으로 3일 조지아대학 아카데미 홀에서 '한국 비구니 수행과 그 현대적 의미'라는 주제로 강연한다. 강연내용은 비구니 스님의 수행의 과정과 그 의미로, 특히 수행상에서의 비구니스님들의 위상과 역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조지아대학 동양학연구소는 매년 종교, 사회, 예술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석학, 종교인들을 한명씩 초청해 강의를 듣고 있다. 근래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티베트 종교지도자 달라이 라마가 초청강연을 가졌고, 이러한 계기로 그들은 불교수행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게 됐다.

세계 동양학회에서도 강연

한국 비구니스님들의 수행을 알리게 된 혜원 스님은 강연자료 준비에 많은 공을 들였다. 강연대상이 조지아대학이 자랑하는 최고의 엘리트로 구성된 '영예로운 학생'이고 동양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들이기 때문이다.

스님은 학생들이 영상세대라는 점을 감안해 내용을 사진으로 보여주는 것이 한국 비구니 수행을 이해하는데 더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 강연 발제문과 더불어 비구니스님의 출가(행자교육원 생활), 득도(사미니계, 식차마나니계, 구족계 수지 모습), 교육(강원 생활), 수행(선원 생활)로 나누어 출가에서 수행과정의 모습을 사진으로 보여줄 계획이다.

이번 초청 강연 이후, 스님은 4월 4일~7일까지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제54회 세계동양학회(AAS)에 참석한다. 세계동양학회는 참가 학자만 천여명이 넘고 관련분과도 200여개에 달한다. 또한 스님은 '종교와 수행'을 주제로 한 분과에 참석해 '한국비구니 수행과 선'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김두식 기자 doobr@buddhapia.com



실천불교승가회 고승명인 도예전

실천불교전국승가회(의장 청화)는 3월27일~4월2일 서울 인사동 덕원갤러리에서 창립 10주년 기념 '고승명인 서화도예전'을 개최했다. 27일 열린 개막식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 스님은 "실천승가회 창립 10주년을 축하하고 불교NGO 회관 불사가 원만 성취되길 바란다"고 축사했다. 왼쪽부터 청화, 법장 스님, 다섯 번째가 정대 스님.



원융종 창종 22주년 기념법회

원융종(총무원장 법륜)은 3월 26일 서울 캐피털 호텔에서 창종 22주년 기념 법회를 봉행했다. 여래종 종정 인왕 스님, 미륵선종 종정 법수 스님 등 사부대중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융종 종정 일공 스님은 법어를 통해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되새겨, 월드컵이 세계사람들의 축제가 되도록 하자"고 설했다. 앞에서 두 번째 줄에 앉은 사람 중 왼쪽에서 네번째가 일공 스님.



감로사 삼천불 삼천배 참회기도

부산 감로사(주지 혜총)는 3월 23~27일 제51회 삼천불 삼천배 참회기도법회를 봉행했다. 혜총 스님은 "참회는 개인이나 나라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지름길"이라며 "참회는 현재를 더욱 충실하게 가꾸는 노력이자 깨달음을 향한 정진이 된다"고 법문했다. 사진은 감로사 대웅전에서 3천배 기도 중인 불자들.



능인선원·행원불교대 입학식

대구 능인선원 (학장 혜장)은 3월 24일 2층 법당에서 제1기 행원불교대 입학식을 봉행했다. 이날 입학식에서는 혜장 스님은 "진정한 대중불교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한 전문가 양성과 아울러 그 뜻을 펼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른쪽에서 세 번째가 혜장 스님.

"관내 복지관 네트워크 구축"

개관 1년 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 지완 스님



"센터로서 역할을 다지기 위해 서울 관내 노인복지관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정보를 공유할 계획입니다. 또한 본격적으로 노인문제를 사회화,여론화할 수 있도록 기획연구와 조사사업에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3월 26일 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 지완 스님(사진)은 개관 1주년을 맞는 부처님 오신날을 전후로 '달아 달아 마음 달아'란 주제로 '어울림 등 축제' 등의 개최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무료이용 원칙에 따라 현재 이용회원만 1만4천여 명에 달한다"고 밝힌 지완 스님은 "무료급식소의 역할에서 벗어나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인 자활사업 활성화 강구

올해를 '센터의 정체성 확립의 해'로 정한 스님은 "한국노인문화를 선도하고, 불교 이념에 맞는 불교사회복지의 구현이 센터 사업의 핵심 기조"라며 5월부터 노인 자활사업 활성화와 자원봉사 활동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을 비롯, 이웃과 후손을 위한 생명나눔운동, '노인이용시설의 과제와 발전방안에 관한 대토론회' 등도 개최한다.

또한 "센터 전체 예산 중 어르신들 무료급식 비용이 25%를 넘는다"며 "적극적인 후원자 개발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청소년 포교 아이디어 뱅크 구실"

청소년문화연구소장 김형중 교법사



"교육현장 중심의 '맞춤형 청소년 포교 프로그램' 개발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종합적인 접근방법을 통해 연구소가 청소년 문화포교의 아이디어 뱅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일반 교사불자들의 참여를 유도해낼 계획입니다."

3월 18일 파라미타협회 부설 청소년문화연구소 신임소장을 맡은 김형중 교법사(명성여고·사진). 김 법사는 "제7차 교육과정에 따라 초·중·고 교과서는 이미 시중에 나와 있지만, 불교계에서는 한번도 불교관련 내용들의 분석작업을 못하고 있다"며 조계종 포교원 불교교과서 문제위원회와 전국교사불자회 등과 공동으로 들어가는 교과서 분석 작업을 첫 사업으로 손꼽았다. 또 김 법사는 최근 들어 수능 언어와 사회탐구 영역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 불교설화나 경전이야기의 내용을 철저히 분석, 자료집으로 묶어 학생회를 운영하는 전국 사찰에 보낼 계획이다. 이외에도 학원폭력과 인터넷 중독 등으로 심각성이 더해 가고 있는 청소년 문제를 끌어안는 불교상담 활동추진, 청소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별 불교 성구(聖句) 모음집 발간도 준비하고 있다.

또 "교법사 중심의 연구소를 일반 교사불자까지 참여범위를 넓혀, 매월 열리고 있는 세미나가 폭넓은 청소년 연구 활동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중요

김철우 기자

통도사 승가대학 강원 학인모집

유구(悠久)한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불보종찰 영축총림 통도사 강원에서는 수많은 고승석덕을 배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전통을 이어서 시대를 이끌어 갈 참 스님을 배출하고자 다음과 같이 신·편입생을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 모집학과 : • 치문과 : ○○명 • 사집과 : ○○명 • 사교과 : ○○명
※ 편입학, 사미과 수료증 및 전학증 지참

■ 구비서류 : 1. 입학원서(본 강원 소정양식)
2. 승적사본(총무원발급)
3. 주민등록초본
4. 건강진단서(종합병원발급)
5. 은사스님추천서(각 2부)
6. 사진 4매(사미의재 대가사 복장)
7. 입학금(지객스님께 문의바람)

■ 전형방법
• 서류접수기간 : 2002년 양력 3월 22일 ~ 4월 17일까지
• 서류심사 및 면접 : 서류접수 당일날

■ 22기 행자교육 수료자
• 서류접수 : 2002년 양력 4월 11일 ~ 4월 22일까지
• 면 접 : 서류접수 당일 날

■ 문 의 처
(055) 383-2363(강원, 감로당) 382-7182(총무소 교무국) 384-2035(지객스님, 원통방)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583번지

통 도 사 승 가 대 학

주지 현문 강주 중산 혜남

해인사승가대학입방공고

한국불교의 요람이며 전통승가교육의 산실인 해인사 승가대학(강원)에서는
신입생 및 편입생 방부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모집학과
● 치문반 00명
● 사집반 0명

준 비 물
① 사진(오조가사 복장 / 3×4cm) 8매
② 입학금
③ 대가사(사미는 만의), 오조가사, 장삼, 발우, 필기도구, 도장(법명)

구비서류
① 입학원서(본 강원 소정양식) 1부
② 승적증명서(총무원 발급) 2부
③ 행자교육 수료증 사본(총무원 발급) 2부
④ 수계증명서 사본(총무원 발급) 2부
⑤ 주민등록초본 2부
⑥ 호적등본 2부
⑦ 건강진단서 2부
⑧ 은사스님 추천서 1부

전형방법
● 2차 입방
◆ 서류제출일
불기 2546년 3월 5일(양력 2002년 4월 17일) 수요일
◆ 서류심사 및 면접일
불기 2546년 3월 6일(양력 2002년 4월 18일) 목요일
◆ 입방일
불기 2546년 3월 7일(양력 2004년 4월 19일) 금요일

문 의 처 ● 전화 055)931-1016, 1017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

불기 2546년 월 일

해 인 사 승 가 대 학 주지 수봉 세민·학장 정혜 지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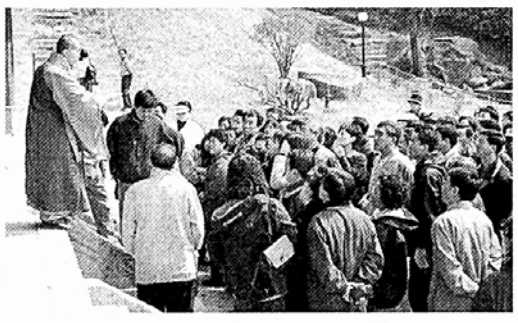
출가·열반절 108배 참회 발원정진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한국교수불자연합회, 전국금융단불교연합회, 전국병원불자연합회, 철도청불교단체협의회 등 13개 직장 직능단체들은 25일 서울 조계사에서 부처님 출가·열반절을 맞아 신행문화혁신과 수행환경 보존을 위한 108참회 발원정진을 가졌다. 2백여 직장 직능단체 불자들이 조계사 대웅전에서 108배 정진하고 있다.



금융단불교연합회 부석사등 순례

전국금융단불교연합회(회장 이탁수)는 24일 영주 부석사와 단양 구인사 순례법회를 봉행했다. 회원 및 회원 가족 80여명이 동참한 이날 순례는 부석사 참배와 등오스님(직지사)의 법문, 구인사 참배 등으로 진행됐다. 부석사 무량수전 앞에서 등오스님의 사찰 안내를 받고 있는 금융단불교연합회 불자들.



현대석유 현불회 교리강습법회

현대석유화학 현불회(회장 임실근)는 20일 서산 망일사에서 기초교리 강습법회를 봉행했다. 삼귀의를 주제로 열린 이날 법회는 임실근 포교사의 강의와 춘계 성지순례 일정 토의 등으로 진행됐다. 한편 현불회는 21일 해남 대둔사를 찾아 순례법회를 봉행하기로 했다. 동참자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천수경을 독송하고 있다.



인터넷 화상 무료 법률 상담
law.buddhapia.com
■전화상담 : 매주 월~금 (오전 11시~오후 4시)
☎ 02)596-7231
■방문상담 :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오후 4시)
☎ 02)722-4162

불자가수회, 음성포교 3대목표 설정

노래자랑·지부설치·사단법인화

지역예선 거쳐 서울서 12월8일 결선

연내 광주호남·진주지부 설립 추진



◇불자가수회가 음성포교활동 강화에 나선 가운데 3월28일 정암사에서 열린 전국불자노래자랑 첫 예선 모습.

대한불자가수회(회장 김활선)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사찰가요제와 전국불자노래자랑 등 전국 불자들이 참여하는 음성포교활동은 물론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포교활동 강화에 나선다. 또 각 사찰에서 주최하는 공연에서 사업자와 결탁한 상품 판매행위로 쌓인 부정적인 이미지를 쇄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를 위해 불자가수회는 전국의 사찰 순회 가요제 및 불자노래자랑, 지역지부 설립, 사단법인 설립 등을 3대 중점목표로 설정했다. 가요제와 불자노래자랑을 통한 음성포교를 지속하면서 모임 활성화, 지역 사찰과의 연계활동 강화는 물론 전국적인 조직으로 개편, 확장하겠다는 복안이다.

처음으로 실시되는 가요제와 전국불자노래자랑은 3월 28일 진해 정암사를 시작으로 15일 전주 송광사 등 각 지역에서 예선을 거쳐 12월 8일 결선대회를 개최한다. 결선대회 입상자에게는 한국연예협회 가수분과 회원 등록과 옴니버스 CD 제작 기회가 주어진다.

지역 예선의 경우 단위 사찰 뿐만 아니라 희망하는 사암연합회와 불교단체에 대해서도 실시할 예정이다. 결선대회는 창립 10주년 기념일에 맞춰 서울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지난해 8월 대전·충청지부를 설립, 지역 조직 구성에 나선 바 있는 불자가수회는 올해 중 광주·호남지부와 진주지부를 설립해 지역 사찰과의 연계활동 강화와 사찰의 포교활동을 후원할 계획이다.

또 매년 실시하고 있는 독거노인 후원활동과 장학금 전달사업, 군법당 및 교도소 법회 지원 등을 지속해 펼친다. 매주 1군단과 1사단, 3사단 군법당 법회와 월2회 영등포교도소 법회를 후원해 온 불자가수회는 회원들을 분산 배치, 포교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두차례의 일일찻집 행사와 9월 바자회, 12월 거리 성금모금 활동을 통해 마련된다.

한편 불자가수회는 사찰 후원공원에서 회원들의 부적절한 판매행위를 근절하고, 불자가수회 명칭을 도용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단법인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미 일부 사업자들과 결탁해 물품 판매행위를 벌인 일부 불자가수들을 제적 처리하는 등 회원 정리에 착수했다.

신행단체 담당=**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산재퇴직자·소년소녀가장 돕기

철불협 '철마는 자비를 싣고' 월말까지 모금운동

철도청 불자들이 불우한 이웃과 산업재해를 당한 동료 돕기에 나섰다.

철도청불교단체협의회(회장 정동진, 이하 철불협)는 이달 말까지 한달간 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한다. '철마는 자비를 싣고' 라고 명명된 성금 모금운동은 1구좌(1천원) 단위로 철불협 소속 단체 회원들을 비롯해 철도청 내 전 직원, 일반 불자들을 대상으로 전개된다. 지난달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소속단체에 하달한 철불협은 철불협 임원들로 홍보단을 구성하고 각 단체의 법희에 동참, 적극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모금된 성금은 부처님오신날을 즈음해 철도 산업재해로 고통받고 있는 퇴직 철도근로자와 소년소녀가장, 복지시설 등지에 전달할 계획이다.

철불협 정찬연 사무국장은 "그동안 불자로서 배우고 익힌 부처님의 가르침을 몸으로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이웃의 고통을 함께 나눈다는 마음으로 철불협 회원은 물론 모든 불자들도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르마 법우회 창립

회장에 김형남 씨

사법연수원 제33기 다르마법우회가 1일 일산 정혜사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연수기관의 특성에 따라 불자회 회원이 매년 교체되는 다르마법우회는 올해에는 33기 50여명의 회원을 모집했으며, 회장에 김형남 씨를 선출했다.

33기 다르마법우회는 법률상담 봉사, 수련회 개최, 복지시설 후원 및 자원 봉사 등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 일산 정혜사에서 매월 두차례의 정기법회를 봉행하고, 회원 확대와 법조인 불자회와의 교류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형남 회장은 "사법연수원을 떠나서도 각자의 근무지에서 신행활동을 지속할 굳건한 신심을 지닐 수 있도록 회원들의 불심 고양에 힘쓰겠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화두 참구하며 주말 철야정진 꼭 동참"

공무원불자聯 고문 이경호 보건복지부 차관



"한국불교가 치마불교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는 사실이 불자의 입장에서 안타깝습니다. 사찰과 불교계에서 남성 신도들이 활동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 남성 신도들이 편한 마음으로 사찰을 찾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공무원불자연합회 고문 이경호 (51·사진) 보건복지부 차관은 남성 신도들이 많지 않은 불교계의 현실을 지적하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보건복지부 내에서 이 고문의 신행활동은 잘 알려져 있다. 보건복지부 불자들의 모임인 보련회 법회에도 시간이 날때마다 동참한다. 보련회 불자들은 든든한 후원자인 이 고문에 대해 각별한 고마움을 표시하기도 했다.

이 고문은 "불교의 계율이 개인을 속박하는 규제로 느껴지지 않아 친숙함을 느끼게 한다"며 "모든 사상과 철학, 종교를 인정하고 포용하는 불교의 가르침이야말로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적합한 종교"라고 말했다. 이 고문은 어느 때나 떳떳하게 자신이 불자임을 밝힐 만큼 자신이 불자임을 늘 자랑스럽게 여긴다. 98~99년 청와대 근무시절에는 청와대불자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이 고문은 84년 서울 불광사 광덕스님을 만나면서 불교와 첫 인연을 맺었다. 독실한 불자인 부인 김형자 여사의 권유 때문이기도 했지만, 평소 갖고 있던 불교에 대한 호감이 불자로 귀의할 수 있는 배경이 됐다. 광덕스님에게서 오계를 수지하고 '자명'이라는 법명을 받았다.

불자인 부모의 영향으로 자녀들도 불교를 갖게 됐다. 이 고문의 자녀들은 '동파'와 '설분'이라는 법명을 받았다. 이름보다 법명으로 불러주는 것을 좋아할 정도로 이 고문의 집안은 자연스럽게 불교적인 분위기를 갖게 됐다.

이 고문을 만나는 사람들은 언제나 손목에 끼워진 합장주를 볼 수 있다. 이 고문은 평소에도 반짝반짝 윤이 나는 합장주를 굴리며 매일 기도와 수행하는 마음을 놓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항상 부처님법을 거스르지 않는 불자로 살겠다는 서원을 세웠기 때문. 그래서 이 고문의 일과에는 특별히 반야심경을 사경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

현재는 부인과 함께 공주 마곡사 신도로 등록돼 있다. 주말이면 마곡사에서 열리는 철야정진에 동참하기도 한다. 수행에 열심인 이 고문에게 마곡사 주지 진허스님이 직접 화두를 내려줬다. 이후 이경호 고문은 시간이 날 때마다 화두를 참구하며 다음닦기에 여념이 없다.

광덕스님에게 수계…법명 '자명'

"불교, 현대인에 가장 적합한 종교"

금주의 법회

■4일
△한전 본사반야회 정기법회=오후 6시 강남 봉은사 △보훈병원 보훈불자회 정기법회=낮 12시 보훈법당

■5일
△국립경찰병원 불자회 환자법회=오후 4시 병원법당 △한일병원 반야회 정기법회=오후 6시

■8일
△국립서울정신병원 불교회 정기법회=낮 12시 병원법당

■9일
△국립재활원 법우회 정기법회=오후 7시 병원법당 △국립춘천정신병원 참나불자회 정기법회=오후 6시30분 춘천 대원사 〈법회 안내 (02)722-4162~3〉

모 집 공 고

1) 모집부문

모집분야		인 원	자 격
사회복지	사 무 국 장	○명	사회복지경력 10년 이상, 사회복지사 자격증 1급
	복 지 과 장	○명	경력3년이상,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생활지도원	○○명	초보자 가능,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신도관리 및 종무행정요원		○○명	불자로서 신심이 돈독하고 절에서 숙식가능한 남·여
봉사요원 및 농장인부		○○명	절에서 휴양하면서 봉사할 분(연령, 학력, 제한없음) 정원사, 조경사, 농사에 유경험자 우대
공양주		○○명	주방에서 일하실 분

2) 근 무 지 : 경북 영천시 자양면 충효리 660번지
숙식제공, 월급여 지급, 노후생활보장
3) 채용방법 : (1차)-서류심사 (2차)-면접 ※ 합격시 개별연락
4) 필요서류 : 자필이력서(사진부착), 졸업증명서, 면허증 또는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 봉사요원 및 농장인부는 주민등록증 사본만 제출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 충효자비원
대한불교 조계종 충 효 사
전화 : 054)338-5148, 016-503-5148

알 림

대한불교 무량본종

원로원장 전파옹 총무원장 이령관
원 로 김광해
감찰원장 이혜천(함평 천일사) 종회의장 석대광(감포 원해사)
종회의원 구도안, 이법성, 임월공, 최법성, 김대산, 지인덕, 문인경, 김법성, 정혜연, 주월성, 변자원심

종무원장
전남종무원장 이혜천 전북종무원장 임월공
경북종무원장 석대광 광주종무원장 정혜연
충남종무원장 최법성 대전종무원장 이법성
경기종무원장 김대산 인천종무원장 구도안

불기 2546년 3월 26일

대한불교 무량본종
종정권한대행 총무원장 이령관

서울 종로구 홍지동 76-2번지 무량본종 총무원 전화 : 02)3216-1600

연중캠페인 - 나눔의 손잡기 운동

2001 '후원합시다'



◇상반된 표정. 아이들은 티없이 미소짓지만, 할머니 강 씨는 지금의 삶을 표현하듯 무표정하기만 하다.

뚝방 판자촌에 사는 남매의 꿈

"할머니 건강하셨으면…"

서울 녹천교 다리끝 파지공장. 파지더미가 잔뜩 쌓인 앞길을 지나서야 하천 뚝방길이 눈에 들어온다. 길게 늘어선 판자촌. 그곳에 원재네 식구들이 살고있다.

14살 소년 원재(14, 노원중1). 원재의 눈이 빨갛게 충혈됐다. 며칠 전부터 심상치 않던 할머니 강봉이(84) 씨의 심장병이 다시 도졌다. 이틀 밤을 할머니 곁에서 꼬박 새운 원재. 밤새 TV를 켜놓고 졸지 않으려고 버텨봤지만, 소용이 없다.

할머니 심장병 고통

아직도 냉기가 싸늘한 방안. 군데군데 장판이 떨어져 나가 시멘트바닥이 훤히 드러난 곳을 군용 담요가 궁색 맞게 덮고 있다. 방 한편에 걸린 큰 달력. '할머니 병원 가는 날', '약 타오는 날'이라는 이들 남매의 메모들이 빼곡하다. 할머니 강 씨가 하루에 한번씩 병원을 드나들다보니, 생활은 두 남매가 꾸려가다시피 한다. 물론 궁핍한 생활이라 챙길 것은 별로 없다. 잘 먹어야 하루 두 끼, 그것도 밥에 김치가 전부다. 입을 옷도 여유가 없어 빨래도 자주 할 형편이 못된다.

이들 가족이 녹천변 뚝방에 둥지를 튼 것은 13년 전부터. 거창에 살던 할머니 강 씨가 원재 돌 잔치를 보러 서울에 올라왔다가 아예 이곳에 눌러 앉게 됐다. 원재 엄마가 덩그러니 '돌잔치' 상만 차려 놓고 가출해버렸기 때문이다. 놀랄 겨를도 없이 할머니는 원재와 두 살 현정이를 맡아 키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몇 달 후 급기야 원재 아버지마저도 생활고를 비관, 집을 나가버리면서 살림은 급격히 기울었다.

"부모한테 한참 귀여움 받고 자랄 나이에 가장 노릇을 하고 있으니…". 긴 한숨을 내쉬며 강 할머니는 약봉투를 만지작거린다.

이 세 식구는 정부로부터 나오는 소년소녀가장 지원금 30만원으로 한 달 생활을 한다. 하지만 전기세, 수도세 등 공과금 15만원을 치르고 나면, 병원에 할머니 약 받으러 갈 교통비마저 여유가 없다. "과자도 못 사먹겠네"라고 말을 건네자, 원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인다.

부모 가출, 14살 가장

"저희는 그래도 괜찮아요. 할머니만 건강해질 수 있다면요. 몇 년 전 위수술을 받으셨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요즘엔 배가 퉁퉁 부어서 진지도 잘 못 드세요."

원재는 홍명보 선수처럼 훌륭한 축구선수가 되는 것이 꿈이다. 하지만 요즘엔 돈 많은 사장님이 되고 싶어졌다고 말한다. 지긋지긋한 가난이 싫은가 보다.

원재의 꿈까지도 빼앗아가고 있는 가난. 하지만 어린 원재에게는 '꿈'보다 당장 할머니 약값과 과자 한 봉지가 아쉽기만 하다.

전화:(02)931-0143 계좌번호: 농협 1129-12-037602(예금주 강봉이)

글 · 사진=김철우 기자

신행 캘린더

4월 4일 (목)



◇조계사서 열린 '참선입문' 강좌.

■조계사 '참선입문'=조계사는 참선에 대한 불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참선입문' 강좌를 마련했다. 참선의 역사, 호흡법 등 참선의 기초부터 자세히 알아본다. 매주 목요일에는 주간반(오전 10시 30분~12시)과 야간반(오후 7시~8시 30분)이, 토요일 강좌는 오후 3시에 열린다. 참가비는 3개월 동안 5만원.(02)720-1390

4월 5일 (금)

■국청회 '불교강좌'=동국대 사회교육원 최종석 교수가 진행하는 '불교교리강좌'. 3개월 과정의 이번 강좌는 불교 초심자를 위해 마련됐다. 월회비 3만원을 내면 국청회가 운영하고 있는 다른 강좌도 함께 들을 수 있다. 오후 7시 서울 조계종 포교원 앞 국청회 사무실.(02)730-1249

■연꽃마을 '사랑의 나무심기'='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더 젊게 사시게, 노인복지관마다 사랑의 나무를 심자.'

연꽃마을은 식목일을 맞아 용인 노인요양원, 평택노인요양원 등에서 열리는 나무 심기 캠페인에 동참할 사람을 모집하고 있다. 6월까지 계속될 이번 행사에 참가하고 싶은 사람은 언제든지 법인사무국에 연락하면 된다.(02)2203-3677

4월 6일 (토)

■터사랑 '왕인문화제' 탐방=찬란한 백제 문화를 일본에 전했던 대표적인 학자 왕인 박사를 기리는 전남 영암군의 '왕인문화제'.

터사랑의 이번 행사에는 월출산 도갑사 새벽 예불과 영암 도기문화센터 방문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된다. 출발은 저녁 9시 30분 안국역. 참가비는 5만 5천원.(02)725-1284

■경기불교대학 '대법회'=경기불교대학은 오전 10시 대법당에서 용주사 주지 정락스님을 초청, 관음재일 맞이 대법회를 봉행한다. 불자로서 갖춰야 할 자세와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기회. 다정다감하면서도 정곡을 찌르는 정락스님의 법문은 오래 간직할 수 있는 가르침이 될 것이다.(031)255-2692

4월 7일 (일)

■불교신행연구원 '성지순례'=당유학을 끝내고 돌아온 진감국사 혜소 스님이 처음으로 불법을 편 곳이 바로 남장사. 이곳은 경상북도 8경 중 하나로 빼어난 경관을 자랑한다. 상주 남장사와 선산 도리사를 둘러보는 이번 성지순례는 7일 아침 6시 50분, 서울 양재역에서 출발.(02)587-6613

4월 10일 (수)

■금강불교문화교육원 '보현행원품' 강좌=금강불교문화교육원 교무 증광스님이 진행하는 불교 기초교리를 배우는 시간. 금강불교문화교육원은 9개월 과정으로 범망경, 정토삼부경, 보현행원품, 금강경을 강의하고 있다. 강의비는 매달 2만원. 강의시간은 오전 10시 30분, 오후 8시.(02)893-2700

4월 11일 (목)

■은평노인복지관 '치매교실'=어르신들의 가장 큰 걱정은 치매. 은평노인복지관이 준비한 치매교실에서 책 읽고 소감문 써오기, 보조자료 프로그램 활동, 토론 등을 하다보면 치매 걱정은 이제 끝! 노인건강증진프로그램연구소 정명숙 부장 등 전문가들이 진행하는 이번 강좌는 오전 10시 30분 복지관에서 열린다.(02)385-1351

1천일 봉사 서원 '개근상 보살'

우리 절 우리 신도

도선사 삼성각 지킴이 조정님 보살



◇조정님 보살(왼쪽)이 도반들과 함께 제기를 닦고 있다.

"그 보살…? 개근상 줘야해, 개근상."

조정님(50 · 정진행) 보살을 만나러 왔다는데, 어디 있단 말도 없이 엉뚱한 이야기만 한다. '학교도 아닌 절에 개근상이라니…'. 다시 조 보살이 있는 곳을 묻자 노보살들은 삼성각을 가르쳐 준 후 길을 재촉한다.

서울 도선사 삼성각 지킴이 조정님 보살. 조 보살이 도선사 삼성각 관리를 맡은 것은 재작년부터다. 이때부터 조 보살은 하루도 빠짐없이 도선사에서 자원봉사를 해왔다. 심지어 작년 겨울 폭설로 도선사 일대 길이 막혔을 때도 봉사를 거르지 않았다. 그래서 도선사 신도들은 조 보살을 '개근상 보살'이라 부른다. 조 보살이 이토록 봉사에 매달리는 것은 '1천일 무상 몸보시' 서원 때문

조 보살이 이런 서원을 세운 데에는 까닭이 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와 법당을 다니던 조 보살은 막상 결혼을 하고나서는 신행생활을 하지 못하게 됐다. 시댁식구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다, 생활에 쫓기면서 좀처럼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그러던 조 보살이 불교와 인연을 다시 맺게 된 것은 10년 전 우연히 팔공산 갓바위 부처님을 친견하면서부터. 이 날 남편은 자가용을 타고 가다가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했지만 기적적으로 혼자 무사히 살아나자, 조 보살은 부처님의 가피라 여기고 부처님 은혜를 갚겠다는 결심을 했다.

서울로 이사를 온 조 보살은 원찰로 다닐 곳을 찾다가 도선사 석불 부처님의 편안한 모습을 보고 그날로 도선사 신도가 됐다. 하지만 서울 생활은 쉽지 않았다. 멀쩡히 직장생활을 잘하던 남편이 큰 실수를 해 사직 위기에 빠지고, 서울 생활에 적응 못한 자녀들은 성적이 떨어지면서 문제아로 몰리는 등 계속되는 위기가 조 보살을 괴롭혔다.

차사고 남편 건재…"불은 갚고파"
도반들 경조사 빠짐없이 챙겨

그러던 어느 날 절에 다니는 것을 못마땅해 했던 남편이 손을 덥석 잡으며 "가정을 잘 이끌어 주어서 고맙다"며 "열심히 신행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했고, 이때부터 조 보살은 이제까지 해오던 식당일을 그만 두고 도선사 '1천일 무상 몸보시' 실천에 들어갔다.

삼성각 관리소임을 맡고 있지만, 조 보살은 도선사 일이면 무엇이든 나선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삼성각 청소와 부처님 공양은 물론, 도선사를 찾은 신도들에게 점심을 공양하고, 도선사에 농산물 시주를 하겠다면 장소를 가리지 않고 찾아갈 정도다. 요즘은 연등 준비를 하느라 도반들과 함께 초파일 준비에도 여념이 없다.

이렇게 바쁜 가운데도 신도들의 '카운슬러' 역할도 마다하지 않는다. 도반들 경조사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것은 물론, 집안 문제를 걱정하는 신도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일과가 됐다. 그래서 조 보살 주변에는 늘 사람이 넘쳐난다.

"조 보살은 평소엔 말이 없어 곁에 있는 줄조차 모를 정도예요. 하지만 무슨 일을 하다 보면 제일 부지런히 움직이는 사람이 조 보살이죠." 함께 불기를 닦던 도반이 귀띔한다.

조 보살은 요즘 불교공부에 열심이다. 봉사를 하다보면 시간이 없어 늘 경전공부에 대한 아쉬움이 많았다. 그래서 조 보살은 올봄에 신설된 도선사 신도교육기관인 '도선불교실다학원'에 등록해 기초 교리를 배우고 있다.

"주지 스님께서 신발 하나 신고 벗는 법부터 사찰예절의 하나하나를 자세히 가르쳐 주시죠. 수업을 듣다보면 그동안 불자라고 자부해 온 것이 부끄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예요."

조 보살은 1천일 서원이 끝나는 대로 다시 참선 수행과 경전 공부를 통해 부처님께 보답하겠다는 서원을 하나 더 세웠다.

글 · 사진=강유신 기자

추천의 말

혜자 스님 도선사 주지



전통적으로 도선사는 기도정진 도량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현재도 많은 불자들이 찾아와 기도정진을 하고 있지요. 하지만 불자들이 편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선사를 관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님들만의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정님 보살과 같은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은 도선사 운영에 절대적인 역할을 합니다.

작년 12월 이래로 도선사는 매달 첫째 주마다 '자비도량참법 철야정진기도'를 다시 실시해 불자들의 참회 정진을 돕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찰의 대소사가 원만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조 보살과 같은 신도들의 열성적인 참여가 필수라 불자들의 헌신적인 봉사에 고마움을 느낍니다.

도선사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80여명의 불자들은 도선사의 보배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불제 연등용 전선 (케이블)

사찰용 전구 3W, 5W, 10W • 건전지용 초 • 청사초롱 및 손잡이대

등간격
22cm.30cm.50cm.
1M.2M.3M.5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 지겠습니다."

사찰전구
▶ 불제대원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 종류 : 3W, 5W, 10W
▶ 일반 전구에 비하여 전구알이 견고하여 잘 깨지지 않으며 월라멘트가 6배(특 월라멘트)로 밝아 월등이 밝고 깔끔 효과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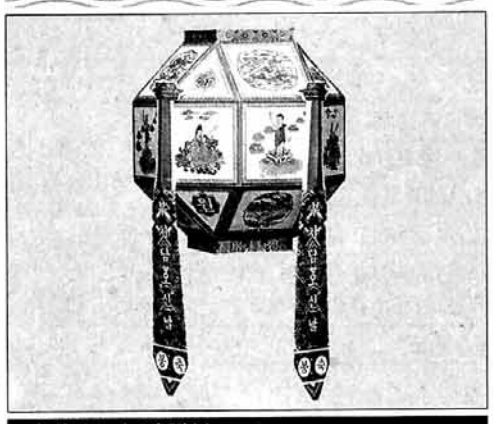
불제 건전지용 초
▶ 청사초롱 및 연등용으로도 사용이 편리하며 4월초파일날 행사, 각종 연등행사 (탑돌이, 방생)등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 장점이 있어 공연행사 등 이동에 적합 합니다. (건전지 사용)

꺼지지않는 초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031) 986-0277~8
http://www.bulje.co.kr
구입문의 (02)2266-2634
(02)2263-2638
주소 :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389-43

우리불교 전래의 조립식 팔각등

가격을 동결 하였습니다.



가격 동결 단행!!
● 어려운 사찰의 경제에 도움을 드리고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가격을 동결하였습니다.

조립용 비디오 테이프를 드립니다.
● 처음 사용하는 사찰을 위해 조립과정이 녹화되어 있는 15분용 비디오 테이프를 드립니다. — 불교 TV 제작 —



❖ 연등초벌용 8Cm ❖ 초벌용위에 연잎을 붙인 상태 ❖ 연등완성품

이제 연등에 번잡한 풀칠이 필요없습니다!!

조립식 팔각등

★ 제작이 간편한 등
종래의 철골 구조에 낱장으로 풀발이 하던 등 제작이 「한번의 공정으로 아름답고 멋스러운 등」이 3분내에 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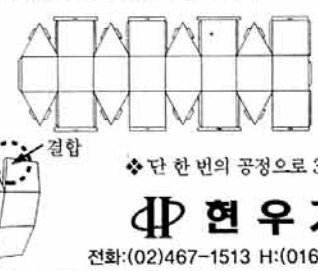
★ 형형색색의 문양과 미감
고려시대 연등회, 팔관회의 고증을 토대로 「형형색색의 단청 문양과 현대적 감각의 색상을 조화」하여 봉축의 의미와 중생의 불심이 더욱 고취될 수 있도록 디자인.

★ 야외장엄용
「특수 이중 합지방식에 코팅 처리」를 하여 이슬에 젖지 않음은 물론 견고성을 지니고 있어 「행사 수일 전부터 사찰의 축제분위기 장엄」에 활용.

★ 운반 및 보관 용이
「운반 및 보관이 편리」하도록 고안.

★ 경제적인 가격
종래의 복잡 다원화된 유통 구조적 가격을 배격한 「사찰을 위한 경제적 가격」

❖ 펼친 상태(골조 및 인쇄겉지 합지 방식)



결합

❖ 단 한 번의 공정으로 3분내 완성

현우기획
전화:(02)467-1513 H:(016)552-9360

불교학 결집대회 5월 4일 개최

가입단체, 학회 14 · 연구소 10 · 학교 6곳

학자 200여명 11분과로 나눠 이틀간 토론

한국불교학결집대회(5월 4~5일)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불교학결집대회는 가입단체만도 14개 학회와 10개 연구소, 6개 학교를 합해 30개에 달하고, 200명이 넘는 불교학자들이 이들에 걸쳐 11과 분과로 나눠 발표하는 대규모 학술대회다. 불교학 연구자와 전공자들이 총망라됐다고 하는 점에서 한국 불교학계의 연구 풍토와 저변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불교학결집대회 조직위원회는 1일 논문 발표 신청자 213명을 신라 · 고려, 원효, 조선 · 근현대, 화엄 · 중국삼론, 중국불교 · 중국선 · 일본선, 기신론 · 법화천태 · 선심리 · 밀교, 인도대승이전, 인도대승이후, 비교 · 불교문화예술, 불교어문학, 불교응용 분과로 나눠 배정했다. 애초 신청 받았던 20개 분야를 11개 분과로 재조정해 분과당 발표 인원을 20명으로 배정했다.

이번 불교학결집대회는 무엇보다 신진 학자의 발굴과 불교학 저변 확대에 대한 기대를 부풀게 하고 있다.

분과 배정이 끝난 213명 가운데 현재 대학에 소속된 177명을 보면 동국대가 119명으로 67%에 달한다. '특정 학교 편중'이라는 비판도 가능하겠지만 나머지 발표자의 소속 대학 수가 40여 개에 달한다는 사실은 고무적이다. 지역 분포 또한 전국적이다. 동국대가 조계종립대학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불교학 연구의 저변은 상당한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마지막으로 불교학결집대회에 가입한 한국동서비교문학회와 한국불교원전연구학회 소속 학자들은 그 동안 불교학회에서 논문을 발표하지 않았던 경우여서 신진 학자 발굴과 불교학 풍토의 다양화에도 일정 부분 기대를 갖게 한다.

하지만 1일 확정된 분과를 보면 우리 나라 불교학자 층이 특정 시대, 특정 인물에 지나치게 몰려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만하다. 시대별로는 신라와 고려불교, 인물로는 원효, 교학 측면에서는 화엄학에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시대별로 보면 신라 불교가 28명(원효 19명 포함)으로 가장 많았고, 고려 불교가 11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조선불교는 8명이었고 근대와 현대는 각각 5명에 그쳤다. 신라 불교 중에서도 원효 관련 신청자가 19명에 달해 따로 하나의 분과를 만들었다는 것은 한국 불교학의 연구 성과가 특정 시대 못지 않게 특정 인물에 집중되는 경향을 그대로 보여 준다. 교학쪽에서도 천태 · 법화가 7명, 밀교 5명, 선(禪) 5명, 기신론 3명에 비해 화엄 분야는 15명이나 된다.

조직위원장 혜주 스님은 "그 동안 개별적으로 활동하던 학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발표하는 만큼 얼마만큼의 학문적 깊이를 보여줄지도 기대된다"며 "결집대회가 지속적으로 열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재 불교학계의 현황을 정확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학술담당=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정보화 사회 윤리기준 불교 사섭법을 지침으로"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 주장



바로 '보시'다. 즉 각자 가진 정보를 제공해야만 서로 간에 지적인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해석이다. 정보가 공유되기 위해서는 상호 이익이 되는 정보를 공유해야 하는데, 이것은 '이행'으로 설명된다. 인터넷 상에서 순화된 언어를 사용하는 문제는 '애어'로 해석할 수 있고, 자타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정보를 타인에게도 같은 마음으로 개방시켜 놓는 것이 '동사'다.

정보공유는 공업중생의 결합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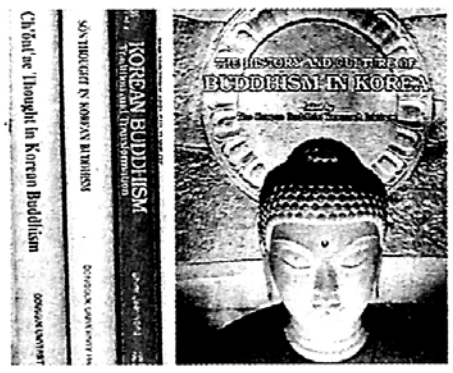
선업 쌓게 지혜의 문 열어줘야

현대불교사회문화원은 정보화 사회에 대한 불교계의 인식 전환을 위해 '정보화 사회에 대한 불교계의 대응'을 주제로 올 한 해 등안 프럼을 연다. 3월 23일 열린 첫 프럼에서 '정보화 사회에 대한 불교적 해석'을 발표한 김응철(중앙승가대 · 사진) 교수는 "정보화 사회에서 필요한 윤리 기준은 불교의 사섭법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보화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정보의 공유' 인데, 보시(布施), 애어(愛語), 이행(利行), 동사(同事)의 사섭법이 정보화 사회의 행동 지침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 교수에 따르면 정보의 공유는 정보 공유 현상을 불교적 시각에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김 교수는 "정보의 공유현상은 공업중생(共業衆生)의 결합"이라며 "불교에서는 신 · 구 · 의 삼업을 청정하게 하는 과정을 통해 악업을 소멸하고 선업을 쌓을 수 있도록 지혜의 문을 열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정보기술의 발달은 인간의 가치 판단 능력의 고도화를 요구하는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불교적 가치판단의 기준이 증도적 가치관이다"며 "증도적 가치관은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으로 사물과 정보를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이 볼 佛書가 없다"

청고 스님 지적, 몇권 안되는 번역서도 구하기 힘들어



◇영어로 번역된 한국 불교 관련 서적들.

현재 외국인들이 접할 수 있는 외국어로 된 한국 불교 서적이 거의 없다는 지적이 한국에서 수행중인 한 외국인 스님에게서 나왔다.

청고 스님은 최근 출간된 〈불교와 문화〉 3 · 4월호 특집 '한국 불교 서적의 외국어 번역 어떻게 해야 하나'에 기고한 글에서 "외국인들이 볼 수 있는 한국 불교 책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미국에서 태어난 청고 스님은 1993년 한국에서 혜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현재 동국대 대학원 선학과에서 석사 과정을 밟고 있다.

영어로 번역된 한국 불교 관련 서적이 얼마나 되기에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것일까? 국내에서는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이 1994년 〈Buddhist thought in Korea〉을 시작으로 4권을 펴냈고, 개별 학자로는 심재룡(서울대) 교수, 원의범(동국대) 교수, 길희성(서울대) 교수가 있다. 외국 학자로는 루이스 랭카스터 미국 버클리대 명예교수와 로버트 웨스웰(UCLA) 교수가 대표적이다. 〈Sourcebook of Korea〉(콜롬비아대 출판부)도 빼놓을 수 없다.

번역된 몇 권 안 되는 책조차 쉽게 손에 넣을 수 없다는 것도 문제다. 청고 스님은 "대부분 절판된 상태"라고 말한다. 또 다른 문제는 다루는 시대가 제한적이라는 것. 청고 스님은 "영어판 대부분이 현재 살아 있는 선사들의 가르침이거나 500년 전 선사들의 가르침이다"라며 "3백년 이전과 현대 사이를 메워줄 저술이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한국사연표 발행

선사시대 역사사실에서 박영석 씨 K2 등정까지

선사시대 이래 이 땅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실을 연대순으로 정리한 〈한국사 연표〉가 다할 미디어에서 나왔다. 〈한국사 연표〉는 일본 유학생 故 이수현 씨가 도쿄 전철역에서 일본인 취객을 구하려다 사망(1월 26일)한 사건이나 산악인 박영석 씨가 히말라야 K2봉 등정(7월 22일)에 성공한 일 등 바로 지난 해 것까지 범위에 넣었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표와 다르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대(1993년 4월 9일)나 김일성 주석 사망(1994년 7월 8일)과 같은 북한 관련 사실을 대폭 실었다는 점도 눈에 띈다. 세계사적 맥락에서 한국사를 본다는 취지로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군사 정권이 바미안 고대석불을 파괴한(2001년 3월 12일) 것 등 세계사 주요 내용도 함께 실었다. 1만2천원.



◇홍수로 훼손된 김포 암장리 사지.

김포해안 절터 훼손된 채 방치

경기도 박물관 조사

경기도 김포시 해안지역 절터들이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어 정밀 학술 조사가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포시 해안지역인 양촌면과 대곶면, 월곶면, 통진면 일대에는 암장사지, 원산리사지, 양택리 사지, 요사지 등 조선시대 절터 네 곳이 남아 있다. 하지만 대부분 절터인지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경기도박물관이 최근 펴낸 〈도서해안지역 종합학술조사(III)〉 보고서에서 밝혀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암장리 사지는 홍수 등의 자연재해로 전각이 자리잡았을 평지가 사라져 버려 주춧돌 등도 확인하기 어렵다. 양택리 사지는 기와 조각이나 측대 등을 전혀 찾아볼 수 없어 절터인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요사지도 기와 조각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으나 석탑이나 석등 등의 석조물을 전혀 찾아볼 수 없고, 19세기 말의 옹기나 기와, 백자 조각이 발견되었다는 기록이 전하는 원산리 사지 역시 약수터 등으로 정비되어 흔적을 찾을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박물관은 "김포 해안지역 절터들이 자연재해로 손상되거나 절터인지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변형되어 있다"며 "이 지역 절터에 대한 정밀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해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이번 조사는 10개의 불교유적과 36개의 고고유적, 20개의 관방유적 등 모두 125개의 유적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문헌상 最古 금속활자본 '남명천화상송증도가' 복원

직지보다 145년 이상 앞서

문화재청은 문헌 기록상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인 〈남명천화상송증도가(南明泉和尙頌證道歌)〉를 복원한다고 3월 25일 밝혔다.

〈남명천화상송증도가〉는 당 나라 승려 현각이 지은 선종(禪宗)의 지침서를 송 나라 승려 남명선사 법천이 각 구절마다 그 뜻을 구체적으로 풀이해 놓은 책이다. 현존하는 책은 고려 고종 26년(1239년)에 최이가 이미 간행된 금속활자본을 견본으로 삼아 목판으로 다시 펴낸 복간본 중 하나가 전해진 것으로, 보물 758호로 지정돼 있다.

이 책 끝머리에 나와 있는 기록에 따르면 이 책의 금속활자본은 현존하는 세계 최고(最古)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1377년)보다 145년 이상 앞선, 1232년 강화도 천도 이전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문화재청은 2000년부터 '고인쇄 문화 연구 복원 사업'을 실시해 왔으며 지난 해 목판본으로만 전하는 〈직지심체요절〉 상권을 금속활자본으로 복원한 바 있다. 〈직지〉 상권의 활자 복원을 맡았던 증요무형문화재 제101호 금속활자장 오국진 씨가 작업한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월인천강지곡〉, 계미자 · 경자자 · 갑인자 등 조선시대 금속활자를 복원할 계획이다.

"미륵부처님은
국토가 안온하고 원적과 도적의
재난이 없고 물이나 불 전쟁의 고통이 없으며
기아와 재난이 사라지고 사람들은 항상 자비로운
마음으로 서로를 공경하고 화목하여 모두
한 가족처럼 아끼고 사랑하며
말씨가 겸손하다"
- 미륵하생경 中 -

미륵대불 점안식

수국사의 미륵대불의 높이는 43미터이며 자비와 지혜를 거룩하게 장엄하고 있습니다. 실로 백년에 한번 모시기 어려운 미륵대불이라고 할 것입니다. 수국사를 찾는 불자들의 신심을 밝게 비추는 법의 거울이 될 미륵대불 정안식에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 일 시 : 2002년 4월 9일 (음력 2월 27일) 오전 10시 30분
◆ 장 소 : 수국사
◆ 문의전화 : 종무소 02)356-2001

서울시 은평구 갈현동 314번지
대한불교 조계종 황금절 수국사
주지 한정기 [자용] 합장

天然 토종 오가피의 신비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 氏



— 재배자가 직접 만들어 화제 —

舊소련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오가피를 복용시켜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용했던 소련산 가시오가피는 그 유효성분이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의 25%에 불과했습니다. (노벨수상자인 독일 와그너박사의 논문에서…) 왜냐하면 오가피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寧得一把五加 不用金玉滿車
(영득일파오가 불용금옥만차)
하줌의 오가피를 얻으니 한마차의 금옥보다 낫구나…
(本草綱目)

◐延年 不老 仙經藥也(연년 불로 선경약야)
(오가피를 먹어) 수를 더하고 늙지 않으니 실로 신선의 약이로구나…
(東醫寶鑑)

◐Acanthopanax (오가피의 학명)
'아칸토'는 가시나무를 뜻하며 '파낙스'는 만병을 치유한다는 뜻으로 만병을 다스리는 가시나무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공주교대 조선행박사)

■용내낼수 없는 것이 있다!
수신 토종오가피는 TV건강문화(i-TV 2000년 1월15일) KBS "6시 내고향", "나의 영농체험"에 출현한 20년간 오가피를 키워온 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100% 국내산 토종오가피로 만듭니다. 가오가피나 수입 오가피로 만든 제품과 비교하지 마십시요.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오가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오가피 건강상담 : 02)454-3733



이시우 박사가 쓰는

불교와 우주 ㉒

지구진화와 인류문명의 발전

인류문명사 지구역사의 한 '찰나'

인간의 탐욕 · 自性집착
오늘날 지구운명 위기로
불법 조화로운 緣起 중시

오늘날 우리는 첨단 정보산업시대와 우주시대를 맞이하여 물질문명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그러면서 마치 이 우주가 인간의 손바닥 안에 있는 것처럼 자연을 인간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유전자 공학과 전자기술을 결합하여 인간을 대신할 수 있는 인조인간을 만들어 최고의 안락과 행복을 추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인류의 문명이 지구 역사에 비해 얼마나 오래 동안 발전해왔는가?

거대한 은하의 성운에서 원시 태양계의 물질이 분리되어 나온 것은 47억년 전이다. 이 원시 물질이 서서히 수축하여 태양과 지구를 비롯한 행성들이 만들어진 것은 46억년 전이다. 이러한 지구의 역사를 1년으로 잡는다면 1월 20일까지는 매우 빈번한 미행성들의 충돌이 일어났었고, 이로부터 생명의 씨앗이 지상에 전달되어 3월 15일에 최초로 지상에 무핵 단세포가 탄생했다. 4월 16일과 6월 24일 사이에 박테리아, 무척추 동물, 해조류가 등장했다. 그리고 10월 13일까지 식물의 광합성으로 많은 산소가 생겨나 대기 중으로 방출되면서 오늘날의 지구 대기를 형성했다. 11월 26일에 육상 식물과 폐어류가 등장했고, 12월 15일에 시조새, 익룡, 공룡 등이 등장했다. 12월 26일에 영장류(사람, 원숭이, 유인원을 통칭하는 말)가 등장했으며 12월 31일 밤 6시 20분 경에 인간의 조상인 원류인이 등장했고, 밤 7시 14분에 호모사피엔스(현명한 인간)가 나타났으며 현대인 크로마뇽이 등장한 것은 그믐날 밤 11시 56분이었다.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제창한 시간은 밤 11시 59분 57초경이고, 최초로 외계에 전문을 발사한 시간은 밤 11시 59분 59.7초이며, 인류 역사상 최초로 달에 발을 내디딘 시간은 밤 11시 59분 59.8초이다.

지구 역사를 1년으로 둘 때 지상에 손발을 가진 영장류가 나타난 것은 지금으로부터 5일 전이다. 더욱이 인간의 직접적인 조상으로 보이는 원류인의 등장은 지금으로부터 5시간 40분 전이였고, 인간의 모습을 지닌 크로마뇽의 등장은 겨우 4분전이다. 1년의 365일이란 시간에 비해 4분이란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오늘날의 인간으로 진화되었고, 그러면서 도구를 쓰고 말과 문자를 만들면서 의사소통을 했다. 기원전 6세기부터 시작되어온 희랍의 고대문화와 신화, 석존과 예수 등 성인에 의한 종교의 탄생, 산업 혁명에 따른 과학기술의 발전 등은 모두 지금으로부터 20초 이내에 이루어진 것들이다. 외계탐사를 계기로 한 최첨단과학의 발달은 지금으로부터 0.3초 내에 이룩된 것이다. 이렇게 인간의 진화 과정을 지구의 역사와 비교해 볼 때 도구와 지혜를 쓰면서 인간의 역할을 시작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불과 30초 이내로 지구 역사의 1500조 분의 1에 해당하는 '찰나'에 지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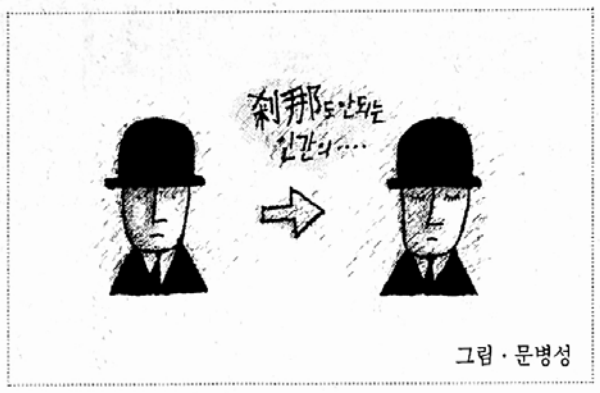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우주의 섭리를 손금 보듯이 훤히 알며 또 자연을 마음대로 쉽게 요리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코페르니쿠스의 과학혁명 이후 1600년부터 오늘날까지 인간이 이룩해온 문화와 문명의 기간은 긴 지구 역사에 비해 5경(5천조의 10배) 분의 1에 해당하는 너무나도 짧은 시간에 해당한다. 그런데 바로 이 기간 동안에 자연의 섭리를 따라 온전하게 지탱해오던 푸른 지구는 심각한 암에 걸리고 말았다. 산업 쓰레기에 의한 땅의 오염, 유해한 배출 가스에 의한 대기의 오염, 무차별적 개발에 의한 환경파괴와 생물 종(種)의 멸종 등은 옛 조상들이 가꾸어온 지구를 단숨에 망쳐놓고 말았다. 특히 정부의 주도 아래 이루어지고 있는 첨단산업은 엄청난 에너지를 요구하며, 이 에너지는 바로 지구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벌은 꽃의 꿀을 따면서 꽃을 망치지 않는데, 인간은 지구에서 꿀(자원)을 따면서 지구를 망쳐 놓는다. 어느 과학자는 인구 증가와 자원의 고갈 때문에 다른 행성으로 옮겨가서 인간의 생존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주개발을 가속화시킬 필요성을 말한 바 있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가! 인간의 탐욕 때문에 인간이 가는 곳은 모두가 망가지고 폐허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경험해오고 있다. 행성탐사의 목적은 그들의 과거 역사를 잘 살펴보고 이것을 거울로 삼아 어떻게 하면 지구를 온전하게 잘 가꾸어 후손에게 푸른 지구를 물려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지, 결코 지구의 탈출이 아니다.

동양의 노장사상이나 불법에서는 빠르고 격렬한 경쟁적 움직임을 피하고, 느리고 조용한 정(靜) 속의 동(動)과 조화로운 연기관계를 중시한다. 오늘날 지구의 운명은 탐욕이란 찬란해 보이는 허공의 무지개를 좇아 마구 달리는 잔인한 경쟁과 특별해 보이려는 자성(自性)의 집착이 얼마나 오래 동안 지속되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

▩전 서울대 천문학과 교수

이렇게 들었다

전신마비 · 가족도 못만나

중국동포의 무너진 꿈

한 중국동포가 병원비가 없어 3~4개 병원을 전전하다 병세가 악화돼 결국 팔다리가 마비됐으나 가족조차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연이 지난달 26일 전해졌다.

통역사가 되려는 딸의 꿈을 이뤄주기 위해 지난해 여름부터 공장 야간작업과 막노동을 가리지 않고 해오던 이 중국동포는 혈관이 막혀 전신이 마비되는 '색전성 뇌경색'이라는 병을 얻었지만 병원비가 없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신세로 전락했다. 간병을 위해 중국에 있는 아내를 데려오려 했지만 초청에 필요한 진단서 발급을 병원이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병원 측은 밀린 병원비를 먼저 내기 전에는 진단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중국동포와 같은 경우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여전히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존엄마저 짓밟히며 살아가고 있다.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비인간적이고 몰인정한 국민으로 변해버렸는지 부처님 말씀을 되새기며 돌아보자.

▩대승에 이르러면 네 가지 일이 있다. 그것은 보시로 모든 궁핍한 이를 도와주며, 높고 낮은 이를 차별하여 마음을 두 가지로 쓰지 않으며, 무엇을 남에게 주면서 무슨 희망이나 갚음이 있기를 바라지 않고, 공덕을 중생에게 두루 베푸는 것이다. <방등경>

▩선인은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것과 같이 사랑하고 가엾이 여기는 마음으로 중생을 사랑하는 것이다. <출요경>

▩보살마하살은 온갖 중생에 대해 부모 형제 처자 제 몸 같은 생각을 갖는다. <대반야경>

▩보살은 자심(慈心)을 지녀서 시방의 사람들과 심지어 벌레의 부류까지도 가엾이 여기되 갓난애 같이 보아, 다 해탈(解脫)케 해야 한다. <태자쇄호경>

禪과 21세기

'임제록' 통한 선 공부 ⑤

의식에 속지 말라

간절한 마음통해 현실 파악을

"오늘의 법회(法會)는 일대사인연(一大事因緣) 때문이다. 또 묻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가? 있다면 어서 나와서 물어라! 그러나 그대들이 입을 열기만 하면 바로 어긋나 버린다. 왜 그러한가? 보지도 못했는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법(法)은 문자(文字)와 관계 없으니, 인(因)에도 속하지 않고 연(緣)에도 있지 않기 때문이다'고 하신 것을? 그대들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 이처럼 갈등하고 번뇌하는 것이다."

임제는 한번 "악!"하고 고함치고는 다시 말했다.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결국 깨달을 날이 없을 것이다."

이른바 법은 바로 지금 있는 이대로이다. 그러나 지금 있는 이대로가 바로 법이라고 생각하거나 말하면 어긋난다. 법은 무엇이 인연이 되어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인연이 나타나도 법일 뿐이고 나타나지 않더라도 법일 뿐이다. 법은 사람에 의하여 왜곡되거나 손상당하지 않는다. 사람이 스스로 바로 보거나 잘못 볼 뿐이며, 모르거나 아는 것일 뿐이다.

사람이 법을 잘못 보거나 모르는 까닭은 스스로 법을 의식하기 때문이다. 의식하지 않으면 지금 있는 이대로 법에서 조금도 어긋나지 않지만, 의식하는 순간 의식이라는 허구에 가려서 스스로 잘못되어 버린다. 이것은 마치 동물원을 구경하러 간 사람이 살아 움직이는 동물을 보고는 바로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을 보는 것과 같다. 매 순간 살아 움직여서 조금도 멈춤이 없는 동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고정된 허구인 사진을 보고 만족하는 것이다.

우리의 의식은 이와 같이 순간순간 머뭄 없이 흘러가는 살아 있는 진실을 보지 못하고, 늘 사진을 찍어 고정시켜서 보려고 한다. 그러나 실제는 전혀 고정되어 유지됨 없이 흘러가므로, 욕심에 따라서 사진을 찍는 순간 허구에 빠져버린다. 그러므로 사진을 바라보는 의식은 늘 허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의식에 사진으로 남아 있는 허구를 가리켜 우리는 과거라고 일컫는다.

그러므로 의식은 늘 과거에 머물러 있다. 문제는 과거가 허구라는 것이다. 우리는 늘 현재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현재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머물지 않는 변화의 연속으로 나타난다. 변화의 연속을 변화 없는 것으로 바라보니, 의식은 실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허구를 보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의식이 변화 없는 허구를 바라보는 그 순간에도 의식은 끊임 없이 흐르는 변화 속에 있다. 이처럼 지금 여기서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는 것이 의식의 문제이다.

이처럼 지금 나타나는 머뭄 없는 현상을 멈추어서 보거나 알려고 하는 것이 의식의 일이다. 그러나 의식이 아닌 마음 그 자체가 되면, 마음은 머뭄 없는 현상과 둘로 분리 되지 않고 머뭄 없는 현상과 하나가 되어 함께 머뭄 없이 움직인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허구에 빠지지 않고 진실 이대로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면 의식이 제공하는 사진을 볼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멈춤 없는 움직임으로 살아 있어야 한다. 그것은 다만 마음 저 깊이에서 아무 조건이나 대상을 예상하지 않음으로써 의식의 침입을 용납하지 않는 무조건적이고 간절한 믿음, 지금 이 순간 아무 모자람 없이 살아 있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실현된다.

김태완 · 부산대 강사, 철학
http://www.mindfree.net/

영어로 배우는 불교용어

미륵전 Hall of Maitreya Buddha 칠성각 shrine hall of the Big Dipper

The hall of Maitreya Buddha s main statue is the Maitreya Buddha. Maitreya Buddha is the future Buddha. He waits until his time to be born on this earth arrives. He is the embodiment of love and compassion. He sits with his right elbow resting on his right knee. And his right foot or ankle is on his left knee. The left hand rests on the right ankle. The index and middle fingers of his right hand are slightly inflected and just touch the face.

미륵전의 주불은 미륵불이다. 미륵불은 미래불로 이 땅에 다시 태어날 때를 기다리고 있는 사랑과 자비의 화신이다. 미륵불은 오른쪽 팔꿈치는 오른쪽 무릎에, 오른쪽 다리나 발목은 왼쪽 무릎에 올려놓는다. 이때 왼손은 오른쪽 발목에 올려놓는다. 오른손 집게손가락과 가운데 손가락을 구부려 얼굴에 살짝 대고 있다.

Chilsong, the Big Dipper, has roots in Taoism and Shamanism. The Big Dipper is thought to control both good and bad fortune. On the left side of the Main Hall or Judgement Hall, a large painting of Chilsong is sometimes hung.

칠성은 도교와 샤머니즘에서 유래한다. 북두칠성은 길운과 악운을 다스린다. 주로 대웅전이나 명부전 왼편에 큰 칠성탱화가 걸려있다.

"스님들께서 육임을 하면 역술이 아닌 법력이 되고 맙니다. 육임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 육임래정비법 혁신판 출간 ▶

- 바인더 차트식으로 되어 있어 하루치씩 꺼내 보게 되어 있습니다. -

음양오행을 몰라도, 역술공부가 부족해도, 이 「육임래정비법 혁신판 좌정용과 휴대용」만 있으면 그 고민은 이제부터 해결 됩니다.

■ 육임은 시간으로 보는 고등역술로서,
찾아오거나
전화오거나
가서 만난사람
의 비밀한 속사정을 먼저 말해줄 수 있게끔 되어있는 비서(秘書)입니다.

■ 출생 년월일시를 물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찾아 온 그 날 그 시간
전화 온 그 날 그 시간
가서 만난 그 날 그 시간
만 보면 이미 그 해당 시간 칸칸 마다에 상대방의 비밀한 속사정들이 다 적혀 있는 기서(寄書)인 것입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여러명이 오거나 전화하거나 가서 만나더라도 각기 다르게 말해 줄 수 있게끔 쓰여 있어서 편리하고 신통합니다.

■ 또, 어디를 움티질때도 방문 앞에 오늘, 내일, 10일후, 한달후, 1년후 어느날 어느시간에 온 방문자이든 아래 내용들을 볼 수 있도록 미리 써 놓고 외출할 수 있으며, 미리 써 놓은 그것들이 신통하게 맞으므로 내가 자리에 없을때나 외출 할때나 나의 법력과 도력이 크게 과시 되는 것입니다.

■ 이를테면
●무슨일 때문에 왔는지, 전화했는지
●어떤 특별한 속사정을 이미 겪고 있는지, 아니면 장차 겪게 될 것인지
●묻고자 하는일이 어떤것이든 그 목적사가 될 것인지, 안될것인지, 된다면 묻는 그 목적사가 어느쪽, 또는 어느 일에 가서 성사 될것인지
●본인이 저지른 일인지, 남으로부터 당한 일인지
●상대방의 천성이 선한지, 악한지
●상대가 이익을 줄 사람인지, 피해를 줄 사람인지, 손해나게 할 사람인지, 무력한 사람인지
●하고자 하는 일의 시작과 중간과 결과가 어떻게 전개 될 것인지
●지금 무슨 귀신의 침범을 받고 있는지, 그 귀신을 어떻게 제압시킬 수 있는 것인지
●지금 누구의 산소에서 방해하고 있는지, 어떻게 그 탈을 해소 시킬 것인지
●현재 살고 있는 집의 가상이 흉한지, 길한지
●이사를 어느 방위로 몇일날 해야만 개운이 될 것인지
●부적, 굿, 천도, 고사등 수법을 행할때 효과가 있겠는지, 없겠는지, 그렇다면 언제 해야만 좋을 것인지
●어는 방위에서 사는 남녀 누구가 묘는 묘적을 방해 하고 있는지
●부부간 누가 밀통을 하고 있는지, 한 남자에 두 여자 관계인지, 두 남자에 한 여자 관계인지, 남자가 적극적인지, 여자가 오히려 적극적인지
●병(病)이 나을지 안 나을지, 낫는다면 언제까지 낫게 될 것인지
●집(土地)이 팔릴지 안팔릴지, 팔린다면 언제 팔리게 될지
●임신한 아이가 여아인지, 남아인지

■ 이처럼 핵심사항들에 대해 들어서자 마자, 전화 받자 마자, 가서 만나자 마자 즉시 맞해주게 되면 상대방은 당장 기선이 제압당해 자기가 알아서 생각하게 되고 맙니다.

■ 이 외에도 즉시 판단할 수 있도록 계획, 승진, 구재, 구직, 시험, 혼사, 임신, 가정, 이사, 소송, 질병, 매매, 도난, 가출, 대인, 방문, 채용, 투자, 승부, 가격, 경작, 묘지, 기후 사항 등을 밝혀 놓았습니다. 육임은 참으로 신통하여 역술인이면 누구나 하고 싶어 하지만 워낙 난해하여 포기하고 마는데, 이처럼 쉽게 챠트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책은 할인전문 천역자 분들에게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주문전화 : 02-993-8680 부산지사 : 051-851-2349
본 사 : 02-996-3335 당일배달 : 정현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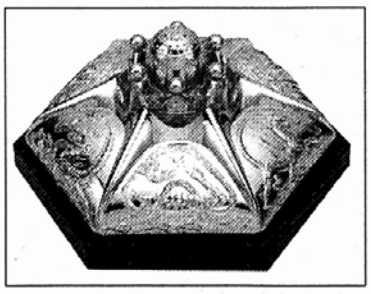
입금구좌 : 한빛은행 813-041583-13-101 김영란 도서출판 복문
책 값 : 좌정용 1,300,000원 휴대용 1,500,000원 증보판 350,000원
매월별 12권 분권(부록, 비디오 포함) 각종 카드를 장기분할 구입이 가능합니다.

■ 육임강의안내 : 육임기초 · 기본에서부터 육임제비법활용단계까지 3개월 12강으로 완성합니다. 수강료는 1백 5십만원이며, 현재 제 1기 30명, 제 4강까지 진행되어 있고, 제 2기는 6월 7일부터 30명 제한으로 신청받고 있습니다.

■ 육임 통신 강의안내 : 지방에 계시거나 참석시간에 애로가 있는 분들께서는 비디오 수강이 가능합니다. 수강료는 80만원이며, 매주 금요일 오후 7시부터 3시간 동안의 강의 내용이 생생하게 담겨 3일이내 도착됩니다.

● 참고 하실 것은 사주명리 10년을 해도 육임 3개월을 공부한 육임가의 판단능력을 따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천문을 아는데는 태를, 지리를 아는데는 기문, 인사를 아는데는 육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사주나 일반명리는 묻는 것에 즉답할 수 없는 구조를 안고 있습니다. 육임은 묻는 것을 시간만보아 딱딱 부러 뜨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먼것보다 당장의 문제를 묻어 옵니다. 여기에 육임의 진가가 있는 것입니다.

좋은 명당을 만드는
소원성취 명당 육기(六氣)방
특허받은 명당 옥기방



이런분에게 사용하십시오.
1. 사업을 시작 하시는 분
2. 사업이 잘 안되시는 분
3. 하시는 일들이 잘 안풀이시는 분
4. 가정에 불화와 우환이 많으신 분
5. 소원을 이루고자 하시는 분
6. 돈이 새어 나가고 융통이 안되시는 분
7. 공부를 안하고 자녀가 말성을 부리는 분
8. 부부화합이 잘 안맞어 힘드시는 분
9. 집터나 묘터가 안좋다고 생각하시는 분
10. 위험한 일이나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분
11. 장사가 잘 안 되시는 분
12. 관재구설과 액운이나 상재로 시달리는 분
13. 수험생 합격 기원을 위하여 미리 준비 하십시요.

※ 종지 않은 사주팔자라 할지라도 노력하면 좋은 운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혹 명당육氣방은
좋은 명당터가 되도록 합니다.
절터, 집터, 공장터, 상가(점포)터에
좋은 명당이 되도록 하십시오.
地氣와 生氣가 응집되지 않는 터는 악터나 사기터 이므로 액운과 우환이 따르고 되는 일이 없습니다.
또한 조상의 묘지터를 좋은 명당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터란 氣가 없으면 명(命)을 다한 것이므로 잘 되기를 바래서는 안됩니다.

※ 명당육氣방은 가상이 아니고 현실입니다.

사찰 암자 철학관 풍수학 氣학문을 하시는 곳에 가시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주] 명당육기(氣)방 051) 865-9933
864-7878
미국 일본 호주 등등에서 사용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홈페이지를 보십시요.
홈페이지 : www.6kibang.co.kr

가격 : 1호 10만원, 골드 1호 30만원, 골드 2호 40만원
흑육氣방, 집터, 묘지, 조상합동묘, 3천카우스 25만원 홍혈장전용 30만원

목어 불교문화사업을 키우자



월드컵 분위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어찌 보면 단순한 축구경기일 뿐이라고 폄하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미 월드컵은 온 세계인이 즐기는 놀이문화가 되었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놀 줄도 아는 존재이다. 우리 가요에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란 가사도 있지만 정말 올바른 삶을 가꾸기 위해서는 일과 더불어 삶을 즐기는 일도 필요하다. 즉 잘 놀아야 한다. 레크리에이션, 다시 말해 여가를 이용하여 몸과 마음의 피로를 풀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스포츠나 오락이 필요하다.

현대인에게 가장 무서운 존재는 스트레스라 한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사람들이 저마다 애쓴다. 스포츠를 즐기고 답배도 핀다. 그런데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환각제 같은 마약까지도 복용하다보니 중독이 되어 오히려 심신이 멍들고 만다. 성(性)은 아름다운 것이지만 지나치게 색(色)을 탐하면 역시 자신은 물론이고 이웃에게도 해를 끼친다.

정말 살맛나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더불어 놀며 즐기는 일이 필요하다. 속된 표현이지만 '잘 놀 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잘 노는 일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문화와 예술이 잘 노는 일에 으뜸되는 존재이다. 문화와 예술은 그침없이 솟아나는 샘물과 같아서 퍼낼수록 맑은 물이 샘솟는다. 그렇지만 참다운 문화와 예술을 즐기기 위해서는 노력이 요구된다.

요즈음 우리 사회에서도 레저문화가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사찰을 찾는다. 그런데 우리 불교는 수많은 문화유산을 자랑하지만 막상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불국사등 사찰을 순례하고 나면 왠지 허전하다. 왜 그럴까. 어딜가도 똑같은 관광상품이 더 그러한 마음이 일어나게 한다. 요즈음에는 국산이 아니라 동남아시아에서 만든 물건들이 판을 치고 있다.

볼거리 먹을거리 놀거리를 제공하면서도 돈도 벌 수 있는 일, 그것이 문화산업이다. 불교문화의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해 불교문화산업을 진흥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자.

이기선(조계종 성보문화재위원)

불자의 생각

출가



붓다뉴스가 출가를 주제로 설문을 해 본 결과 수행자의 길을 가 보고 싶은 의욕이 출가를 생각하게 하는 주된 요인으로 드러났다.

"'스님되고싶다' 생각한적 있다" 93%

90명이 참가한 이번 설문에서 출가해 스님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고백한 응답자는 93%에 이르는 84명이었다. 출가를 생각해 봤다는 응답자의 85%가 '수행자의 길을 걷고 싶어서'라는 이유를 들었다. 산사에 살고 싶어서 출가를 생각해 봤다는 응답자는 6명(7%)이었고 세상살이가 고달파서 라는 이유는 3명이, 실연 등 마음의 고통 때문이라는 이유에는 단 한명이 답했다. 임연태 기자

불자 세상보기

自性의 힘으로 사이버테러 막자



김영조
영진전문대 교수
사회복지과

컴퓨터의 발명과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기술체계의 발전과 보급으로 지금 우리는 현실의 세계와 사이버공간이라는 가상의 세계를 동시에 살아가고 있다. 현실세계라는 하나의 카테고리에만 고착되어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온 우리에게 지식정보화사회라는 새로운 시대흐름은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만큼 인류사회에 큰 변화를 안겨주고 있다. 어쩌면 우리는 현실세계와 사이버공간의 세계라는 두 개의 세계를 넘나들면서 두 개의 삶을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우리의 활동 범위와 비중도 현실 세계에서 점차 가상의 세계 쪽으로 확대 · 강화되고 있다. 이제 가상의 세계인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생활양식에 대한 새로운 문화와 규범이 정립되고, 새로운 삶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범죄행위, 특히 사이버테러 행위는 이러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린 채 우리 사회에 커다란 불안과 위험을 안겨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사이버테러가 많이 일어나는 나라인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보안업체인 프리딕티브시스템은 3월 22일 지난해 4/4분기에 전세계에서 발생한 사이버 공격 중 30.9%가 한국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사이버테러는 컴퓨터 통신망상에 구축되는 가상공간인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폭력 행위로서,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부 기관이나 민간 기관의 정보 시스템에 침입하여 정보기능에 중대한 장애를 발생시키기도 하고, 근거 없는 유언비어를 만들어 공중(公衆)에 유포시킴으로써 사회전체를 혼란에 빠뜨리기도 하며, 심지어 개인의 신상에 관한 문제를 악의적으로 공개하거나 욕설이나 모욕적 언어를 사용하여 인격이나 인권에 치명적 피해를 입히기도 한다. 사이버테러는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자체를 말살하여 사람을 파탄케 하는 행위인 것이다.

사이버테러는 인터넷의 특성인 익명성과 신속성의 영향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의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무차별적 폭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제 사이버테러는 어느 한 국가내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점차 국제적인 문제로 확대되고 있고, 그 폭력성에 있어서도 더욱 지능화되고 과격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이버테러는 일반적인 범죄에 비하여 도덕적 · 윤리적 규범성과 범죄행위 자체에 대한 행위자의 죄의식이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누가, 언제, 어디서든 쉽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세계 각국은 사이버테러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국가차원에서 사이버테러 방지대책기구를 만들고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 제도적 장치만으로 사이버테러를 근절할 수는 없다. 우리 모두가 사이버테러로 인한 공동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 사이버테러 행위를 자제하고 예방하도록 노력하는 길이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다.

불교원리에 업감연기(業感緣起)라는 말이 있다. 이 세계의 모든 현상은 업인(業因)에 의해 생긴다는 뜻이다. 범죄가 범죄를 낳고, 사이버테러는 또 다른 테러를 유발한다. 다른 사람의 사이버 테러행위를 맹목적으로 따라하거나 이에 보복적 테러를 가하면 결국 그 피해는 우리 모두에게 돌아오는 것이다. 자성(自性)의 힘으로 스스로를 되돌아보면서 반성하여 사이버테러를 방지하는 한편, 지금 전개되고 있는 사이버공간에서의 문화가 올바른 방향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열린마당

조계종 정체성확립과 진로

1962년 4월11일 출범한 조계종이 통합종단 40주년을 맞아 8일 오후 2시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기념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종범스님의 기조발제와 함께 김광식, 유승무, 심익섭 교수가 각각 주제발표를 하며, 현고스님(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본각스님(중앙승가대 교수), 현각스님(종회의원)이 토론자로 나선다. 다음은 미리 배포된 기조발제 및 주제발표문을 요약한 것이다.

宗體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 필요

종범스님(중앙승가대 총장)



대한불교조계종이 가지산문에서 기원하며, 도의국사를 종조로 하고 고려 태고국사를 중흥조로 한다는 등의 종지종통 표기는 많은 과제를 남겨놓고 있다. 즉, 대한불교조계종이 신라 하대에 개산된 가지산문에서 기원한다면 그 이전의 신라 중대 및 삼국시대의 불교사를 조계종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도의국사에서 보우국사까지의 종통 계승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점이다. 그러나 통합종단은 종헌이 20여 차례 개정되는 등 안정을 이루지 못하고 종책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치지 못하는 등 아쉬움이 많다.

따라서 대한불교조계종은 우선 정체성에 대한 폭넓은 조명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종통(宗統)에 대한 관심보다 종체(宗體)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와 함께 동아시아 불교와 비교 연구하는 방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체성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원화된 사회에 적합한 수행 가풍이 모색돼야 하며, 사회참여를 통한 종단의 역량 강화도 종책차원에서 연구돼야 한다.

정화운동의 부정적 측면 성찰해야

김광식(대각사상연구원 연구부장)



1962년 4월에 정식 출범한 통합종단으로서의 대한불교조계종의 등장은 근현대 불교사상에서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우선 1955년 전국승려대회에서 가시화된 제반 변화 및 질서를 더욱 공고히 하고, 불교혁신운동 과정에서 나온 수행승 중심의 승단 재건정신이 구현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 일제 식민지 불교체제하에서 대두된 식민지불교의 극복 및 전통불교 수호 정신이 조계종단의 이념적 기반이 되었다.

그러나 통합종단 성립과 관련한 부정적 측면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통합종단 성립에 공권력이 개입되고, 수좌중심의 승단으로 재편된 문제, 또 8년간의 정화운동사에서 나타난 부정적 측면 및 부산물에 대한 성찰이 없었다는 점 등은 종단 진로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문제를 종합적, 거시적으로 바라보면서 동시에 각 문제에 대한 이해와 객관적, 균형적인 시각을 가질 때 대한불교조계종의 성립과 통합종단에 대한 인식이 바로 설 수 있다.

3대 종책사업 시대적요구 맞게 혁신

유승무(중앙승가대 교수)



통합종단이 등장한 이래 '역경 · 포교 · 교육'의 종단 3대 종책에 대한 성찰적 논의는 거의 없었다. 그러다보니 모범적이지 못한 과거의 사업방식이 관행적으로 이어지고, 종책 목표가 추상적으로 표현되는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

물론 고려대장경이 한글로 번역되고 포교역량이 확대됐으며, 승가교육체계가 정비되는 등의 성과도 적지않다.

그러나 포교분야에서는 종책사업이 포교환경 및 포교현실에 잘 부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외형적인 행사나 업적 위주로 기획됐고, 교육분야에서는 기본교육기관들 사이의 관계가 혼란스럽게 방치되고 있으며, 현대화된 교육 프로그램이 크게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종단의 3대 종책사업은 내적 혁신과 시대적 요구에 조응하는 방식으로 혁신될 필요가 있다. 특히 역경 및 포교 종책은 정보화시대에 대비해야 하고, 교육 종책은 다가올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해야 한다.

종무행정 전문 · 독립성 이뤄지길

심익섭(동국대 교수)



통합종단 출범 이후 종헌은 98년까지 22차례에 걸쳐 개정되는 등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권력의 분권화는 계속해 이뤄졌다. 해방 후 50년대 말까지 지속된 도교구제(13교구가 통합종단에서는 25교구본사체제로 정립됐고, 이에 따라 전통불교의 권위와 운영합리화를 위한 분권적 구조가 갖춰지게 됐으며, 종단 운영도 상당한 수준으로 전문화됐다.

특히 1994년 개혁종단 출범은 그동안 누적돼 온 미비점을 보완하고 제도정립과 운영의 활성화를 꾀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앞으로 최대 과제는 종무행정의 운영활성화와 전문화다. 종무행정에 대한 독립성을 인정함으로써, '전문화된 종무행정'과 '직업인으로서의 종무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승가 종무원의 역할에 대한 방법이 모색돼야 한다. 또 종무행정이나 종책에 종도들이 참여함으로써 조직운영이 정당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서해의 진주 변산반도 관음기도도량

내소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 봉안식



◇ 내소사 전경 (흰선 부분이 신축한 관음전 모습)

'여기에 들어오시는 분은 모든 일이 소생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원력으로 633년 혜구선사께서 창건한 내소사는 관음조(관세음보살님의 화신)의 전설로 유명합니다.

법당을 완공하자 화공이 단청을 하기위해 법당으로 들어가면서 "내가 단청을 다끝내고 나올때까지 이 안을 들여다 보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한달이 다 되도록 화공이 나오지 않자 호기심 많은 선우스님이 살짝 문을 열고 법당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화공은 없고, 입에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고 있던 오색영롱한 새(관음조) 한 마리가 들어오는 스님을 보더니만 단청 한 곳을 못한채로 그대로 하늘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날아간 그 관음조는 능가산 중턱에 앉았는데, 그때 부터쯤 노스님이 암자를 짓고 살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그 스님을 관음조의 화신이라고 불렀으며, 이후에도 암자에는 스님들이 살았으나 어느 때부터 암자는 폐쇄되고 터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그 암자터를 복원하여 관음전을 새로 지어 천수천안관세음보살님을 봉안하고 봉불식을 갖게 되니 서해 진주 변산반도 능가산에 그 가피가 가득하고 사부대중 복덕과 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능가산 진달래 벚꽃은 관음의 미소요
종달새 소쩍이 노래는 남순동자의 법문이라
멀리 바다의 긴 아지랑이 온 천지에 너울너울 춤을 추니
겹겹한 산봉우리 마다마다에 봄소식 미소가 가득하다네

회 주 : 우암 혜산
선 원 장 : 한벽 철산
주 지 : 진원 · 사부대중 합장

봉불식 안내
◇ 일 시 : 2002년 4월 13일 오전 11시(불기 2546년 3월 초하루) 토요일
◇ 장 소 : 전북 부안군 진서면 석포리 268 내소사 관음전
◇ 연락처 : 063-583-3030(주지실) 583-7284 (총무실)
583-7281(종무소)

법회안내
◇ 특별정진법회 (혜안 대종사 추모재, 내소사 다례재, 전등회 창선 정진법회) : 음력 3월1일 - 3월7일
◇ 철야용맹 정진 및 천도재 안내 : 매월 2째주 토요일밤 9시부터

대한불교 조계종 제 24교구 능가산 내 소 사

"마하보디寺院 불교도에 돌려달라"

인도 스님들 촉구 "불교성지 힌두교 관리 부당"

시위대 힌두교도 사찰 접근 저지

순례중 태국·스리랑카 스님들 동참

얼마전부터 불교도와 힌두교도간의 분쟁이 재연되었던(본지 3월 6일자 참조) 인도 비하르주 부다가야의 마하보디 사원에서 사원 운영권 문제가 본격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인도의 스님 250여 명은 3월 23일 부처님께서 대각을 이룬 성지인 부다가야 마하보디 사원에서 힌두교가 이 사원의 운영권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23일부터 25일까지 열린 '전인도 승려협회'의 회의 기간 중에 일어난 일이었다.

수레이 사사이(Surai Sasai) 스님이 이끄는 시위대는 사찰 주변을 에워싸고 정부가 이 사찰의 운영권을 불교도에게 전적으로 위임하고 경내에 신발을 신고 들어오는 행위를 금지해주길 요구하면서 힌두교도의 경내 진입을 막고 있다. 이 시위에는 현재 부다가야에 머물고 있거나 순례차 방문한 미얀마, 태국, 스리랑카 등 외국 승려들도 적극 동참했다.

불교사찰해방행동(BSLA) 위원회 사무총장인 아난드(Anand) 스님은 "불교도들은 차별받고 있다. 힌두교도, 이슬람교도 그리고 기독교도가 각각 자신의 사원을 관리하는데 왜 불교도만 사찰을 운영할 수 없는가?"라고 반문하고, "지난 1949년 제정된 현행 마하보디 사원 운영법을 개정해 사원이 온전히 불교도만의 손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세계 힌두교도 연맹(VHP)을 비롯한 힌두 원리주의자들은 '불교는 힌두교에서 갈라져 나온 힌두교의 분파이며, 붓다는 비슈누 신의 화신일 뿐'이라는 힌두교의 교리를 내세워 불교사원의 운영권이 힌두교도의 손에 있는 것이 문제될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현행 사원운영법에 따르면 마하보디 사원은 힌두교도 5명과 불교도 4명으로 이뤄진 운영위원회가 관리하며 위원장은 반드시 힌두교도가 맡게 되어 있다. 운영위원들은 3년 임기로 비하르 주(州)정부에 의하여 임명되는데, 특히 가야군(郡)의 힌두교 사제가 위원회의 유일한 평생임기의 상임위원으로 되어 있다.

마하보디 사원을 힌두교도의 손으로부터 해방시키자는 운동은 이미 지난 92년부터 시작되었고, 작년 11월 말 전인도 승려협회의 회장 수레이 사사이 스님은 사원과 관련하여 3개항의 요구사항을 제시한 바 있었다. 그 내용은 첫째, 운영 위원회를 즉각 해산할 것, 둘째, 1949년에 제정된 마하보디 사원법(이하 사원법)을 개정하여 운영 위원을 모두 불교도로 임명할 것, 마지막으로 사원 건물의 보수였다.

인도= 이지은 통신원



◇일본 태생의 수레이 사사이 스님 등 250명의 스님들이 3월 23일 마하보디 사원안에서 '힌두교도들의 불교성지 관리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美 LA 관음사 연화어린이학교 전경.

LA에 새싹포교당 섯다

관음사 부설 연화어린이학교 개교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에 불교와 한국전통문화를 교육하는 최초의 '새싹 포교도량'이 건립됐다. 지난 3월 4일 개교한 관음사(주지 도안) 부설 연화어린이학교(Lotus Preschool, 원장 이명숙)는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2세와 현지 어린이를 대상으로, 불심을 함양하는 다양한 예능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비영리교육재단. 지난해 캘리포니아 주정부 및 L.A.시로부터 정식인가를 받았다.

2백여평 규모의 2층건물로 4백여평의 야외시설을 갖춘 연화어린이



◇도안 스님

학교는 건물 매입과 유아 교육시설을 완벽하게 갖추는데 총 17만달러(한화 약 2억2천여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정원은 총 38명이고 이에 따른 지도교사 5명도 어린이 11명에 1인 교사 체제인 미국의 유아교육법에 따라 선발됐다.

4월초 입학식을 갖는 연화학교는 부산 내원정사유치원과 자매결연을 맺고 민족문화교육과 불교교육을 접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모국에서 지원받을 예정이다.

지난 76년 미국 세라논에 포교당을 건립, 최초의 한글학교를 개설한 바 있는 연화어린이학교 설립자인 도안스님은 최근 귀국후 본사를 내방한 자리에서 "20여년간 운영해온 관음사 일요학교의 노하우를 살려 한인 2세들을 위한 포교에 주력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문의= 1-213 384-8990

2002 평화도보장정단 日 도착

6월 19일까지 10개 도시 순회

월드컵 붐 조성을 위해 한국과 일본의 개최도시를 걸어서 순례하는 '2002 평화도보 대장정단'(단장 원공스님) 일행 12명이 국내 순회를 마치고 25일 부산국제여객터미널에서 카페리 부관페리를 타고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 장정에 들어갔다.

중앙일보가 주최하는 이 행사를 이끌고 있는 원공스님(천축사 주석) 등은 26일 시모노세키에 도착, 6월 19일까지 일본 내 월드컵 개최 10개 도시를 돌며 쓰레기를 줍는 등 환경캠페인도 벌인다. 이들은 6월 20일 부산항을 통해 귀국, 부산아시아드 경기장~울산 문수경기장~대구종합경기장을 걷는 것을 끝으로 4천㎞에 이르는 도보 대장정을 마친다.

대장정단은 원공스님 외에 지은스님(보타사), 일안스님(해인사), 이용우(영상작가), 김광수(자영업), 권영진(자영업), 이창훈(회사원), 윤보현(여, 회사원), 이정우(학생), 이주연(여, 학생), 강찬모(화가), 전경숙(여, 회사원) 등이다.

해외불교 담당=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해외 불서

수행 봉사 회향 참여불교운동 활발

美 저명불교잡지 관련 佛書 5권 소개

관용·자비심·평화로 사회참여 모색

"인과론에 입각 個我는 실체 없는 것"

현재 한국불교에서는 일상의 삶과 수행이 별개의 것처럼 취급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해외의 많은 불교단체에서는 수행-봉사-회향의 '참여불교운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여기에는 종교의 구별도, 출재가의 구분도 있을 수 없으며 오직 삶과 수행, 사회적 회향을 통일시키려는 부단한 노력이 진행중이다. 미국의 저명한 불교잡지인 〈트라이씨클(Tricycle)〉이 추천한 '참여불교(Engaged Buddhism)' 관련 불서 다섯 권을 통해 우리 참여불교운동의 방향을 가늠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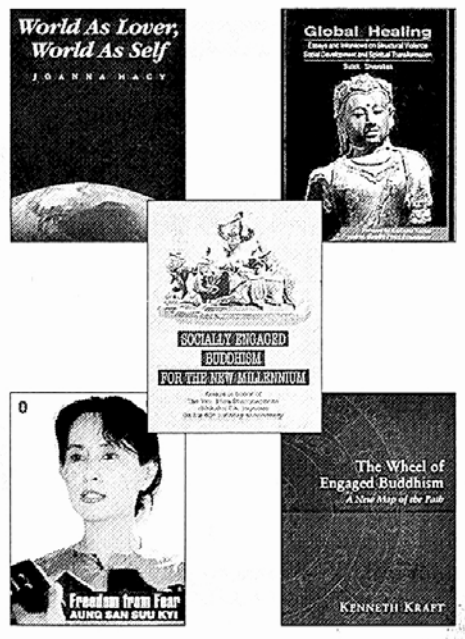
〈새 천년의 참여불교(Socially Engaged Buddhism for the New Millennium)〉 〈참여불교의 법륜(The Wheel of Engaged Buddhism)〉 〈전체적인 치유(Global Healing)〉 등 이 세권의 책은 베트남 선사인 틱낙한 스님이 제창한 '참여불교운동'의 이념과 실제를 담고 있는 책들이다.

이 책들에 나타난 참여불교의 핵심은 부처님의 거룩한 4성제와 연관된 고통을 깨닫는 것임과 동시에 다국적 기업들과 환경파괴, 언론매체의 횡포로부터 희생되거나 영웅시된 사람들과 사회 등 중생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일이다. 참여불교 운동가들은 '정신적이고 사회적인 변혁은 손에 손을 맞잡고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세 권의 책은 어떻게 불교의 근본교리이자 덕성인 관용, 자비심, 평화의 도움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을지를 에세이 형식으로 답고 있다.

〈새 천년의 참여불교〉는 태국의 참여불교운동을 이끄는 슐락 쉬바락사(Sulak Sivaraksa) 박사에 의해 편집된 책으로 프라 담마피카타(Phra Dhammapitaka) 스님의 60회 생일을 기념한 수상집이며, 태국 Sathirakoses-Nagapradipa 재단이 발간했다. 〈전체적인 치유〉 역시 슐락 쉬바락사 박사의 저서로 구조적인 폭력, 사회적인 발전, 그리고 정신적인 변화와 관련한 에세이와 인터뷰로 구성되어 있다. 태국 Sathirakoses-Nagapracipa 재단 발간. 〈참여불교의 법륜〉은 참여불교운동의 이념과 현황, 비전 등에 대해 케네스 크래프트가 쓰고, Weatherhill사가 펴냈다.

이밖에 〈연인, 자신과도 같은 세계(World As Lover, World As Self)〉는 저자 조안나 메이시가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헌신해 온 삶에서 우러나온 통찰력을 에세이로 쏟아낸 책이다. 그녀는 수년간 자연주의 이론과 불교의 인과론을 배움으로써 개아(個我)는 실체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이 책은 자아를 둘러싼 세상을 향한 최초의 긍정적인 변화와 고통의 종식을 추구하는 노력 가운데서 겪는 세계적인 절망도 암시하고 있다. Parallax 출판사.

〈공포와 언론으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Fear and Other Writings)〉은 미얀마 민주화의 상징인 아웅산 수지(Aung San Suu Kyi) 여사의 글과 연설문을 모은 책이다. 1962년부터 미얀마 독재정부의 무능과 잔인함에 대해 비난해 온 그녀는 1991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영국에서 거주해 온 남편이 죽기 직전에 편집한 이 책의 글과 연설들은 인간적, 정치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모두 불교적인 사상을 기조로 하고 있다. 펭귄 출판사.



상표등록

미수타

반도체 안전 전구
반도체 전자 인등

◈본 미수타 반도체 안전 전구와 미수타 반도체 전자 인등은 상표 실용, 의장, 유사방지의 각각 법에 의하여 지적 재산권에 보호을 받는 제품입니다. (상표외에 총 13건)

서울, 경기 서부대리점
성남 031-756-6307
서울, 경기 동부대리점
하남 031-791-8871
부산, 경남 동부대리점
밀양 055-355-6707
경남, 서부대리점
마산 055-224-5286
대구, 경북 남부대리점
053-591-4861
강원, 충북대리점
원주 033-764-9396

설치 2~3주전에 미리 각 지역 대리점에
연락주시면 빠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 써비스
기술 지원 팀
011·9996·8872

주식회사 TG 반도체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74-20 전화 031-792-8867~8

각종 佛事 상담
一心佛院
大佛, 小佛
佛塔, 탱화,
단청, 단청
불교용품일체
☎ 02)725-2030, 2040 (조계사옆 포교원 입구)

여시아문
인터넷 도서주문
전화 : 02)737-0695
팩스 : 02)737-0696
www.yosiamun.com

선종이 중심이 되는 한국 불교에 있어 고승 진영은 제자들이나 재가 신도들이 스승의 존재를 떠올리며 수행의 경책으로 삼고 위안을 얻는 대상으로 기림을 받았다. 또 진영을 조성해 역대 스승의 법통을 세움으로써 가풍을 형성하고 정신적 결속을 다지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때문에 여러 사찰의 조사전에는 종파의 시조나 사찰의 창건주를 비롯한 역대 고승들의 진영이 모셔져 있다.

최근 태고총림 순천 선암사(주지 지허)에서는 달마선사와 육조혜능, 임제의현, 양기방회, 석옥청공 그리고 태고보우 스님의 영정을 봉안하는 불사가 진행되고 있다. 태고 보우 스님의 임제선풍을 잇고 있는 선암사가 여섯 고승의 영정을 모심으로써 임제선의 맥을 잇고 한국불교의 선풍(禪風)을 널리 펴기 위해 추진하는 일이다.



◇고승영정은 외형뿐 아니라 가르침까지 담고 있어야 한다. 임제 스님 영정.



◇지난해 12월 선암사 조사당에 모셔진 태고종 종조(宗祖) 태고 보우 스님 영정.



◇선종 6조(祖) 혜능 스님의 영정. 현재 남아 있는 영정에서 스님은 항상 두건을 두른 모습으로 표현됐다.

임제선 법맥…여섯 고승영정 선암사 봉안

보우스님 이어 3일 혜능·임제 스님
연내 달마·양기·청공 스님 봉안

지허스님·불화가 김범수씨 앞장
황토색 닥종이·석채물감 사용



◇일본에서 석채를 배운 불화가 김범수 씨가 석채를 이용해 영정을 그리고 있다.



◇임제선맥의 여섯 스님 영정을 모시는 선암사 조사당.



◇가사를 매는 장식 등 고려시대 법복의 세밀한 부분을 엿볼 수 있다. 태고 보우 스님 영정 부분.

선암사는 작년 12월 종조(宗祖)의 사상과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 태고 보우 스님의 영정을 조사당에 모신데 이어 3일에는 혜능, 임제 스님의 영정을 봉안하고 올해 안으로 달마, 양기, 청공 스님까지 함께 모실 계획이다.

영정을 봉안하는 이번 불사에는 지허 스님과 불화가 김범수 씨가 앞장서고 있다. 김 씨가 선암사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지난해 태고스님 영정 작업을 맡으면서부터다. 이후 지허 스님이 여섯 분의 조사 진영을 모시려는 원을 세우면서 가장 먼저 제안한 사람이 김 씨다.

현재 선암사에는 도선국사(827~898)와 대각국사(1055~1101)등 20여 영정이 남아 있다. 하지만 법당에서 피우는 향 그을음과 오랜 세월로 인한 종이의 산화로 온전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거의 없다. 그래서 김 씨는 닥종이에 석채(石彩)를 사용해 영정을 조성하고 있다. 석채란 천연 재료에서 색을 추출한 후 이를 아교에 개어 물감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청색 계통에는 감청석이 원료가 되고 흰색은 대합과 같은 조개껍질이 주 원료가 된다. 석채를 사용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우선 닥종이에 황토를 10여 차례 칠해 색이 우러나도록 한다. 이는 종이가 직접 산소와 접촉해 색이 변하는 것을 막아준다. 석채 물감 역시 20여 차례 덧바르는 과정을 거쳐야 색이 곱게 우러나고 물감이 두텁게 올라도 떨어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영정을 그리기 전에 해야 할 일은 기본 자료를 찾는 일. 지허 스님은 일본과 중국에 전하는 조사들의 영정을 찾아내고 스님들의 계송과 어록, 가르침 등의 자료를 수집했다.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어떻게 표현해낼지를 고민하고 또 고민한다.

김 씨 역시 조사들의 영정을 찾아내 비교하기도 하고, 고려시대 복식 연구와 고려 불화에 나타나는 문양 재현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런 작업을 거쳐 한 작품을 완성하기까지는 보통 3~4개월의 시간이 걸린다.

한 장의 그림에 모습은 물론 가르침과 생애까지도 담아야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더디지만 정확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지허 스님과 김 씨의 생각이다. 많은 자료들을 토대로 기본 형상과 얼굴을 10여 가지 힝태로 그리면, 선암사 스님들을 비롯한 10여명의 강백들이 모여 여러 스케치 중 가장 스님의 가르침과 모습을 잘 표현했다고 공통으로 느끼는 작품을 선택해야 비로소 채색작업에 들어간다.

이렇게 힘든 작업이지만 김 씨는 "조사당에 모셔질 여섯 분 영정을 보고 그분들의 가르침을 느끼고 또 발심하게 된다면 더 큰 보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라고 앞으로의 작업에 대한 의욕을 내비쳤다.



◇고려 불화에 나타나는 여러 문양을 재현했다. 육조 혜능 스님 영정 가사의 당초무늬.

글=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영정불사 이끄는 지 허 스님



"현재 우리나라 불교는 법맥에 대한 인식이 흐려진 상태입니다. 혈맥이 끊어지면 피가 돌 수 없는 것과 같이 법맥을 잃은 불교는 그 방향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영정 봉안을 계획하며 임제선의 맥을 다시 한번 짚어보는 계기가 되었다는 지허 스님은 "진영을 통하여 생활 속에서 불법을 실천한 스님들의 가르침을 가슴으로 느끼고 배우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태고종맥 알리는 기회로"

그러나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모셔지지 않았던 스님들의 영정을 그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래서 스님들의 계송과 어록을 하루에도 몇 번씩 읽고, 각국에 흩어져 있는 영정 자료를 수집했다는 스님은 "이번 불사가 원만히 회향된다면 임제선의 법맥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태고종의 종맥을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봉안 취지를 밝혔다.

영정조성 불화가 김범수씨



"모양 그리기는 쉽지만 마음 그리기는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영정을 그리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그분들의 가르침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불화가 김범수(50) 씨는 영정을 그리는 일이 단순한 모사(模寫)가 아니라 선사들의 가르침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번 선암사 영정봉안 불사를 맡은 김 씨는 원광대학교에서 동양화를 배우고 일본 경도예술대학에서 불교미술을 전공했다. 이때 석채를 본격적으로 배웠다. 25년 동안 석채를 이용해 그림을 그려온 공력을 모아 이번 영정들도 모두 석채로 그렸다.

"고승 가르침 심혈다해 표현"

백양사의 각진국사 영정과 공림사의 탄성스님 영정을 그리기도 한 김 씨는 하나씩 선을 그을 때 마다 나무아미타불을 염송한다고 한다. 선과 색 하나하나에 연화장 세계가 펼쳐지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으려는 것이다. "작품마다 선사들의 가르침을 담으려는 저의 마음이 그대로 발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는 김범수씨는 현재 원광대 한국문화학과 객원교수로 재직하며 영정 조성작업을 하고 있다.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가지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일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가지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등 각종 장기의 염증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가지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가지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인병의 신효한 三淨丹(삼정단)

"특히"
- 가슴 위가 답답하고 머리가 자주 어지러운 분, 빈혈, 저혈압, 뇌기능강화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 분
- 신허로오는 요통, 신장기능 저하증, 소변이 잦으면서 시원하지 않는 분
- 각종 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 분, 불임증, 산후병, 갱년기장애
- 뼈가 약하며 각종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 디스크
- 각종 신경성질환, 간기능저하증, 간염, 간경화

※ 편두통, 기관지천식, 중풍, 당뇨, 암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개별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



혜경스님의

경전읽기

법화경 ㉑ 제10 법사품

홍경의 삼궤

이 품에서는 "바이샤라쟈(藥王)이여,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여래가 멸도한 후에 사부대중을 위하여 이 법화경을 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고 물으며, 여래 입멸 후의 세상에서 〈법화경〉을 설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으로 의(衣), 좌(座), 실(室)의 '홍경의 3궤(三軌)' 즉 실천해야 할 세 가지의 바른 길(法度)을 설하고 있다.

"여래의 방(室)에 들어가, 여래의 옷(衣)을 입고, 여래의 자리(座)에 앉아 사부대중을 위해 널리 이 경을 설해야 한다. 여래의 방이란 일체 중생에게 꼭 들어맞는 대자비심(大慈悲心), 여래의 옷이란 유화인욕(柔和忍辱)의 마음, 여래의 자리란 일체의 현상(法)이 공(空)임을 말한다"라고 한다. 즉 여래의 방이란 중생에 대한 넓고 큰 자비의 마음이며, 여래의 옷이란 부드럽고 화평한 마음과 인내심, 그리고 여래의 자리란 일체의 현상이 실체가 없는 공성(空性)임을 아는 것이니, 이 여래의 방에 들어가, 여래의 옷을 입고, 여래의 자리에 앉아 법을 설하는 것을 '의좌실(衣座室)의 삼궤(三軌)' 혹은 '홍경(弘經)의 삼궤'라 하여 말법시대에 〈법화경〉을 설하는 법도(法度), 또는 바른 길이라 일컫고 있다. 이것은 법사 즉 법을 보시(布施)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마음가짐으로서, 모든 사람을 자비의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비란, 일반적으로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것, 또는 사랑하는 마음 혹은 동정심 등의 감정적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물론 그렇다. 그러나 감정만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직 반쪽만의 이해밖에 되지 않는다. 자비란 함께 즐거워하려는 마음이다. 즉 자비란 흔히 말하는 사랑이라든가 애타심(愛他心)이라든가 하는 말이 갖는 뜻보다도 더욱 깊은 불교 특유의 사상에서 나온 말이다. '자(慈)'란 범어 마이트레야(Maitreya)의 번역으로서 마이트레야는 우(友) 즉 벗이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인데 깊은 뜻은 '특정한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 대해 우정을 갖는 것'이다. 그리하여 중국인은 이것을 보편적인 인애(仁愛)라고 부르는 것이다.

'비(悲)'란 범어 카루냐(Karunya)의 번역으로 원래 '신음(呻吟)'이라는 의미인데 인생살이의 갖가지 괴로움에 신음소리를 내는 것을 말한다. 그 신음소리를 듣고 자기도 동감하고 동정하여 "음-"하고 신음소리를 내는 것이 '비'이다. 즉 남의 괴로움을 내 괴로움처럼 느껴 마음 속에서부터 이해하고 걱정해 주는 것이 '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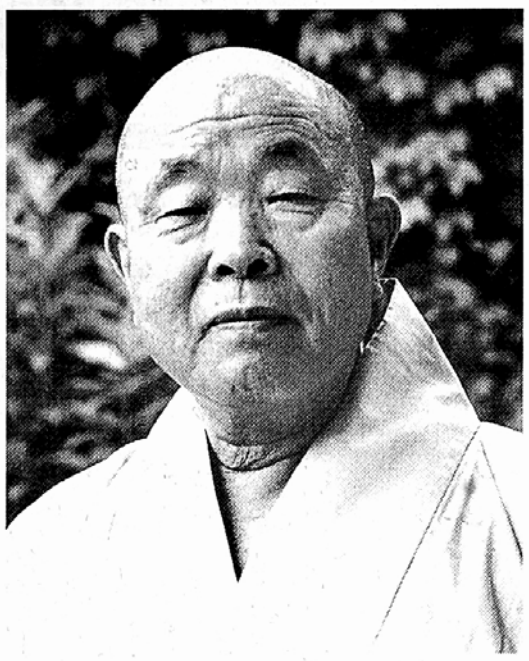
결론적으로 평등성의 원리 위에서 너와 내가 하나라는 것에 눈을 떠야만 비로소 참 자비가 생기는 것이다. 왜냐하면 내 속에 네가 있고 네 속에 내가 있다는 동체(同體)사상을 온몸으로 체득하여 부처님의 지혜(般若)를 완성(波羅蜜多)하고 '남 즉 나', '나 즉 남'이라는 일체감(一體感) 속에서, 즉 나와 남이라는 상대적인 생각마저 사라진 자리에서 자기가 자기 아닌 자기에게 베푸는 것이 자비인 것이다.

다음으로 법을 설하는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여래의 자리에 앉아서'라고 하는 것, 즉 일체의 존재가 공성이라는 깨달음의 경지에서 법을 설할 것을 말한다. 일체법공(一切法空) 즉 모든 존재에는 실체라는 것이 없다고 꿰뚫어 보았을 때, 보살 수행자인 보시자의 눈에는 이 세계가 너와 나, 사랑과 미움이라는 차별, 상대가 없는 절대 평등의 세계로 비치어 그 어떤 것에도 사로잡히지 않는 자재무애의 경지가 나타난다. 이러한 경지에서 상대방이 그 무엇에도 취착(取着)함이 없어 노사(老死)·수(愁)·비(悲)·고(苦)·우(憂)·뇌(惱)에서 해방(解脫)되게 하는 것이 진정한 설법자의 태도이다.

〈법화경〉에서는 "여래의 자리란 일체 법공(法空)이며 이 가운데 안주(安住)하여 해태(懈怠)하지 않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여러 보살 및 사부대중을 위해 널리 이 〈법화경〉을 설하라"라고 말한다.

▩무설정사 조실

법사의 3실천덕목 衣·座·室
여래 마음으로 법보시 교시





◇해인사는 조계종 역대 종정 9명중 5명을 배출했다. 사진은 1987년 해인사 법회 후 혜암(10대), 성철(6·7대), 법전(11대), 일타스님(사진 오른쪽부터)이 자리를 함께한 장면. 사진제공·백련문도회

"승가 위의는 수행력에서…"

특집 조계종 제11대 종정 법전스님

3월 26일 종정추대회의에서 조계종 11대 종정에 추대된 도림 법전스님은 한 번 자리에 앉으면 며칠간 미동도 않는 수행력으로 수좌들의 사표가 되고 있다. '승가의 위의는 수행에서 나온다'며 오직 한길을 걸어 온 스님은 1974년 '부처님 법대로 살자'는 봉암사 결사에 참여하여 조계종 종풍을 확립하는 등 한국불교 발전을 위해 공헌해 왔다. 그동안 설하신 법문을 간추려 싣는다.

출가의 마음

△흔히 출가를 세 가지로 나눕니다. 일반적으로 신출가(身出家) 심출가(心出家) 신심출가(身心出家)를 말합니다. 몸이 출가한 것, 마음이 출가한 것, 몸과 마음이 같이 출가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겉모습은 출가를 했는데 마음 씀씀이는 여전히 중생심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했거나, 행동은 유위(有爲)에 걸려 있으면서 입으로만 공(空)하다고 한다면 이 모두 제대로 갖추어진 출가가 아닙니다. 몸도 마음도 모두 출가를 해야 비로소 제대로 된 수행자라 할 것입니다.

△세속은 윤회의 길이요, 출가는 해탈의 길이니 해탈을 위하여 세속은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합니다. 부모의 깊은 은혜는 출가 수도로써 보답해야 합니다. 만약 부모의 은혜에 이끌리게 되면 이는 부모를 지옥으로 인도하는 것이 됩니다. 이 생사해탈의 공부에는 인정이 원수입니다. 인정이 두터우면 그 인정 때문에 공부를 못하게 됩니다. 이왕 출가했으니 모든 인정을 끊고 참으로 진출가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수행자의 자세

△수행이란 원숭이가 끊임없이 달을 건지려고 하듯 자꾸자꾸 끊임없이 애쓰는 것입니다. 달을 〈증도가(證道歌)〉에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한 달이 모든 물에 두루 나타나고 모든 물의 달을 한 달이 포섭하도다." 하늘에 있는 달은 하나뿐인데, 이것이 천강만수(千江萬水)에 비치어서 달이 천개 만개가 되고, 그 천강만수에 있는 달은 모두 하늘에 있는 달 하나가 거두어 잡는다는 말입니다. 부처님은 많은 법문을 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달을 보라고 가리키는 손가락인 것이지 달 그 자체는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자성(自性)을 깨쳐야지 말에만 집착해서는 자성을 깨치지 못합니다. 이렇게 손가락을 달로 집착하여 잘못 공부하는 것을 늘 경계해야 합니다.

> "성실하고 부지런하며 이웃 생각하는 것이 참된 조사선의 정신"

몸·마음 함께 출가해야 참수행자
생사 해탈 공부엔 人情이 원수

△초상화를 아무리 잘 그리는 화가라고 할지라도 진흙을 아무리 잘 다루는 도공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낼 수는 없습니다. 초상화는 초상화라는 그림에 요체(要諦)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림 이전(以前)의 모습을 보는데 그 요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림 이전의 요체를 볼 때만이 그 그림은 법이 되어 우리들의 눈을 열어 주게 됩니다. 이럴 때 그림은 그림이 아니라 의심이 됩니다. 그럴 때만이 참으로 제대로 그림을 볼 줄 아는 납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승가는 수행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며, 모든 위의는 수행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승려의 가장 절친한 친구는 천장과 벽, 방바닥이니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할 것입니다. 움직이면서도 결제를 해야합니다. 진정한 해제는 공부를 완전히 마쳤을 때라야 비로소 해제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해제가 곧 결제라는 마음으로 일주문을 나서야 할 것입니다.

계가 바탕이 돼야

애초에 계율을 지키지 않고 부처님 심종(心宗)을 전수했다는 소리를 이 산승은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계(戒)로 인하여 정(定)이 생기고 정으로 인하여 혜(慧)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계는 기초이고 도는 집이라고 하는데 이 두가지가 없다면 한몸을 어디에 의탁하겠습니까? 근본없이 지엽(枝葉)만 존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도체(道體)를 잃으면 계의 힘이 소멸하고, 계의 힘이 소멸하면 예법도 잃게 됩니다. 계가 지켜지지 않으면 천하의 인심을 어떻게 도로 돌아가게 할수 있겠습니까. 정진도 계가 바탕이 돼야 제대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선은 이렇게

△참구하기는 쉽지만 깨닫기는 어렵습니다. 요즈음에는 묻기만 하면 손가락을 세우고 주먹을 불끈 드는데, 이는 망상분별일 뿐입니다. 모름지기 뼛속에 사무치는 투철한 견해가 있어야만 합니다.

저 한 무리의 도적 중에 진짜 도둑도 있고 좀도둑도 있습니다. 우리는 한 철 공부한 힘으로 어느 놈이 진짜 도둑이고, 어느 놈이 좀도둑인지를 가려내야 할 정도는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한철 밥만 축내고 좌복만 닳게 한 허물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한 방에 대뜸 가야할 곳을 알면 천하 선지식들의 급소를 일시에 뚫어 버리더라도 납자들을 어찌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물이 흐르면 강을 이루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조주 스님의 발밑에 있는 꼴이 될 것입니다. 불법의 핵심은 번잡스러운 언어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법귀일(萬法歸一)' 공안은 많은 선객들의 의심덩어리였습니다. 도대체 만법은 한 곳으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눈썹을 곧추세우고 활활 타는 불덩이처럼 화두와 함께 살아도 같이 살며 죽어도 같이 죽으며 갈 때도 같이 가고 머물 때도 같이 머물다가 홀연히 의심이 생기거든 겁내지 마십시오. 큰 싸움에 임한 듯 다른 것 돌아볼 틈 없이 올바른 경계이건 거슬리는 경계이건 만나거든 잘 조화시키십시오.

△화두가 타파됐을 때 마치 합정에 빠진 사자가 뛰어 오르는 것 같습니다. 천하가 내손에 든 것 같고, 두려움이 없어져 버립니다.

경계해야 할 것

△경전의 말씀은 집착을 가장 경계합니다. 부처님 제자들은 부처님을 최고로 받들고 귀의하지만 때로는 부처님을 꾸짖기도 합니다. 이것은 모두가 자기 자신에 철저하여 남에게 의지하지 않으며, 자기 스스로 깨치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남이 깨우쳐 주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버리고 남의 말을 좇다가 보면 자기 자신마저도 잃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화선(看話禪)을 완성한 대혜종고 선사는 야호선(野狐禪)을 물리치면

특허
BBS불교방송(길을 찾아서) 출현 특허에 의한 승복의 우수성을 설명
승복·법복·누비·바랑 판매 안내



행복을 기원하는 저희 기원섬유에서는 "수레바퀴"라는 상표로 승복 및 법복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춘추·하절기(모직, 순면, 특수직)를 맞아 승복 법복을 연구 검토하여 다양하게 준비하였습니다.
질좋고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판매 하오니 저희 기원섬유를 계속 아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스님께 가사불사 보시하면 십선(十善)을 지어 5가지 큰 공덕으로 삼제팔란을 소멸합니다.
※ 특 징 (춘추·하절기) 국내최초로 특허청에 의장등록(제0246178호)
■ 고급모직- 모직으로서 통풍이 아주 잘되고 가볍고 구김이 거의 없으며 물세탁 가능(세탁기), 시원한 느낌을 줌
■ 순 면- 순면으로 스님들이 가장 즐겨입는 승복(무명에 가까움, 누더기모양)
■ 특수직-가볍고 물세탁을 할수 있으며 여름철 입기에 가장 편하고 품위있음(물세탁함)
■ 장 삼- 춘추·하절기 장삼으로서는 아주 가볍고 구김이 많이 가지 않는 고급스러움을 더한 장삼
■ 가 방- 이중처리하여 물이 스며들지 않고 언제나 모양새가 일정함

춘추·하절기 판매가격표

스타일		구분	판매가
저고리 바지 조끼	고급모직	남·여	170,000
	순면(누더기모양)	남·여	160,000
	특수지	남·여	140,000
동방 바지	고급모직	남·여	160,000
	순면(무명)	남·여	150,000
	특수지	남·여	140,000
장삼 (조계종대교과정)	고급모직	남·여	220,000
	특수직	남·여	200,000
서츠	고급원단 (차이나·라운드)	남·여	30,000
기타	나들이가방, 바랑, 걸망, 손가방 등		

※유사품이나 모방할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습니다.
지역 판매점 모집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업체 "수레바퀴"
기원섬유
본사 : 대구 동구 신천3동 139-1 봉영 B/D 302호
TEL : (053)764-4114 H·P : 011-9850-4400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기업 - KNS (주)한국자연과학
가시오가피 처음부터....
잘알고 먹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건강" 그 소중함을 위해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주)한국자연과학이 늘 함께 합니다.

세계 최초 기업농으로 성공한 강 훈 구 대표
충청남도 "향토지적재산" 입니다.
전화상담 및 무료자료신청
TEL:(02)2272-4900
한국산 가시오가피의 대명사
함박재 가시오가피
100% 국내산 토종 가시오가피를 사용
국내 최대 가시오가피 재배지"함박재 농장"
- KBS, MBC 뉴스 보도 -
가짜가 많아 오해도 많은 가시오가피 이제,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20년을 달려온 (주)한국자연과학이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멸종위기에 처한 가시오가피는 환경부 지정 야생보호식물입니다.



◇한번 참선에들면 며칠간 미동도 하지않아 '절구통 수좌' 라는 별칭을 갖고있는 법전스님.



마음·생각 씻고 씻어 날로 새롭게

참선들면 미동도 안해…수좌들 사표

서 스승 원오 극근 선사가 편집한 종문의 제일서적이라는 〈벽암록〉을 손수 불태워 버렸던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자기 분수를 모르는 데서 나옵니다. 분수를 지키지 않고 지나친 욕심을 부리다 보면 남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항상 욕심을 적게 갖고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마음을 씻고 생각을 씻어서, 날로 새롭고 또 새롭게 해야 합니다. 오락가락하던 마음이 끊어지면 두 다리를 쭉 뻗을 수 있는 경계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옷음지옥 불지옥에도 마음은 한가로울 것입니다. 불상이라는 상(相)의 모양에만 집착하는 대중들에게 상을 떠난 부처님의 진상(眞相)을 보라고 선사는 방편으로 보여 준 것입니다. 거지도 거지가 아니라 대중이 '약견제상비상 즉견여래(若見諸相非相 卽見如來)' 즉 '모든 상이 상아님을 볼 수 있다면 여래를 볼 것'이라는 법문을 해주러 온 선지식인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선사들이 불상을 통하여 자기의 안목을 열어갔고 또 남의 안목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수미산 꼭대기에 올라가 내 몸을 은둔시키고 세상을 훤히 내다보고 살았으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수미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큰 수미산이 내 그 작은 엉덩이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안되겠다 싶어서 향수해 바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바다 역시 내 발바닥 밑으로 감추어져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내 발바닥 속에 파묻혀 보이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내가 살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 때 바로 한 생각을 돌이켰습니다. 보통 탐진치(貪嗔癡) 삼독(三毒)을 없애야 성불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탐진치 그 자체가 바로 나였습니다. 탐진치가 있기에 나(我)라는 존재가 있고 탐진치가 없어지면 나(我)라는 존재가 없어질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탐진치 속에서 영원히 한번 살아보자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탐심이 제일 많고 진심(嗔心)이 제일 많고 치심이 제일 많은 그 놈이 바로 나였던 것입니다.

생활을 떠나선 수행도 없으니

△수행은 누구누구의 독점물이 아닙니다. 신도는 말할 것도 없고 남녀노소 세계인 모두가 자기 스스로 해야 할 일입니다. 모든 중생은 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산중이건 거기에 모인 대중이 복과 안목이 없으면 선지식을 모시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설사 선지식이 있다고 할지라도 못 알아 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식 운운' 하기 전에 내가 선지식을 모시고 살만한 안목과 복이 있는가를 먼저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안목이 곧 나의 선지식입니다. 내 눈이 어두우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안목을 갖추면 천하에 선지식 아닌 것이 없습니다.

△사실 신통력이라고 해 봐야 그건 유위법(有爲法)의 하나일 뿐이지 생사(生死)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무생법인(無生法忍)은 아닙니다. 아무리 호법선신이 수백 번을 나툰다 할지라도 그건 생사해결법과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저 하나의 조그마한 신통력일 뿐입니다. 신통력을 신통력인 줄 알고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야지 여기에 무슨 큰 공부라도 한 줄 알면 이는 깨침과는 십만 팔천 리로 멀어지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지극한 염불 한 마디는 흐린 물속에 던져진 마니주 구슬입니다. 마니주를 던지면 흙탕물이 저절로 맑아지듯이 염불하면 모든 망념이 일시에 그칠 것입니다. 망념이 그치게 되면 세상이 맑게 개일 것입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지극정성으로 발원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정진과 기도의 가피는 참으로 불가사의한 것입니다. 승속을 막론하고 수많은 눈 밝은 사람이 쏟아져 나와 이 법당 안이 광명으로 빛나고 천장에 구멍이 수천 수만개 뚫리도록 같이 열심히 기도하고 정진합시다.

△참선이란 올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바르게 살기만 하면 그 공덕으로 개인적인 어려움은 점점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나도 편안해지고 이웃도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현재도 편안해지고 미래도 편안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선이란 무슨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모든 행동을 올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성실하고 부지런하며, 이웃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바로 참된 조사선의 정신이라고 할 것입니다.

법전스님 행장

"부처님 법대로 살자" 봉암사 결사에 참여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 종정으로 추대된 도림 법전(道林 法傳)스님은 1925년 전남 함평에서 출생했다.

39년 불갑사에서 설호스님을 계사로 설제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수지했다. 44년 백양사 강원 대교과를 졸업하고, 48년 만암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오쳑단신인 스님은 성격이 원만하고, 출가 이후 오로지 수행에만 전념해왔다. 한번 참선에 들면 미동도 하지 않아 일 주일간은 꼼짝도 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법전스님의 가장 돋보이는 행장은 조계종 종풍을 확립한 문경 봉암사 결사에 1949년 참여한 것이다. 스님은 '부처님 법대로 살자'는 성철, 청담, 향곡, 자운 스님 등이 이끄는 봉암사 결사의 말석을 차지하며 타사시구자(拖死屍句子: 무엇이 너의 송장을 끌고 왔느냐) 화두로 7개월간 정진하던 중 경계(境界)가 달라지는 경험을 하는 등 공부의 힘을 얻는다.

1951년에는 6.25로 인하여 대중들은 봉암사를 떠나게 되자 통영 안정사(安靜寺) 천제굴(闡提窟)에서 성철 스님을 은법사(恩法師)로 모시고 도림(道林)이라는 법호를 받으면서 더욱 공부에 매진한다.

1957년에 문경 대승사 묘적암에 들어가 절문을 걸어 잠근 스님은 밥을 반말쯤 해놓고 양동이에 퍼서 방구석에 두고 두문불출 3개월 안거에 들어간다. 이불도

성철스님을 은법사로 공부에 매진
밥 반말 해놓고 석달 두문불출

베게도 모두 태워버리고 찬공기가 감도는 방에서 찬밥 김치조각 덕는 게 공양의 전부였다. 스님은 공부에 진척이 보이자 1955년부터 파계사 성전암에서 10년간 철조망을 치고 수행하던 성철 스님을 찾아가 인가(印可)를 받는다.

성철스님께 점검을 받는 경계는 '여하시조사서래의(如何是 祖師西來意,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냐?)'는 것. "시전(屍前)에 주삼작(酒三酌, 죽은 사람 앞에 술이 석잔입니다.) 창천(蒼天) 창천(蒼天)이로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일월(日月)이 동서별(東西別)하니, 좌인(坐人)이 기이행(起而行)이라. (일월이 동서를 분별하니 앉았던 사람이 일어나 가더라)" 하고 답하자 성철스님은 인가를 한다.

'출격장부로서 장부답게 멋지게 한번 살아봐야겠다'고 다짐한 스님은 태백산 홍제사 토굴로 들어가 탐진치 삼독이 자신에게 있음을 깨닫는다. 스님은 창원 성주사, 문경 갈평토굴, 태백산 도솔암, 김용사 금선대, 범어사 등 제방선원을 다니면서 10여년간 참선 수행했다.

1967년 해인총림 수좌 대표인 유나(維那)를 잠깐 지낸 스님은 1969년 김천 수도암에 선원을 복원하여 15년간 많은 납자들을 제접했다. 그리고 1981년 종회의장 1982년 총무원장을 잠시 지냈다. 1985년부터 해인총림 수좌(首座)로 해인사 선원에 머물며 본격적인 해인사 생활에 들어간다. 이듬해인 1986년 해인사 주지, 1994년 해인총림 부방장, 1996년 방장으로 추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00년 10월 원로회의 의장에 추대되었다. 김원우 기자

헌 시

법전스님 종정추대에 부쳐

목정배(동국대 교수)

절구통 수좌 법전스님
지금 무엇하고 계십니까
그냥 앉아있지
그래 앉아계시면서
삼매적정(三昧寂靜)하시니
세상 밖에서 스님을
조계종의 종정 큰스님으로
법상에 올려놓으셔도
절구통스님은 묵언미소(默言微笑).

여말선초의 숭유억불하는
선림훼폄(禪林毁貶)의 광풍이 불어와도
지공 나옹 무학 삼대화상이
우리 가풍을 이어 오게 한
조계정맥의 역로(歷路)가 아닌가
아니 역사도 삼대면면(三代綿綿)히
공업(共業)을 지어야만
창업(創業)이 수성되어
현현하고 유유한
문물을 구현하는데
수행승의 총림도
삼대로 이어온 화상이 있어
조선의 불교가 명맥이 되고
삼화상으로 지금껏
존숭(尊崇)을 받지 않는가
제라박타존자 지공대화상
보제존자 나옹대화상
묘엄존자 무학대화상.

희양산 봉암사에 모였던
눈 푸른 치납(緇納)들의 심검(尋劍)이여
불조혜명을 전등(傳燈)하려는,
조계돈오를 심전(心傳)하려는,
청정승가를 이룩하려는,
그 뜻을 잃지 않고
길 닦고 나무하고
물 길어 밥지어 먹으면서
오매일여(寤昧一如) 화두잡아
공부하고 원력세워
결사하였더니
그 공과 허무러지지 아니하고
봉암결사(鳳巖結社) 스님들중
세 분 종정나오시니
인(因)이 바르면 과(果)도 밝고
인(因)이 흐르면 과(果)를 찾을 수 없네.

해인적광(海印寂光)에는
본래 공(空) 화엄삼매(華嚴三昧)인데
어디서 눈이와 쌓일 것도 없는데
없는 눈을 쓸어 모아
눈 밝은 사람 보라 하니
퇴설당의 광명이다
법전종정 대종사
삼대광명 무량겁(無量劫).

알려드립니다

● 성 명 : 박 연 욱 (법명 : 의성)
● 주민번호 번호 : 420315-1178311
● 주민등록상 주소 :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산 2번지

위 자는 대한불교 통화불현종 소속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산 2번지 망월암 주지를 사칭하여 대한불교 태고종 소속 망월암 소유의 임야를 자신의 소유인양 안양 및 경기일원 각 지 부동산에 매물을 의뢰하는 등 사기행각을 일삼고 있는바, 위 박연욱은 망월암과는 아무런 연고가 없사오니 차후 피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2002년 3월 일

● 공고인 대한불교 태고종 망월암 주지 박 고 암
● 주 소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산 2번지
● 연락처 031-472-3366

봉 청화 큰스님 초청 행
춘계 합동 천도재

백련산 신흥사에서는 곡성 태안사 조실이신 청화 큰스님을 모시고 춘계 합동 천도재를 다음과 같이 봉행하고자 합니다. 영가 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분이나 업장 소멸을 원하시는 분들은 동참 하시길 바랍니다.

다 음

1. 일시 : 입재 - 2002년 4월 11일 (양) 목요일
회향 - 2002년 5월 2일 (양) 목요일

불교 교양대학 개설
▷ 일시 : 매주 목요일 토요일 10시 -12시
▷ 내용 : ① 부처님 생애 및 기초교리 ② 법화경 독송 및 강의 ③ 사군자 및 생활 역학 - 김부자(토)] 성광 혜인스님(목)

2. 장소 : 서대문구 홍은3동 대한불교조계종 신흥사
TEL 02)395-1222 , 3216-2036
3. 교통 : 전철 - 3호선 홍제역 3번 출구 → 10번 마을버스 → 종점 → 신흥사
버스 - 8, 59, 522, 74, 806(정원여중하차 도보10분)
홍제역 통과 버스는 모두 가능함
→ 마을버스 10번 연결

대한불교조계종 신흥사
주지 성광 혜인 합장

현대불교사회문화원
불교지도자 아카데미
(Buddhism Leader Academy)
스피치 과정 모집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보화 시대에 맞게 쉽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강화하고, 설법과 강의, 대중연설에 필요한 자신감을 갖추어 대중포교에 강한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 모집대상
- 설법과 강의, 대중연설에 자신있는 화술이 필요한 스님과 포교사
◇ 교육기간 : 1개월 과정 총 12회 강의
◇ 모집인원 : 선착순 30명
◇ 교육장소 : 현대불교사회문화원 교육실
◇ 개강 및 강의일정 : 5월 27일 ~ 6월 지일
매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 강의내용 : 불교스피치 방법론, 명지도자는 명스피커, 효과적인 내용구성법, 발성 및 스피치 훈련(I), 스피치 실습 및 평가(I), 연단의 자세와 제스처, 음성표현의 5대원리, 유머 스피치, 유명성직자 화술분석, 불교스피치 예화 사용법, 발성 및 스피치 훈련(II), 스피치 실습 및 평가(II)
◇ 원서 교부 및 접수
- 기간 : 현재접수중(2002년 3월 15일부터 5월 25일까지)
- 장소 : 현대불교사회문화원 사무국
- 문의 : TEL : 02) 736-6940 FAX : 02) 730-1203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170 동일빌딩 603호

현대불교사회문화원 교육아카데미

영가천도

"확실한 천도를 약속합니다"

왠만한 영가천도 영험담은
영험담 측에도 못낍니다.

정토사에서는 아미타, 관음, 지장, 삼존불을 봉안하고 불사를 위한 아미타 1000일 기도 중입니다.

1000일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백병산 정토사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전수리
031)771-0227
016)999111-61

세계 고승 대덕 발우·禪서화 특별전 10~16일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무욕·깨달음의 향훈 '물씬'



◇링 린포체가 사용하던 발우.



◇석주스님의 달마도.



◇성철스님의 일원상.



◇티베트의 철발우.

발우는 단순한 식기(食器)가 아닌 출가 수행자의 무소유와 무욕을 상징하는 법기(法器)다. 선서화(禪書畵) 또한 수행의 기운이 없으면 한낱 기교적 작품에 그치기 십다. 그래서 작가가 붓끝을 움직여갈 때 무심(無心)의 상태가 아니면 보는 사람의 마음을 정화시킬 수 없다.

깨달음의 향훈과 무욕의 삶을 느끼게 하는 국내외 선지식들의 작품 전시회가 10일부터 16일까지 서울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신관 전시실에서 열린다.

근·현대 禪書畵 총망라…전모 한눈에

한·일·중 등서 수집 선지식 발우 50점도

백령도 연화도량이 '2002 세계 고승대덕 발우·선서화 특별전'을 주제로 마련한 이번 행사에는 조계종 역대 종정을 비롯해 원로 스님들의 그림, 글씨, 도자기 등 250여점과 한국, 일본, 중국, 대만, 스리랑카, 태국, 미얀마, 베트남, 티베트, 캄보디아 등에서 수집한 해외 선지식들의 발우 50점이 함께 전시된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는 경봉, 청담, 석주, 만봉, 성철, 서옹, 석정, 중광, 수안 스님 등 법명만 들어도 얼굴이 머릿속에 단번에 그려지는 고승들부터 동승의 작가 원성스님까지 근·현대 선서화가 총망라돼 있어 우리나라 선서화의 전모를 한눈에 살필 수 있다.

최순택 교수(원광대 고고미술사학과)는 "선적 미감의 실체는 주체가 되든 객체(감상자)가 되든 결국은 수행의 깊이에서 오는 느낌의 공감에서 지각된다"며 "오래 참선 수행한 사람의 선묵에서는 고담청랭(古談淸冷)한 정취와 보는이의 마음을 잔잔하게 가라앉히고 정화시키는 힘을 내재하고 있다"고 선서화 감상법을 설명한다.

이외에도 석주스님이 40년간 사용한 은행나무 발우를 비롯해 티베트의 달라이라마와 링 린포체, 베트남의 민짜우 등 고승들의 발우도 눈여겨 볼만한 전시물이다. 또 인간문화재들이 나무와 철, 도자기의 재료를 이용해 만든 발우도 선보인다.

이번 전시회를 기획한 지명 스님(백령도 연화도량 주지)은 "3년전부터 선서화를 수집하며 국내는 물론 세계 고승대덕들의 사상, 예술정신을 동시에 접할 수 있는 의미있는 전시회를 기획하고 싶었다"며 "특히 세계의 큰 스님들이 남긴 발우와의 만남을 통해 물질적 가치에 함몰되기 쉬운 현대인의 병폐를 되짚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획의도를 밝혔다. 한편 26일부터는 부산 국제신문 문화센터 4층 대전시실에서 2차 순회전시를 갖는다. (032)885-9711

문화 담당= 김주일 기자 jkm@buddhapia.com

불교방송 프로 개편

'가자 월드컵으로' 등 2편 신설

'룸비니동산' 확대 매일방송

불교방송은 봄철을 맞아 1일부터 프로그램 개편을 단행한다. 이번 개편에서는 '가자, 월드컵으로'(월~토, 오후 2시10분~오후 2시45분)와 'BBS 주간 기획, 뉴스와 사람들(일, 오전 8시20분~오전 9시)' 등 두 개의 프로가 신설된다. 특히 월드컵이 열리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방송되는 '가자~'는 월드컵 경기장 주변에 가볼만한 불교문화재 소개 등 다양한 월드컵 관련 정보를 알려준다. 또 'BBS 주간기획~'에서는 각종 선거에서 화제가 되는 인물과 쟁점 사항을 심도 있게 조명한다.

올해부터 실시하는 방송위원회의 방송 평가척도에서 어린이, 장애인, 노인 등 사회 소외계층 프로그램을 일정비율로 방송하는 방송사에 후한 점수를 준다는 시책에 맞춰 그동안 주간 단위 프로그램이던 '룸비니동산'(월~토, 오후 4시45분~오후 5시)을 일일 프로그램으로 확대 개편했다. 이외에도 'BBS 신행상담실'(월~토, 오전 10시5분~오전 10시55분) '네트워크 연결' 등은 방송시간이 5분 축소됐다.



◇(사)삼보불교음악협회가 찬불가의 대중화를 위해 만든 '신도용 찬불가집'.

찬불가집 2종 신도용 반주용 발행

삼보불교음악협 11일 세종홀서 기념법회·음악회

불교 음악을 작곡, 작사, 연주하는 음악가들이 모여 99년말 사단법인체로 설립한 (사)삼보불교음악협회(이사장 운문스님)는 신도용과 반주용 〈찬불가집〉 두 권을 발간하고 11일 오후 4시 세종홀에서 기념법회와 같은날 저녁 7시 세종문화회관에서 기념음악회를 연다. 이번에 제작된 〈찬불가집〉은 정부기, 김동환 교수(중앙대), 조영근, 최영철씨 등 불교음악계에서 활동하는 대표적인 작곡가 20여명이 현대인의 정서에 맞는 찬불가 433곡을 엄선해 그중 일반대중들이 편히 부를 수 있는 330곡은 수록했다. 또 실용성을 높이기 위해 피아노 반주용 책도 별도로 제작했다.

이번 찬불가집 제작과정을 살펴보면 장르에 관계없이 1년에 걸쳐 총 1300여 곡을 모은 뒤 작곡가와 평론가, 음대 교수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 20명이 4차례에 걸친 심사를 거쳐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찬양합시다' '미타의 품에 안겨' 등 외국곡에 가사를 붙인 곡들이 제외됐다.

(사)삼보불교음악협회는 앞으로 사찰 합창단이 전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합창곡집 발간과 함께 9월부터는 불교음악교양대학도 운영할 계획이다.

1300곡중 현대정서 맞는 330곡

9월부터 불교음악교양대학 운영

정부기 교수는 "부처님 가르침을 노래로 전달하는 찬불가는 물론 불교에 관심있는 이들에게 신심을 길러주기 위한 좋은 방편"이라며 "일반 신도들도 쉽게 부를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이번 신도용 찬불가집을 만들게 됐다"고 편찬 의의를 밝혔다.

11일 저녁 7시에 열리는 기념음악회에는 현태종과 태고종, 불교어린이 연합합창단이 출연한다. (02)723-0441

11일 고대 민족문화연

식품은 인간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궁금증을 해결하고 싶다면 선재사찰음식문화연구원(원장 선재스님)과 한국식물·인간·환경학회의 공동주최로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에서 11일부터 3일간 열리는 '식품과 인간관계, 그리고 선식전'을 찾아가 보자.

이번 행사에서는 식품이 건강에 미치는 효과를 재조명하기 위한 심포지엄과 선식 전시회가 열린다. 우선 첫째날인 11일에는 박권우 교수(고려대)의 '자연식으로 이용되는 자생 허브 식물'을 주제로 한 강연을 시작으로 최진규 소장(한국토종약초연구소)의 '토종약초 건강법' 강연 등이 열린다.

'식품과 인간건강' 심포지엄

선재 스님 '사찰의 자연과 선식' 특강

12일에는 선재스님이 '사찰의 자연과 선식'에 대해 강의한다. 특히 마지막날에는 약초와 전통차의 효과에 대해 영상자료를 활용한 강연이 이어진다. (02)923-4067



김홍근이 쓰는

문학 속의 불교

아침에 공부하던 중에 '사자분신삼매師子奮迅三昧'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맹수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가 기세를 떨치며 내달으면 그 동작이 민첩하기 한량없는 것처럼, 여래가 삼매 중에 큰 위력으로 미세한 번뇌까지 신속하게 제거하는 경지를 나타내는 말이다. 그리고 그럴 땐 '보진전모(普震全毛)', 즉 온몸의 미세한 털까지 모두 부르르 떨며 빳빳하게 일어선다고 한다. 이 때, 전모(全毛) 대신 금모(金毛)라고도 하여, 흔히 사용하는 '금모 사자'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다. 사자師子는 황금색 갈기의 사자(獅子)라는 뜻이지만, 땁 그대로 '스승師'을 의미하기도 한다.

공부를 마치고 교정으로 나왔는데, 봄햇살이 참 따사로웠다. 포근한 봄바람을 맞으며 천천히 걷다가, 주위를 둘러보니 문득 '금모 사자'가 바로 여기 출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놀랍게도 눈길이 가는 곳마다 막 피기 시작한 꽃잎들이 환한 미소로 인사하는 것이다. 야산에는 꽃나무가 드물지만, 대학 캠퍼스의 정원처럼 손길이 많이 가는 곳에는 유독 꽃나무가 많다. 그 나무들 가지 가지마다 첫 꽃잎이 수줍은 듯 벌어지고 있었다. 올 봄은 참 이상하다. 예년에는 꽃들이 종류 별로 차례차례 피어났는데, 올해엔 봄이 랠리 와서 그런지 온갖 꽃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피어나는 것이다. 다시 한 번 주위를 찬찬히 살펴보니, 산수유, 개나리, 진달래, 목련 등이 마치 미인대회에 나온 듯이 저마다 청초한 자태를 한껏 뽐내고 있었다. '금모 사자'는 바로 봄이었다.

長沙의 '산놀이'

처음엔 향기로운 꽃길따라 갔다가 다시 떨어진 꽃을 따라 돌아왔지

벤치에 앉아, 봄 사자의 잔등이 위에 올라타서 우주를 소요하는 듯한 기분에 빠져 있노라니, 자연스럽게 『벽암록』에 나오는 '장사(長沙)의 산놀이'가 생각났다. 수많은 공안 중에서 유독 시정(詩情)과 선취(禪趣)가 물씬 묻어나는 이 고칙(古則)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사가 어느 날 산놀이를 끝내고 산문 앞에 이르자, 수좌가 물었다.

"스님께서는 어디를 다녀오십니까?"

"산놀이 갔다 온다네."

"어느 곳을 가셨습니까?"

"처음엔 향기로운 꽃길 따라 갔다가, 다시 떨어진 꽃을 따라 돌아왔지."

"봄기운이 물씬 합니다."

"가을 이슬이 연꽃에 맺혀 있는 것보다 낫지."

나무가 마르고 잎이 떨어진 뒤, 단풍바람에 알몸을 내맡기는(樹凋葉落 體露金風)' 경지도 좋지만, 꽃피는 계절이면 장사처럼 꽃잎 분분한 길을 따라 실컷 산놀이를 다녀와도 좋지 않을까? 장사의 이야기는 일반적으로 색(色)에서 공(空)으로 갔다가, 다시 색(色)의 인간세계로 돌아와 걸림 없이 기용(機用)을 발휘하는 경지를 비유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시 한 번 봄꽃이 만발하는 계절이 왔다. 꽃을 보고 있노라면,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는 속담이 생각나는 것은 왜일까?

■문학평론가

"자비의 등 지혜의 등" - 온 불국토를 장엄 하겠습니다

찬덕 연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 연등용 전선 케이블 -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시공하여 드립니다.
• 연등의 종류별로 영가등 이있습니다. • 각사찰이름 인쇄시 30일전에 미리 주문 부탁드립니다. (만월등)

시공된연등용 전선 케이블 ▼



팔모접등 팔모조립등 공단등 만월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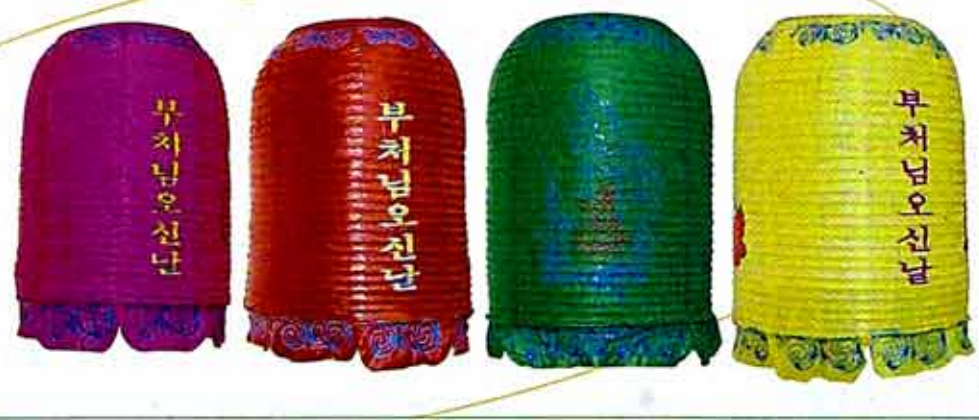


종등 신제품 • 실용신안 등록 • 의장출원

• 종 소리는 지옥 중생을 구제하고 악업과 고통을 멈추게 한다고 하여 옛 사람들은 초파일 전에 종등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뜻을 전하고자 찬덕연등제작사에서는 '부처님오신날' '각종 법회 및 행사'에 쉽게 장엄할 수 있는 신제품 종등을 개발하였습니다.



종등 보관상태





◆연꽃잎 제조특허(특허 제122168호) / 갈각등 실용신안(등록 제098634호)외 의장등록 다수 보유업체◆

찬덕 연등제작사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전화:031) 792-6288, 794-4055
찬덕 홈페이지 : www.chanduk.com
e-mail : chanduk21@hanmail.net

테마독서 선수행 입문서

'참선 교육' 초심자에 도움
내용 다양… '수행의 임상보고서'

한국 불교에는 참선 · 염불 · 간경 · 주력 등 다양한 수행 방편이 존재한다. 모두 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고 궁극적으로 반야의 언덕을 향한 뗏목이므로 우열을 말하기는 힘들다. 다만 수행하는 사람의 태도와 지극함의 정도에 따라 그 결과가 다를 뿐이다.

역시 어떤 수행 방편이든 요체는 실천에 있다. 이 핑계 저 핑계 댈 것 없이 하루에 십 분이든 한 시간이든 실제로 수행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럴 경우에도 가르침이 필요하다. 선지식을 찾는 것이 최선이겠으나 현대인에게는 수행 그 자체만큼이나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이런 경우, 책은 역시 훌륭한 방편이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참선 입문서 가운데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초심자에게 도움이 될 책은 〈참선교육〉(도서출판 禪)이다. 모두 3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한국의 대표적 선 수행 단체인 '수선회'의 오랜 경험이 결집되어 있다. 참선 수행의 실제에 관한 임상 보고서라고도 할 정도로 다양한 내용이 자상하게 설명돼 있다.

1권은 교과서 격이다. 참선의 목적, 종류, 자세는 물론 수행자가 택해야 할 음식이나 장소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자세함이 지나쳐 세심할 정도인데, 참선 수행을 할 때, 양말을 신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까지 언급할 정도로 실제적이다. 2



권은 화두선에 집중하고 있다. 화두에 대한 정의와 참구법, 선사법문, 조사 경책 등을 실었고, 실참 수행에서 흔히 겪게 되는 장애에 대한 해법을 소개한다. 3권은 선문답으로 일관하는데, 원담 · 정일 · 진제 선사와 지리산 00선사와의 100문 100답을 싣고 있다. 간접적이긴 하나 수행의 깊이에 대한 점검이 가능할 것이다.

선이 비록 불립문자(不立文字)를 주장하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문자에 대한 집착을 경계한 것이지 '교(敎)' 자체를 부정한 것이라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불교라는 수레의 두 바퀴라 할 선(禪) · 교(敎) 겸비는 당연한 일이다. 이를 위한 길잡이 역할을 해 줄 책으로 〈좌선수행법〉(불교시대사)을 간단히 살펴본다. 「정좌요결(淨坐要訣)」, 「육묘법문(六妙法門)」, 「동몽지관(童蒙止觀)」, 「사념처(四念處)」 등 천태 지의(538~597)대사의 학설을 주 내용으로 한 저작들을 소개하고 있다. 「정좌요결」은 명말 청초의 사대부인 원황(1586~1656)의 저작으로 천태종의 지관 수행의 비결을 명쾌하게 풀어놓고 있다. 「육묘법문」, 「동몽지관」, 「사념처」는 천태 대사의 저작으로, 선과 교를 함께 닦는 지관수행법(止觀修行法)의 요체를 담고 있다. 좌선할 때뿐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서 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생업을 도외시할 수 없는 생활인의 입장에서 선 공부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책으로는 박희선 박사의 〈생활 참선〉(정신세계사)을 들 수 있다. 지은이 스스로 실행해 온 신체와 정신 건강법으로서의 생활참선을 소개하고 있다. 초판이 나온 지 15년이 됐는데도 꾸준히 독자의 사랑을 받고 있을 정도로 내용의 현실 적용성이 뛰어나다.

"근본 · 대승불교 본질적으로 같다"

'불교입문총서1 근본불교' 이중표 지음




◇부처님이 왕궁을 버리고 출가를 결심할 때의 상황을 표현한 조각. 대영박물관 소장.

'근본불교'란 석가세존이 설한 가르침을 일컫는 말로, 학자에 따라 '원시불교' 또는 '초기불교'라는 말로도 쓴다.

이러한 근본불교를 '석존직설(釋尊直說)'에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해 대승불교의 경전과 교리는 근본불교와 다르다고 이해하기도 한다. 때문에 최근까지도 대승불교가 근본불교의 가르침에서 벗어난다는 주장과 대승불교 역시 근본불교와 같은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아함경 · 니까야 교리 체계적 정리
12연기 · 8정도와 오온과 관계 규명

민족사가 펴내는 '불교입문총서'의 첫번째 권인 이중표 교수(전남대 철학과)의 〈근본불교〉(민족사)는 부파불교에 의해 왜곡된 근본불교의 사상을 되살린 것이 대승불교라는 전제 하에, 근본적으로 근본불교와 대승불교는 차이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석가세존의 가르침은 북방불교의 한역대장경에서는 '아함경'으로, 남방불교의 팔리대장경에는 '니까야'라는 이름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책에서는 '아함경'과 '니까야'에 나오는 근본불교 교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경전 속 교리를 원전을 인용해 설명하고 있다.

지은이는 근본불교의 교리체계는 사성제이며, 사성제를 형성하고 있는 12연기와 팔정도가 12입처, 18업계, 5온 등과 어떤 관계를 구성하고 있는지를 밝히고 있다. 곧 12입처설은 18업계설로 발전하고, 18업계설은 5온설로, 5온설은 12연기설로 발전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연기설은 12입처설에서 시작해 12연기설에 이르는 전 과정을 의미한다.

또한 지은이는 업설과 연기설이 동일한 사상의 다른 이름임을 지적하며 불교의 업설은 곧 무아설이며, 업설과 무아설 모두 연기설에 바탕을 둔 동일한 사상임을 주장한다. 즉 업보는 있으나 업을 짓고 보를 받는 행위의 주체로서의 자아는 없지만, 업에 의해 마음이 형성되고 그렇게 형성된 마음으로 업을 지어 모든 존재가 연기한다는 것이다. 또 붓다 당시의 여러 인도사상과 붓다의 가르침이 근본적으로 다름을 밝히고, 대승불교가 근본불교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값 8천5백원.

'월인천강지곡' 베르너 삿세 안정희 공역



6년 연구끝 독일어판 선뵈

1449년 세종대왕이 석가의 공덕을 찬송하기 위해 지은 '월인천강지곡'이 독일어로 번역됐다. 외국어로는 처음이기도 하다. 유럽 한국학회(AKSE) 회장을 맡고 있는 독일 함부르크대 베르너 삿세(Werner Sasse) 교수와 안정희 부교수가 공동으로 번역한 〈월인천강지곡〉(소학사)은 대산문화재단의 해외 한국학 연구지원을 받아 6년에 걸친 연구 끝에 선보이는 것이다.

전반부에는 '월인천강지곡' 제 1권 194연의 원문과 독일어 번역, 해설을 후반부에는 중세 국어 어휘의 형태소 분석 등 언어학적 연구 성과를 실었다. 또 각주와 해설에 실린 불교용어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 산스크리트어까지 밝혀 놓았다.

"독일에서 한국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한 중세 문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1996년 공동작업을 시작했다"는 삿세 교수는 "단순한 번역서가 아니라 중세 국어를 통해 한국인의 정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출간 의의를 말했다. 앞으로 안 교수는 '보현행원품'을, 삿세 교수는 '두시언해'를 번역할 계획이다.

한편 이 책은 2002년 봄 학기부터 함부르크대학 한국학과 교재로 사용된다. 값 3만원.

'대승경전과 선' 김호성 지음



인도 · 대승불교 중심 禪연원 추적

금강경, 유마경, 화엄경, 능가경 등 대승불교 경전을 분석, 그 속에 깃든 선사상을 밝힌 연구서 〈대승경전과 선〉(민족사)이 나왔다.

김호성 교수(동국대 인도철학과)의 1996년 동국대 박사학위 논문을 수정 보완해 묶은 이 책은 선의 연원을 인도불교, 대승불교를 중심으로 추적하고 선사상의 형성배경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 선불교의 사상적 연원이 인도 대승경전 속에 있음을 발견하고, 양자의 논리적 · 철학적 · 수행적 동일성을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해 선종의 기원을 인도로까지 소급할 수 있으며, 선사상(禪)과 경전의 내용(敎)이 원래 하나였음을 주장한다. 대승불교 경전 속에 선사상이 존재한다면 교(敎) 속에 선(禪)이 존재하는 것과 같아 선교의 회통론이 성립한다는 것이다.

지은이는 학위논문에 쓰였던 '선관(禪觀)'을 이 책에서는 '선사상(禪思想)'이라는 말로 고쳤으며, 책의 마지막에는 영문요약문을 실었다. 값 1만8천원.

출판 담당=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고통을 모으러…' 법장 스님 지음





"제 취미는 전국 곳곳을 다니면서 이 바랑에 모든 사람들의 근심, 걱정, 슬픔, 번뇌를 모으러 다니는 것입니다."

생명나눔실천회를 설립해 장기기증과 화장서약 운동을 펼치는 법장(수덕사 주지) 스님이 전국을 다니며 설한 법문을 모은 〈고통을 모으러 다니는 나그네〉(불광출

전국 돌며 설한 법문 모음집

판사)가 나왔다.

1편 '부처님의 품안에서'는 불법을 만난 인연의 소중함과 깨달음을 향해 정진해가야 한다는 법문을, 2편 '덕숭산에 기대어'는 동안거와 하안거 결제 · 해제일 법문으로 마음공부에 매진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3편 '맑고 밝은 삶으로'에서는 불교청년회와 교수불자연합회 법회, 교도소 법회 등에서 설법한 내용을, 4편 '야단법석'에서는 생명나눔실천회와 불교자원봉사자 워크숍에서 설법한 내용이 담겨 있다. 스님은 책의 인세를 생명나눔실천회에 기부한다고 밝혔다. 값 8천원.

'전통사찰 총서' 사찰문화연구원 엮음



사찰문화연구원의 〈전통사찰총서〉(사찰문화연구원) 16, 17권이 나왔다. 16권(경북의 전통사찰Ⅲ)에서는 고운사를 비롯해 의성군과 안동시, 영주시, 포항시, 영덕군, 울진군의 63개 사찰을, 17권(경북의 전통사찰Ⅳ)에서는 직지사 등 김천시와 구미시, 문경시, 상주시, 청도군의 54개 사찰을 소개하고 있다. 값 각 권 1만2천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 · 편자	출 판 사
1	그곳에 부처도 갈 수 없다	대 우	현 암 사
2	영가현도와 49재	박 연 진	민 족 사
3	회색고무신	윤 청 광	시 공 사
4	참선교육1	현 담	도서출판선
5	왕초보, 불교박사 되다	일 지 외	민 족 사
6	빙의	묘 심 화	찬 섬
7	붓다의 가르침과 팔정도	전 재 성	한국불교태고종포교원
8	성철스님 시봉이야기1	원 택	김 영 사
9	극락은 있다	관 정	붓다의 마을
10	생활수행이야기	법 상	불 광

도서 안내:(02)737-0695

깨달음으로 가는 외길
그곳엔 부처도 갈 수 없다
물리학 원리와 화엄경, 정창 禪話와 선문답을 아울러 깨닫지 못한 누구라도 절대 경지를 엿보게 하는 책.
大恩 지음 | 값 15,000원 현암사 전화 : 365-5051~6, 팩스 : 313-2729

北韓의 세계적인 神秘의 명산품 국내시판
北韓 金剛염주
2가지 소원이 꼭 성취된다는 神秘



잡귀들이 보기만해도 도망친다는 靈驗
선물로도 최고! 건강에도 최고!

金剛 염주의 神秘
北韓의 세계적인 神秘의 명산품으로 원효대사께서 참선 안거하시던 평안남도 명산에서 소량이 생산되는 희귀 광석으로 악귀와 액운을 쫓고 건강과 소원이 성취된다는 염주입니다. 金剛必勝염주는 몸에지니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안정되며 神秘한 靈驗으로 모든 잡귀들이 보기만 하여도 도망쳐서 화를 쫓고 福을 부르는 염주중에 最高의 염주입니다. 金剛염주는 상온(현재온도)에서 氣와 원적외선 93%가 24시간 방출되는 세계유일의 神秘의 염주입니다. 전설로는 염주를보면 삼배하면서 꼭 2가지 소망만 마음속에 생각해야하고 염주를 받은 후 3일전에 어느 누구도 염주를 넘으면 靈驗이 없어진다고 전래되는 염주입니다.

신청문의 전화 : (02)704-6868
전화로 주소 성명을 알려주시고 대금 195,000원을 아래구좌로 입금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하시면 전국 어느 곳이든 신비의 금강염주 SET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 농협 1127-02-175765

국내 독점보급
K3 金剛닥터 KOREA
서울 종로구 관훈동 177 대형B/D 406호

* 저자 인세 수익금은 생명나눔실천회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고통을 모으러 다니는 나그네
법장 스님 설법집

나에게 바랑이 하나 있는데
입도 없고 밑도 없다.
담아도 담아도 넘치지 않고
주어도 주어도 비지 않는다.

제 취미가 무엇인고 하면 전국 곳곳을 다니면서 이 바랑에
모든 사람들의 근심, 걱정, 슬픔, 번뇌를 모으러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을 모두 지금 제 바랑에 집어넣어 주십시오.
제가 갈 때 몽땅 지고 가겠습니다.
- 본문 중에서



법장 스님 지음 값 8,000원 / 256면 / 신국판

법장 스님
생명나눔운동을 통해 더불어 사는 삶을 온몸으로 실천하고 계신 법장 스님은 1960년 수덕사에 입산, 원담 진성(圓潭 眞性) 선사를 은사로 득도하였다. 1965년 수덕사 안거 이래 양산 통도사 극락선원을 비롯하여 제방선원에서 정진하였으며, 수행과 포교에 힘써 1982년 대한불교조계종 종정 표창, 1986년 충남 홍성교도소 수형자에게 수계를 준 인연으로 교화활동을 시작한 이래 끊임없이 어두운 곳에 밝은 빛을 부어준 덕화로 2001년 '제19회 교정대상' 본상 부문 자비상을 수상, 1994년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회를 설립하여 장기기증 사회사업, 병고에 시달리는 이웃의 병원비 지원, '사형제 폐지 운동' '화장서약운동' 등을 펼쳐 2001년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여 받았다. 현재 수덕사 주지,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회 이사장 소임을 맡아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계신다.

송파구 석촌동 160-1 전화 (02)420-3300 전송(02)420-3400 http://www.bulkwang.org 불광출판부



불교문화상품의 대표주자 마하몰

1600여종의 불교용품, 불교와 관련한 모든 상품을 마하몰에서 준비하십시오!

공지사항

삼성, 국민, 하나부다피아카드 3개월 무이자할부서비스(5만원 이상 구입고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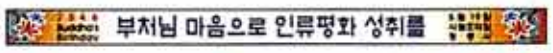
기간 : 1) 삼성카드(4월31일 24:00까지) / 2) 국민카드(5월31일 24:00까지) / 3) 하나부다피아카드(기간 제한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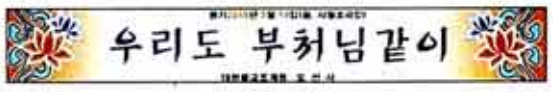
2546 Buddha's Birthday

봉·축·행·사·용·품

봉축행사용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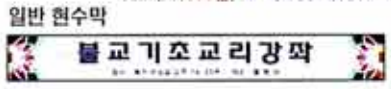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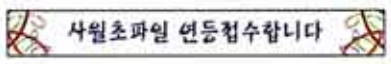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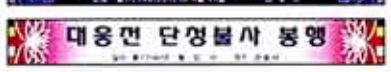
봉축 현수막 : 90cm×6m(40,000원),8m(50,000원),10m(60,000원),
12m(70,000원) ※ 폭 105m,150m제작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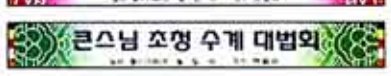
일반 현수막











세로 현수막





일반 리본 250원 (왼쪽부터 3개)
고급 리본 350원 (오른쪽에서 두번째)
귀빈용 3단 리본 1,000원 (오른쪽 첫번째)



장엄 번(만장기)90cm×210cm 장당 40,000원



20cm×30cm 4,000원



어깨띠 : 2,500원
100매 이상 제작시 사찰명 넣어드립니다.

봉축캐릭터 응용 용품



보온 · 보냉 머그컵
보온:3시간 / 보냉 :6시간



양면 점퍼 50,000원



연꽃타올 4,000원

100장 이상 주문시 사찰명 넣어드립니다.



방생 티어슬링 1,000원
100이상 주문시 사찰명 넣어드립니다.



봉축 차량 스티커 300원



아동용 썬캡 3,000원 / 성인용 썬캡 3,000원



천진동자 라이트 펜
10개들이 한세트 30,000원



캐릭터 풍선 300원
100단위 포장(대롱포함) 바람넣는 펌프 없음



캐릭터 부채 700원
500개 이상 주문시 사찰명 넣어드립



봉축 타이슬링 700원



봉축 버튼 400원

캐릭터 앞치마 A형:4,500원 /B형:4,000원
300장 이상 주문시 사찰명 넣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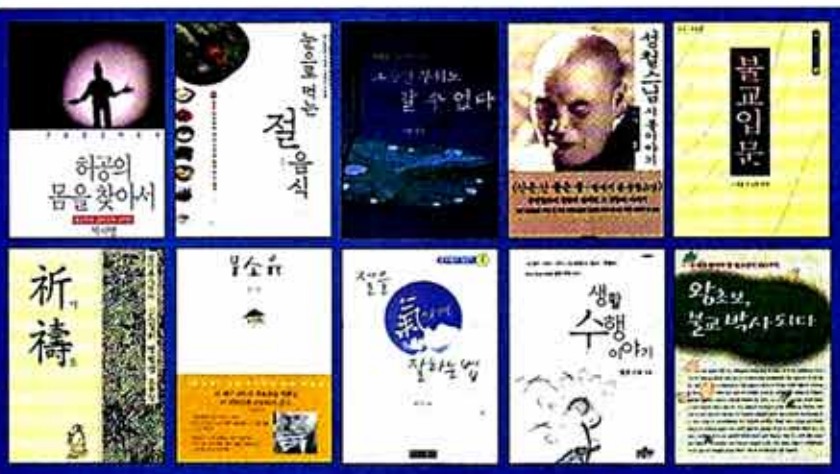
초파일 등



캐릭터 비닐 만월등 2,000원



축구공 등 2,500원



부처님오신날 추천도서 10선

1 허공에 몸을 찾아서 (작가 : 석지명) 12,000원
2 눈으로 먹는 절음식 (작가 : 김연식) 14,000원
3 그곳엔 부처도 갈 수 없다 (작가 : 大珠) 15,000원
4 성철스님시봉이야기1 · 2 (작가 : 원택) 각각 8,500원
5 불교입문 (조계종포교원) 5,000원
6 기 도 (작가 : 일타스님) 5,000원
7 무소유 (작가 : 법정스님) 6,000원
8 절을 기차게 잘하는 법 (작가 : 청견스님) 6,500원
9 생활수행이야기 (작가 : 법상스님) 5,000원
10 왕초보 불교 박사되다
(작가 : 석지연,윤창화,일지스님) 6,800원

추천 명상 음반



국악 명상음악 (휴식)

방황하는 현대인에게 드리는 국악과 관현악이 어우러진 명상음악 휴식 (대금, 소금, 잉글리쉬 혼)

CD1,2 각각 10,000원



香 명상음악

가야금과 얼후,
현대 음악이 어우러져 빚어내는 국악명상음악

CD1,2 각각 10,000원



걸망속에 담긴 명상

가슴을 적시는 성현의 말씀

10,000원



新 명상의 말씀

이 세상에 돈의 노예가 되지 않은 사람이 몇이나 될것인가돈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아님을 알라 – 법구경 중에서

CD1~4 각각 9,000원



道 명상음악

CD1~10 각각 10,000원



불교 명상음악

CD1,2 각각 12,000원



산사의 명상음악

CD1~6 각각 10,000원



세속에서의 명상

홍순지 CD

10,000원

히트예감 상품



순금달마 福 항아리

신비스러운 기(氣)를 발산하여 수맥을 차단하고 나쁜파장과 병마를 소멸시키는 달마상을 순금전사 조성하였습니다.

사은품 : 반야심경 필용서예작품,
옥(玉)목걸이 증정

가격:240,000원 특판가:149,000원



순금금강경백자

금강경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불심 깊은 작가의 불력과 예술의 혼이 담긴 작품입니다.

사은품 : 해운선묵달마도, 24K금장대비주, 황금선침불, 게르마늄팔성3종임주 세트 증정

가격:790,000원 특판가:198,000원

탄소염주 · 단주

- 숯은 탄소덩어리이고 탄소는 기를 모으고 氣가 부족한 곳엔 氣를 공급합니다.
- 숯은 정화와 해독의 탁월한 천연소재입니다.

108염주 : 10m/m 160,000원
단주 : 8m/m 45,000원

다량주문 상품

다포

크기 : 가로39cm×세로50cm

- 200장이상 구입시 행사명 및 단체명 무료 인쇄
- 300장이상 구입시는 일정 금액 할인

흰색 : 800원
회색 : 1,200원

- 지면에 광고된 상품과 더 많은 상품을 인터넷 마하몰(www.mahamall.co.kr)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 불교문화상품 문의 전화 : 02)732-1520 / 무통장 입금계좌 : 국민은행(006-01-0785-361) 현대불교신문사

더 한다 덜 한다도 없이 관해야

병의 근원을 모를 때 답답해

문 저는 강아지를 치료하는 수의사입니다. 근데 항상 저 스스로 묻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병의 근원이나 치료법을 정확히 모르면서 진료에 임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전 상대를 속이고 있는 건지요.

심지어는 강아지를 편안히 보내주지 않고 약을 빌어서 마지막까지 더 괴롭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수도를 해서 의통이라도 해야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 때도 있습니다. 두서 없는 질문을 드리게 되었네요. 스님은 제 심정을 아시리라 믿습니다.

답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는 것도 부처님께서 자유인의 삶을 사는 도리를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 뜻을 알 양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축생들도 인간이 되려고 사람들을 많이 보고 그 능력을 감탄하면서 자기도 그렇게 되려고 마음으로 새기고 자꾸 지혜를 넓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으로 살면서 얽히고 설킨 것을 벗어버리려고 지금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나왔다 할지라도 전자에 하던 습, 인간이 돼 가지고도 전자에 살던 습을 놓지 못한다면 다시 그 모습을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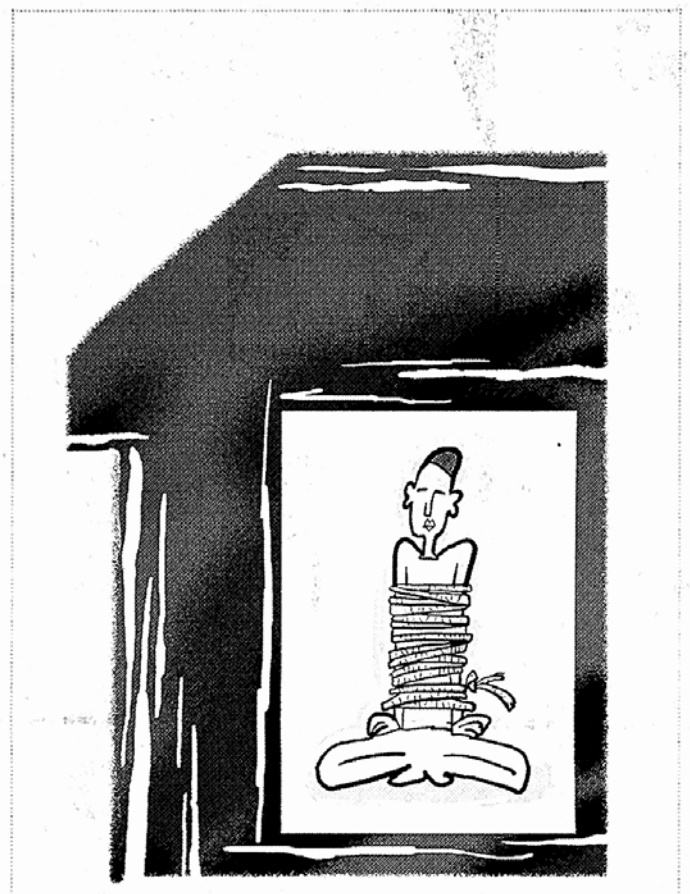
그렇기 때문에 자비스럽게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높은 걸 본다해도 높다 생각하지 말고, 얕은 걸 본다해도 얕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미운 걸 본다해도 밉다 생각하지 말고, 예쁘고 잘 생겼다 해서 감탄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 하나만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자기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내가 틀을 잘 만들어 가지고 이 세상에 나와서 만백성을 다 살릴 수만 있다면 틀을 잘해 가지고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틀을 잘해 가지고 나와서만이 되는 게 아니고 마음의 틀을 잘 잡아서 이끌어줄 수 있는 보살과 더불어 법신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 저는 실험을 하기 위해서 아파 보기도 하고 의사도 불러보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더 안 낫던데요. 그래서 마음의 의사가 제일이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렇듯이 지금 의사나 약사를 하시면서 보이는 물질계에서 한계를 느끼고 마음의 도리를 배워서 정신계와 물질계를 합류화 시켜나가면서 자유롭게 해 나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떨 때 그런 분들이 물어오면 이렇게 일러줍니다. 또 다른 약을 만들려고 애를 쓰지 말고, 만들어 놓은 거를 먹이려고 애를 쓰지 말고 소소한 거는 좀 가만히 놔두는 게 오히려 결론적으로 좋을 것 같다고요. 우리가 마음으로 관하는 걸 가르치면서, 음식도 비싸야만 꼭 좋은 것이 아니라 싸도 그 사람한테 참 좋은 게 있지요. 막 먹어도 괜찮고 신선하고 비싸지 않으니깐 좋기도 하고 비싼 것이 간혹 좋지 않은 경우도 있죠. 그래서 없던 병, 이름도 모르던 병들이 생기고 그러지 않아요? 이름 없는 걸 먹기 때문에 이름 없는 병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의사들이 모두 한 클럽이 돼서, 한의원은 한의원대로 양의원은 양의원대로 또, 수의사는 수의사대로 마음으로 고칠 수 있는 마음의 약을 좀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디에 가도 쓰이게 되고, 어디에 가도 없어지지 않고, 만들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될 수 있고, 누구든지 다 줄 수 있고 또 가지면 그냥 자기 것이 되고 그런 거죠.


그림 · 최주현

다리 아픈 데는 다리를 낫게 하는 약이 나올 거고, 눈이 아픈 데는 눈을 낫게 하는 약이 나올 거고, 배가 아프면 배를 아프지 않게 하는 약이 나올 거고 그렇게 천차만별로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물질의 약으로 보조하는 거는 그대로 하고, 영양을 있게 한다든가 또는 보조를 해서 괜찮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의사선생님들이 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가 되며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오래도록 살아서 좋은 게 아니라 사는 날까지 아프지 않고 편안히 죽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능력이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든지 다 갖춰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촉각으로부터, 시각으로부터, 후각으로부터, 감각으로부터 지각까지 말입니다. 모두가 갖춰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없으면 이 세상이 없고, 내가 있기 때문에 상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없으면 아무도 없는 거 아닌가, 그러니 나부터 알고 나부터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발견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했습니다.

나를 발견한다면 업식으로 태어난 중생들을, 몸 속의 털구멍을 통해서 드나드는 것이 전부 보살로 화해서 드나들게 만들어야 우리 삶의 보람을 갖다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차차 지혜가 넓어져서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본래 부처인지

문 어느 큰스님 법문에 보면 "인간은 본래 일체를 초월하고 일체를 구족(具足)한 절대적 존재이니 이것을 본래시불(本來是佛)이라 합니다. 이 본래시불을 중생으로 착각하여 중생이라 가칭하며 중생으로 행동하고 있으니 이 망견을 버리고 본래불(本來佛)인 인간면목을 확인하는 것이 인간회복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따라 귀신도 선신도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불교의 목적이 중생을 벗어나 부처의 길로 나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본래 부처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본래 부처라면 수행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 예를 들어서 전력을 생각해 봅시다. 전력이 흐르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이미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위치만 올리면 불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게 용도에 따라서 전력을 끌어쓰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마음 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전력 흐르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생각도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겁니다. 이미 갖추어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해서 고에서 허덕이는 겁니다. 전력이 흐르고 있으니 불만 켜면 될 것을 모르니까 어둡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본래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성본래불…, 자성은 본래 불(佛)이다, 이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법도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육조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조 홍인대사가 금강경을 말씀해 주시자 '자성이 본래 일체를 다 갖추어 가지고 있는 줄 어떻게 알았으리까?' 하구요. 자성은 본래 생멸이 없는 줄 어떻게 알았으리까? 자성은 본래 움죽거림 없이 만법을 능히 내고 들이는 줄 어떻게 알았으리까? 어떻게 자성이 본래 청정한 줄 알았으리까 하고 말입니다.

이 네 마디가 다 그런 뜻에서 나온 겁니다. 자성이 본래 청정함을 어찌 알았으리까? 자성은 본래 생멸이 없는 줄 어떻게 알았으리까? 자성은 본래 모든 걸 갖추어 가지고 있는 줄 어찌 알았으리까? 자성은 본래 움죽거림없이 만법을 들이고 낼 줄 어떻게 알았으리까? 거기에서 홍인대사가 발우를 내 준 겁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붐들리면 빼앗길 테니깐, 그때서부터 발우를 전달하지 않기로 법을 정하고 혜능선사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 아예 밤중에 배를 태워 건너 보낸 거죠.

나는 뜻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만 여러분은 책을 보셔서 잘 알고 계시죠? 책을 볼 때 어떻게들 보십니까? 내가 글씨만 보고 글씨는 나를 보고 아주 짝꿍이 되어서 서로 죽겠느니 살겠느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짝꿍이 될 수 있는 글이 어디서 나왔느냐는 얘깁니다. 어디서 나왔어요? 효도를 못하는 여러분과 같아요. 자기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부모 없이…, 책도 그래요. 글자가 어디서 나왔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선지식들께서는 삼 년이든 사 년이든 자기가 주장자를 쥘 때까지는 경을 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경을 달달달 외우다 보면 까불게 돼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를 딱 세워놓고 경거망동 하게 돼 있으니 그걸 어떡합니까? 그러니까로 막혀서 명경이 청정하게 보이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잘 났다고 내세울 게 없는 것이 부처라고 했습니다. 내가 잘났다고 세울 게 없는 것이 부처지, 부처라고 세우는 건 부처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처라고 세울 게 없는 게 부처라고 했으니 삼천대천세계에 꽉 찬 겁니다. 육조스님이 한 물건도 없다고 했듯이 말입니다. 한번 확 뒤집어 보세요. 봄 동산에 얼음이 녹아서 흘러내리는 물소리와 같은 거죠. 봄 동산에 꽃이 피어서 향기롭게 두루하는 그런 향기로운 냄새와 같고요. 안 그럴까요? 그러니 우리들이 세워놓은 부처님, 아주 준수하시고 참 멋지죠? 그런데 멋진 부처님이라고 세워 놓은 건 부처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에 융합이 돼야 부처예요. 여러분이 끼지 않고 형상만 동그마니 있으면 부처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같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몸은 내 몸이요, 부처님의 마음은 내 마음이니 둘이 아닌 거죠. 저 생명은 나와 둘이 아니기 때문에 내 아픔과도 둘이 아니요, 내 자리와도 둘이 아니요, 모두가 둘이 아닌 까닭에 자성은 컴컴하다 밝다는 말이 소용이 없습니다. 자성은 그렇게 밝아요.

여러분이 눈을 감고 한번 앉아서 생각해 보세요. 만약 낮에 부산 갔다 왔다면 지금 눈을 감고도 부산 갔다 온 것을 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거 아는 놈이, 그 놈이 자성이다 이거예요. 그러니 믿으세

> 전생에 살던 습
> 놓지 못하면
> 다시 그 모습으로
> 나올 수밖에

요. 믿고 생각을 좋게 해서 맡겨 놓으세요. 여러분이 다 부처님입니다.

집착에서 벗어나려면

문 영혼이 병든 사람도 스스로 마음공부를 해서 치료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온갖 집착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답 왜,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가지고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사는 이유가 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살아오면서 저건 할 수 없다, 저건 할 수 있다, 저건 작다, 저건 크다 하고 이유가 붙고 습이 붙어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주 삼천대천세계의 근본이 우리들의 마음의 근본에 직결이 돼 있고, 일체 만물만생의 근본이 바로 우리들의 근본에 가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와 나무가 말을 안 해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사랑을 하면서 말입니다.

콩 싹은 콩 씨를 믿어야 하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 속에 들어 있는 생명체들의 관리인이자 집합소인데도, 항상 내가 산다고 하면서 한마음이 되지 않으니까 거기서 돌봐주지 않는 거예요. 한마음이 돼야 이게 작용을 해줄 텐데 한마음이 되지 않으니 대뇌로 통신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집착을 한다면 통신도 되지 않을 뿐더러 나를 오히려 힘들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프다고 한다면 그것이 주인공의 일이지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몸 한 덩어리에 생명체들이 헤아릴 수 없이 산다면 한 덩어리가 사는데, 혼자 산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내 주인공에 딱 맡겨 놓는 그 순간 벌써 한마음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흙탕물을 맑은 물로 바꿔 쓸 수 있고, 모든 걸 대치해 나갈 수 있는데 그걸 대치를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50%의 정신세계를 아예 무시하고 가기 때문이죠. 자기 뿌리를 무시하고 싹만 자기라고 하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는 거를,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그 자체가 바로 다 입력이 되는 거예요. 에누리가 없어요. 입력돼서 바로 현실로 나오는 거죠.

그렇게 현실로 나오는 거를 잘된 일이라면 감사하게 놓고, 잘 안됐으면 '너만이 잘되게 할 수 있어' 하고 다시 거기다 놓는단 말입니다. 놓으면 앞서의 입력됐던 것이 없어지면서 새로이 입력이 되면, 새로이 입력이 된 대로 다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좀 마음을 넉넉히 써서 턱 하니 좀 맡겨봐요. 그리고 죽는다 산다를 떠나봐요. 죽이든지 살리든지 제가 끌고 가는 거 제가 할 일이지 왜 그렇게 끄달립니까?

생각해 보세요. 집이 헐어졌으면 자기를 형성시켜서 끌고 가는 주인이 고치는데 왜 집이 걱정을 합니까? 안 그래요? 집이 헐어졌으면 집을 지은 주인이 고쳐야지 왜 집이 걱정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니 누가 내 주인인지, 진정 누가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되새겨 보시고 진정 인생의 주인으로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산 기도에 대해서

문 홈페이지 친견실 법문을 통해 매일 생수를 얻는 마음입니다. 산 기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산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항상 여여하게 자신을 찾으며 살면서도, 떼어놓는 사이 없이 발길을 떼어놓으면서도 무엇을 따로 찾고 해갈을 하고 있으니 난감한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떡이나 밥이나 해놓고 이 신 저 신 찾아다니며 산다면 요 다음에 그것이 얼마나 누가 되는지 짐작도 못하실 겁니다. 지금도 얼마나 고초를 받는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정성을 지극히 들이면 사람들이 정신이 이상해져서는 헤매고 다니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또 물을 떠놓고 기도드린다고 다니면서 미친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부처님을 집안에다 모셔놓고선 정한수 떠놓고 빌던 사람이 정신이 이상해지고, 또 자기만 이상해지는 게 아니라 대대로 내려가면서 풀리지 않는 그 고초는, 한생각을 잘못해 가지고 대대손손 내려가면서 곤경을 당하게 만드는 문제가 어디에서 나올까요?

게다가 무슨 신, 무슨 신 끌어다 대기만 했지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해결을 못했으니, 어머니 아버지들이 그렇게 온통 마음으로 만들어서 해놓고서 해결을 못하니까 대대로 내려가면서 연관성이 생기고, 유전성이 생기고, 얽히고 설켜서 인과로 벌어지는 일들을 어떻게 말로 다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절에 다니면서 기복으로 정성을 들이던 사람의 자손들이, 자손들이 부모가 하던 것처럼 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부모처럼 한다고 자부하겠습니까? 그렇게 기복으로 지극하게 다니던 사람들의 자손들

☞ 18면으로 계속

가르침 언덕을 넘듯 고달픈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A5신 288쪽
값 6,000원
여시아문

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1-470-3116)앞이나 한마음 선원 홈페이지(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

불성 갖고 있으면서도 알지 못할 뿐

☞ 17면에서 계속

이 나중에는 시대가 변하는 대로 아무래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부모가 그랬다고 해서 자식도 그렇게 하고 다니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런데 자식이 그렇게 하지 않으니 오히려 폐단을 당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음으로 지어놓은 신들이 부모 때처럼 모셔주지 않으니 폐단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내가 귀신이라면 모두가 귀신이고, 내가 선신이라면 모두가 선신인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지어놓고, 귀신을 만들어 놓고, 귀신에 말려 가지고 대대로 내려가면서 그러다가 시신도 없이 거리로 나앉게 되는 사람들도 봤고, 자손들이 병이 들어서 대대로 애를 쓰는 사람도 봤고, 자식대에서 망하더니 5·6대가 그렇게 되는 집안도 봤습니다.

며느리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딸이 그렇게 되고, 딸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그렇게 되고 연방, 아들도 정신이 이상해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그 무서운 일들을 잘 모르실 겁니다. 대략 짐작은 하시겠지만 그것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모르실 겁니다. 모르고 저지른 일이지만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유전성으로 유전되는 이치들이 너무나 무섭게 돌아갑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그런 걸 감안해서, 돈이 있든지 없든지 찰나에 한 물건이 나왔다가 찰나에 한 물건을 쓰고, 이 물건이 떨어지면 그 물건도 떨어질 것을 무엇 때문에 착을 두고 진정한 사랑과 아픔을 서로 나누지 못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떠나서 아픔을 같이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이 아픔을 다 녹이자는 얘기입니다.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을 때 우리는 마음이 평화롭고 춘하추동 꽃의 향기처럼, 그래서 만백화라고 하죠, 춘하추동 만백화. 마음들이 이쯤 돼야 모두 구린내 나는 것도 향기로써 맛을 알게 되고, 그래서 불법이라는 것이 네 방귀, 내 방귀, 귀신 방귀가 온 누리에 두루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따라서 귀신이고 마음에 따라서 선신입니다.

그러니 울고 웃는 자비의 한생각이 방울이라면 한 방울의 피를 서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알고, 주고받는 사이 없이 마음과 마음으로 전달을 하면서 마음으로써 마음을 녹이고, 연관성 있는 인과에 끄달리지 않게 녹이는 작업을 쉴 사이 없이 해야만 된다는 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뜻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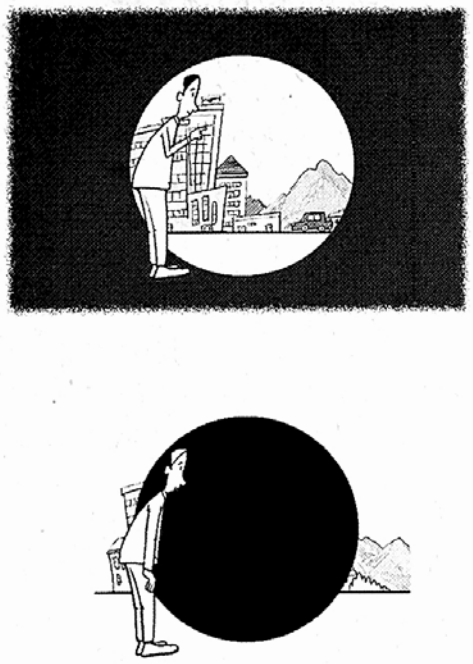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나는 몸 속 생명체의 관리인 맡겨 놓으면 한마음으로 돌아가

하고 남의 큰 나무만 쳐다보는 격이나 마찬가집니다. 저 나무 뿌리를 떱은 흙을 무명(無明)이라고 한다면, 우리 인간은 고등동물이기 때문에 무명이 떱인 것을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나무들은 몰라요, 자기 뿌리로 인해서 살고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그것들을 똑바로 알면 하나도 말을 붙일 것조차 없는 것인데 못 믿으니까 괜히 이 생각 저 생각으로 오히려 산란스러워지는 겁니다.

일거수일투족 내가 자고 먹고 똥누고 잠자고, 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거, 책을 보든 뭘 한든 무슨 일을 하든 그런 것도 다, 나를 형성시켜서 만든 그 장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하게 만드는 거란 말입니다.

화엄경에도 있듯이, 차원에 따라서 차례차례로 그 차원이 주어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 마음이 스스로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뿌리를 자기가 믿지 않는다면 자기 싹은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그러니 정말로 믿는 것이 제일로 중요합니다. 열심히 하고 게을리 하고 하는 것조차도 그놈이 다 하는 거

그런데 그것이 모두 합쳐져서 나오는 거름, 과거 · 미래 · 현재가 둘이 아닌데, 내 몸뚱이 속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의 의식도 둘이 아니고 안과 밖을 다 조복 받았는데 뭐가 있으랴 믿는 사람에 한해서는 삼재가 없다고 그러면 없는 거예요.

컴퓨터에 입력을 해놓으면 입력해 놓은 대로 나오지 다른 내용이 나오지 않죠? 그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팔자 운명도 붙지 않고, 삼재도 붙지 않고, 어디 산길을 걸어갈 때도 나무들이나 돌들이나 흙들이 전부 자기 편이 되어 줍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받들어 주고, 다치는 일도 없고, 죽는 일도 없게 되는 거죠.

팔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자라서, 우리가 몰라서 있는 거지, 생각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 팔자 운명이라고 이름짓지 않는다면 끄달리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저께도 과거고, 조금전도 과거고, 1초전도 과거니까요. 그래서 과거와 미래와 현실이 한데 뭉쳐서 돌아가기 때문에 삼세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런 뜻을 알아야 좀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자 운명이나 삼재는 생각으로 걸리지 않고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써먹지 못하니까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이 가난하니까 삶도 가난해 지는 거죠. 혼자 무거운 거를 들려니 들어지나요. 그래서 부처님께선 안과 밖을 조복을 받으라고 하신 겁니다. 내 몸 안에 있는 생명들도 흡수해서 나로 만들라는 말이거든요. 바깥의 것도 흡수해서 나로 만들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안과 밖을 둘 아니게 조복 받으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깨우친 사람에 의해서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내가 주장자를 딱 쥐고서 나가는 데는 항상 대뇌를 통해서 사대로 통신이 돼서, 사대에서 통신이 되면서 정수에, 자동적인 컴퓨터에 입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심성과학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렇듯이 우리가 삼재니 팔자니 운명이니 하는 이름을 만들어 놓고 또 거기에 걸려서 헤매는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따라서 꼭 해야만 된다 이런 건 없죠. 우리가 부처님의 법을 뜻으로 알면서 '아,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하면 자꾸 군더더기가 되고 보태져서, 마음이 때가 끼고 오히려 더 못살게 되는구나. 이 때를 다 벗겨야 되겠다. 다 벗어버려야 된다.' 하고 알아야 할겁니다.

그거를 몽땅 놓는다면 하늘을 보고 허허 웃어도 그냥 공법이고 평등하고 여여하게 될 수 있고, 여러분이 이 세상사는 게 그렇게 여여하다는 걸 아신다면 모두 갖추어 있는 것도 알게 돼요. 갖추어져 있는 거를 알게 되면 헤아릴 수 없는 만법을 들이고 내는 데도 손색이 없죠. 이렇게 흐뭇하고 묘하고 자기의 보배주가, 구슬이 각자 자기한테 다 있으니 정말 마음의 보배를 밝혀서 다들 밝게 사시기 바랍니다.

삼재 · 팔자 · 운명 마음먹기 탓

열심히 하려면 더 힘들어

문 저는 관이 조금 잘되면 그걸 놓치지 않으려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더 기가 오릅니다. 알고자 하는 마음만 앞서고 수행이 되지 못한 탓인지 열심히 하려는 것이 오히려 더 힘들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찌해야 이 모든 마음을 다 쉴 수 있습니까?

답 내가 예전에 공부하던 생각을 해 보면 말입니다. 이 내 마음 중심에다 관(觀)하면 더 한다 덜 한다 하는 생각도 없었어요. 무조건 더 오든지 덜 오든지 그걸 상관을 안했다구요. 그건 왜냐하면 닥치는 대로 '여기서 다 하는 거니까' 하고 이렇게 믿으니까 그런 겁니다. 사실이 또 그렇구요. 그러니까 여기다 넣어놓고도 이게 더 하느냐 덜 하느냐 하고 그렇게 지켜보면 더 요상하게 자기를 흔들어 놓거든요. 말하자면 그 마음까지 떨어트리려고 자꾸 공부 재료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더라도 그렇게 되는 대로 자꾸 놓으면 말수가 좀 없어지면서, 불안한 게 없어지면서 그 마음이 자꾸 가라앉죠. 근데 자꾸 고걸 어떻게 됐나 지켜본단 말입니다, 관해놓고는. 그렇게 지켜보는 건 못 믿기 때문에 지켜보는 거거든요.

"열심히 하고 보니깐 외려 더 많이 나오더라" 이렇게 물은 거죠? 그러면 그 뒷마무릴 해야 하죠. 많이 나오는 대로 나오는 족족 거기다가 그냥 맡겨놔야 합니다. 진짜로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저 나무들이 뿌리가 있어서 자기 나무가 살고 있는 줄을 모르고 자기 뿌리는 등한시라는 것을 믿고 물러서지 않는 마음, 그 믿음이 양면을 한손에 쥐게 하는 열쇠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삼재에 대해서…

문 모든 게 공해서 업조차도 붙을 게 없다는 스님의 말씀대로 아무것에도 매이지 않고 맡기고 하면서도 이사할 땐 꼭 스님들께 편지로라도 여쭙고 합니다. 완전히 못 맡겼든지 아니면 조금은 마음에 걸림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확실히 아는 것이 맡기는 데 도움이 될까하고 여쭙니다.

제가 소위 말하는 앉을 삼재인데 이제껏 걸리지 않고 살았는데 올해 이사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어서 집을 구하기도 힘들었는데 구한 집도 정말 맘에 들지 않아 괴롭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가는 것이 불안하기조차 합니다. 앉을 삼재가 이사 운과 관계가 있는지요? 미혹한 질문인지 알면서도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이 놓이는 것이 다른 것 같습니다. 스님의 가르침 부탁 올립니다.

답 우리가 삼재라고 하는 거, 팔자 운명이라고 하는 거, 또는 영계성, 업보성, 유전성, 인과성, 세균성이 없는 게 아니라 있으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현대불교 1천원 법보시운동에 동참합시다

군부대 · 교도소 · 복지시설에 자비의 법등을 밝힙시다

'현대불교'는 우리의 소중한 이웃인 군부대, 경찰서, 교도소, 병원, 복지시설 등에 '현대불교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법보시는 부처님 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심는 것으로 선근을 자라게 하여 개인에게도 무량한 공덕이 됨은 물론 우리 사회를 한층 밝고 따뜻하게 하는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육취윤회경〉에서 "보시의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경전의 가르침을 보시하면 큰 지혜를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 동참방법
매월 1,000원 이상 자동이체 또는 수시 온라인 입금(문의시 상세히 안내)
또한 보시하는 불자님이 직접 법보시 대상자나 단체를 정하셔도 됩니다.

■ 참여방법
예금주 성명, 은행명(우체국/수협은 제외), 계좌번호, 예금주 주민번호, 이체 희망일자, 연락처를 전화로 알려주시면 자동이체로 후원금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 신청 및 문의
고객부 (02)737-0090(直) (02)737-8881(代)

현대불교신문사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山蔘의 효력이 없다고요?

만삼蔓蔘(黨蔘)

최상의 신비스러운 영약!

저는 강원도 정선 불암사 신도로서 주지스님의 권유로 심신산골에 山田을 마련하여 만삼재배에 성공했습니다.
옛부터 전해내려오는 이야기는 여자들에겐 산삼보다 효능이 좋다하여 명문대가 부인들만이 해산후 몸조리에 사용할 정도로 귀한약재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삼은 독성이 전혀 없고 성질이 체질에 관계없이 누구나 먹을 수 있으며, 어떠한 식품과도 궁합이 잘 맞는 좋은 약재라 합니다.

약효를 보신 분들의 이야기

- 기관지가 좋아졌다.
- 사지무력증이 나았다.
- 아프던 무릎이 안 아프다.
- 손발 저린것이 없어졌다.
- 인파선이 나았다.
- 변비가 낳았다.
- 만성위염이 나았다.
- 만성피로가 없어졌다.
- 몸에 부기가 빠졌다.
- 천식이 떨어졌다.
- 자궁 물혹이 없어졌다.
- 혈색이 좋아졌다.

많은 분들이 만삼을 복용후에 자랑을 하십니다. 이와 아울러, 중국문헌에는 고려인삼보다 蔓蔘(黨蔘)이 좋다고 실려져 있습니다.
장뇌산삼(長腦山蔘)을 복용하고도 별효험을 못보신 남자, 여자분들이 만삼(蔓蔘)을 드시고 탁월한 영험을 체험하신 분들이 많아 주문이 쇄도하고 있읍니다.
※ 스님들께는 시주불사하는 심정으로 염가에 드리고져 합니다.
(시중가 Kg당 3만 5천원을 1만 5천원에 드리겠사오며, 단, 10Kg 단위 이상만 택배가 가능합니다.)

만삼 10kg(황기, 잔대, 삼지구엽초, 생강, 대추, 감초)
■ 1 Box × 60포 : 15만원 ■ 2 Box × 120포 : 25만원

●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동면 호촌리 323번지
● 연락처 : (033) 563 -8292, 562-2165
● 성 명 : 심정택 H·P 016-345-8292
● 농협계좌번호 : 315024-52-012392 (예금주 : 심정택)

레이키(Reiki 靈氣)가 왜 화제인가!

모든 대체요법가가 갖춰야 할 기본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3일만 배우면 되기 때문입니다.

뭐니 뭐니 해도 레이키야 말로 가장 확실하고 가장 빠르게 우주생명 에너지 요법가(氣치료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입니다. 레이키에는 어퍼런트 라는 비법이 있어서 여러해씩 기공수련을 해야 하는 기공과는 달리 즉각 누구나 우주 생명에너지 요법가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미 세계 인류의 가장 과학성 높은 氣문화 체계로 자리잡혀 있는 레이키는 모든 대체요법가(침뜸 전문가, 지압사, 앗사지사, 피부관리사, 아로마 요법가, 활법사, 골격조정가, 발반사 요법가, 단식원 운영자, 기공 치료가, 생식 요법가, 심령 상담가, 최면요법가 등)가 갖춰야할 기본 능력으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 분야의 대체 요법가들이 기본적으로 함께 쓸 수 있는 도구가 바로 레이키입니다. 레이키는 일본의 우스이 미카오(1865~1926)씨가 발견하고 체계세운 방법이 미국, 일본 등의 레이키 관계자들에 의해 발전된 氣의 과학입니다.
레이키는 건강전체를 개선하는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1. 우스이 레이키(교육기간 3일, 교육비 70만원)
2. 카루나 레이키(교육기간 2일, 교육비 50만원)
   카루나 레이키는 우스이 레이키를 배운 분이 다음 단계로서 배우는 새로운 레이키 입니다.
3. 저(박희준)는 이런 사람입니다.
   지난 20년간 건강분야, 정신세계 분야의 번역가 · 저술가로 활동해 오다가 1996년 부터 일본등에서 레이키를 만나 여러 갈래의 레이키를 폭 넓게 배워 우스이 레이키 마스터(선생)와 카루나 레이키 마스터가 되었고 1997년 부터 「현대 생활 레이키 연구회」를 개업해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정신과학학회 이사.

현대 생활 레이키
연구회 대표 박희준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Reiki.co.kr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89-27 피어선빌딩 809호실
◇ 전화 : 02)720-5682, 720-5719, 팩스 : 02)720-5720
◇ 핸드폰 : 019-392-2557, 018-850-1680

생식마을

살아있어서 생식입니다

건장되찾기 10년



임준규 한의학 박사
· 봉담 자혜원 한방병원 원장 역임
· 남원 효성 한방종합병원 원장 역임

추천서 10여년을 생식만 연구해 왔습니다. 몸을 생각하는 100% 자연식입니다. 고을빛 생식은 강원도 청정지역에서 계약 재배한 재료를 이용해 고을빛, 생식만의 노하우로 배합해서 생산합니다. 제대로된 생식을 원하신다면 이제 고을빛 생식을 찾으십시오. 분당 차병원병원 등에 환자식으로 공급하여 안전성과 신뢰성을 입증받고 있습니다. 제대로된 생식을 원하신다면 이제 전문업체인 '고을빛 생식'을 이용하십시오.

생식의 1석 6조
1. 체질개선
2. 건강증진
3. 피로회복
4. 완전한 다이어트
5. 완전식사
6. 식습관 개선
(생식요법)

이런분들에게 필요합니다
◆ 고통 없이 체중조절을 하실 분께
지칼로리 영양식으로 굶어야 하는 고통없이 체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 아침식사(생식)는 활력의 원천
간편하게 많은 영양을 섭취할 수 있어 바른 현대인의 식사대용으로 최적입니다.
◆ 배변이 원활하지 못해 더부룩한 분들께
치커리 식이섬유 보강, 쾌변을 도와줍니다.
◆ 신선한 야채섬유가 부족한 분들에게
생식의 풍부한 효소와 배아, 엽록소를 간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 각종 성인병으로 식이 요법을 원하시는 분들께
생식의 고효율 에너지는 병환중이거나 회복중인 환자식으로 좋습니다.

"㈜고을빛 생식마을"은 태어난지 10년된 정통 전문 생식업체입니다.

※ 1개월분(40g × 60포)입니다. ※ 4개월분 구입시 25% 할인해 드립니다.
고을빛 생식마을은 19만명의 고객이 체험으로 전하는 검증된 제품입니다.

생식완료 현미, 율주콩, 적두, 현콩, 서리태, 율무, 보리, 차조, 수수, 옥수수, 메밀, 참, 양곤, 우엉, 신선초, 계설, 현미리, 감설, 봉입, 감, 호박, 솔잎, 다시마, 김, 구기자, 연근, 표고버섯, 인진쑥, 결명자, 결정과당, 효락백기산 등 32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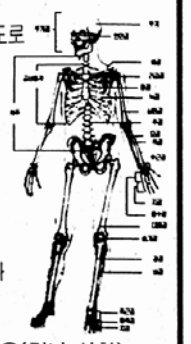
◆ 연락처 : 02)458-0836 017)236-0836
전국지점 및 대리점 모집중

관절염 ↓ 자생환(自生丸)

관절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혈액순환장애 디스크 → 약간의 활동이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 자생환(自生丸)을 복용후 1개월부터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남

선천성 냉체 산후바람 낭습진 → 자생환(自生丸)을 2~3주만 복용해도 효과가 나타남

참고 - 심각할 정도로 나쁜 상태는 별도로 상담바랍니다.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 주의사항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임산부, 음주전후에 복용금지

※ 발명자 : 민속의학자 권재우 옹(경남 산청)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骨仁製藥(株)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구인 · 구직 규격 50.000원 / 일반업체 규격 70.000원

· 전화 : 02)732-1522 (直) 02)737-8881 (代)
· FAX : 02)737-0697

수산스님의 기체험,기치료 역학상담
02)3444-4376
매일 오후 7시~9시 수련중
회원모집(지방에 계신분 주 1회 강좌)
매주 금 · 토 역학강좌 회원모집
www.bulljichon.com

비구니 스님 또는 신심있는 보살님 모십니다.
(40대~50대 초반)
당사는 운영은 건실하나 스님(비구)이 연로로 오시는 분에게 일체 운영을 위임 함
(가능하면 포교나 동양철학에 뜻이 있는 분)
충남 예산
041)337-6348

최고 조용하고 산세좋고 물좋은 암자에서 가족처럼 같이 불사하면서 사실분
▷50세이상 비구스님
031)582-0635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인연을 바랍니다
▷ 경기도 가평
031)585-1502

오참법수행
업장소멸로 청정한 자성을 봉영기로 인해 난치병 정신질환 등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한 구병시식 영가천도로 완치 자신 함.
※ 바른 수행 설법강좌
- 진정한 수행자의 길 -
경남 하동군 화개면 범왕리 120
호동골토굴017)859-1389

지리산토굴안내
물좋고 산세 좋음
011)577-2251
032)503-9178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40~50세 금호동
02)2234-3310

◇ 구운 마늘환 ◇
- 100% 토종 육쪽 마늘 -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마늘의 효능
▷ 심한피로 / 정력강화
▷ 간기능 획기적 개선
▷ 혈압/혈당치를 낮추고 장 변비 개선
▷ 손발냉증, 피부 고와짐
▷ 감기에 강한 체질로
동양물산 080-375-7575

부전스님 모십니다
▷성진사
055)248-2644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운전가능자 특별우대
032)679-3490

안 내 불상 모실 분
관세음 보살(상) (목불)
키 3.4자 - 보살상 2.5자
좌 대 0.9자
후불탱화 6자 × 12자
신중탱화 5.5자 × 7.5자
지장탱화 6자 × 10자
인간문화재 작품입니다
011)514-010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2)992-7064
02)993-306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50~60세 이상
전남 불암사
061)372-7738
011)623-773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2)3491-4848
019)254-4883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산과 하늘만 보이는 사찰입니다
▷50세이상
033)482-3382~4

스 님
신용카드가 필요하십니까?
부다피아하나카드 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 부다피아하나카드 발급 대상 스님, 종무원
• 문의전화 : 02)6678-1115~6
현대불교 부다피아 카드 사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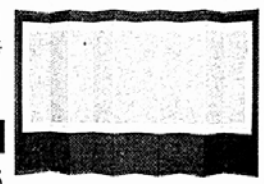
탈종공고
하기 승려는 귀 종단의 종지총풍에 따르지 못하기에 불기 2546년 3월 19일자로 탈종을 공고 합니다
한국불교 법륜종 총무원장 법하
법우사 서울시 강서구 양천구 신월 6동 550-12호 주지 법우
태 고 종 총무원장 법하
기원정사 서울시 동작구 상도 1동 산 64번지 주지 유화
호국사 서울시 동작구 상도 2동 174번지 주지 근봉

모십니다
섬진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절경 아름다운 무등암에서는 기도스님. 행자. 사찰 운영하실 화주보살 및 공양주를 모십니다.
061)772-4109
061)772-5401
011)9302-1618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016)342-7777

부전스님(비구니) 모십니다
▷ 20대 초반
서울 교대 위치 포교당
02)583-1080
02)521-1415

동성불교사
개금 · 천불 · 범종 · 동불전문
代表 李相萬 법명:보환
TEL : 031)575-2532
FAX : 031)575-2647
자 택 : 031)563-8733
031)563-8771
H · P : 011)255-3286

금강경 병풍보급안내
기도많이 하신 스님께서 쓰신 순수 경면주사 영인본 10폭
원하시는 분께는 표구전의 글씨상태로 보급합니다.
문의전화
031)257-3565
011)213-1514

* 형식 : 10폭 넓개 병풍
* 폭 : 10자 * 높이 : 5자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김천
• 법당 : 18평
• 요사 : 45평
• 부지 : 400평
• 가액 : 1억9천
• 위치 : 경기
• 법당 : 12평
• 요사 : 25평 석불, 석탑
• 부지 : 270평
• 가액 : 1억2천5백
• 위치 : 부산 • 요사 : 75평
• 법당 : 30평(기와,단허필)
• 부지 : 548평 • 가액 : 8억 5천 대출 3억 가능, 시내에 있으며 경내 노송이 어우러져 산사냄새가 물씬 풍기는 운치있는 사찰 임
※ 전국사찰, 포교당다량보유, 양도,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님 인결하여 드립니다.
청송기획 02) 998-1994 / 011) 713-5634

자동차 판매
• 기아자동차(주) • 현대자동차(주)
스님과 불자님의 모든자동차를 믿고 맡겨 주시면 열심히 심부름 하겠습니다.
전화 : 053)521-1100
휴대폰 : 011)509-9456
원응 곽영순 합장

사찰 급 안내
• 위치 : 노원구 당고개역 3분거리
• 부지 : 약 300평
• 평수 : 건물 45평 법당 20평 방 3개, 차량 주차 5대
• 가액 : 1억 7천
011)9756-4845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천 역곡 남부역 앞 3분거리
• 법당 : 삼존불, 20평, 방 2개 (요사채)
• 보증금 · 권리금 : 1,300만원
• 월세 : 35만원
• 도로변에 위치
017)232-3389

사찰 안내
• 부지 : 일만평, 오천평, 삼천평등
• 용도 : 사찰, 납골당, 사회복지시설
• 위치 : 경북 포항시 근교(장기면)
• 특징 : 매봉산하 봉황자리 봉황과 맹호 출립형 사계절 맑은 계곡과 좋은 경관
• 용도지역 : 주거지역 및 자연 녹지
• 가액 : 평당 5만~10만(답사 후 절충가능)
054)283-7551~2
011)854-4675

수액시트의 배독요법
병을 고치려면 먼저 독을 빼라
「발바닥에 수독과 노폐물을 빼니 놀랄만한 효과」

두들통, 어깨통, 요통, 류마티스, 각종 관절염, 통풍, 간염, 신장병, 위염, 천식, 감기, 불면, 만성피로, 설한가려움증, 비만, 고혈압 노장래, 치통, 암의 후유증, 냄증 등 40여 질병
• 실제 배출되는 노폐물은 확인 된다
• 병원의사도 인정하는 탁독요법
• 발바닥과 함부에 붙인다
한국목탄연구소 소장
10,000을 보내면 씩과 체험서트 3권분 보냄
한빛은행 114-07-124799
한국목탄연구소 021925-0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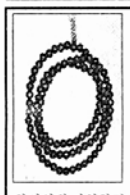
권 대창불교건축 권 대 창 목 재
• 사찰대웅전 건축
• 고건축 시공
• 문화재 복원개보수 업체
• 한옥(전통한식)
• 황토방 시공
• 불사하실 스님 상담환영
본사 02)595-1573
공장 054)781-4989
HP 016)768-4324 / 011)246-2210
• 태백산(울진, 봉화)지역의 적송 춘양목
▲연목 : 12자 ~ 24자까지 5치 ~ 8치
▲원목 : 9자 : 1자 - 2자 2치, 12자 : 1자 - 2치
▲기둥 : 18자 : 1자 - 1자 8치
▲도리 : 20자 : 1자 - 1자 8치, 24자 : 1자 - 7치
▲보감 : 24자, 30자, 36자, 42자 : 1자 ~ 2자까지
(주)대창종합개발 이종봉 합장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시 서구 소재
• 대지 : 347평(20년 전통)
• 건물 : 법당 40평 방3개 사무실 산신각 주차장 20평
• 특징 : 팔공산 갓바위 대불 모셔져 있음. 바다가 내려다 보임
• 가액 : 3억 5천만원
011)9524-8080

신설 사찰(급)전세안내
• 대구시 수성구 대흥동 447 • 평수 : 600평
• 시설 : 대웅전 1동, 요사채 방 6개 주방 대형 1개, 욕실, 화장실
• 기(氣) 찜질방(방비석) 40평 수용
• 가액 : 2,000만원 보증금 월 45만원 (계약기간 5~10년까지)
• 시설비 : 5,900만원(모든 비품 포함) (현장 답사 후 가액 절충) 월드컵 경기장 바로 옆 도보로 정문 5분거리 주차장 완비, 대덕산 명당자리
※ 주지스님 건강문제 때문에 급 전세
미 륵 사
053)793-5808/017)588-1656

사찰 터 안내
• 주위 경관 수려하며 절터로서 최상급 임
• 경북 영주시 소재(시내에서 10분 거리)
• 전 : 약 730평 (실평수 1천평 내외) 현재 1차공사로 터 조성과 전기+지하수관정, 시공한 상태 임
• 가액 5300만원(절충가능)
011)9770-1581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구시 서구 (7호광장부근)
• 법당 : 4층 건물 중 4층(70평)
• 시설 : 석가모니불, 호신불 120불
• 가액 및 시설비는 현장 방문 후 별도조정 가능
018)535-7001

벼락맞은 벽조목 염주

스님께 염주를 보시하면 수명장수하고 좋은 업보를 받아 소원이 이루어 진다하여 옛부터 벼락맞은 대추나무를 몸에 지니거나 염주.단주.인감 도장등을 만들어 사용하면 한가지 소원이 이루어 진다고 하였습니다.
학업성취,서원합격,결혼성취,부부화합,사업번창,건강쾌차,매매,사고예방,취업,신규사업등 신비한 영험을 체험해 주십시요.
부처골 지장암 054)383-8553 · 011)9585-4908
염주 大 12만원,中 6만원 단주 6만원, 인감 5만원
농협703088-52-037905 이인덕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시 종로구
• 대지 : 470평
• 법당 : 50평
• 요사 : 200평
• 양도가 : 14억
• 위치 : 서울시 근교
• 대지 : 880평
• 법당 : 45평(목재) • 요사 : 70평
• 양도가 : 6억
※ 산새 및 계곡 좋음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 국 불 사 02) 561-7791/011)530-1975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사찰 안내
• 위치 : 충북 괴산
• 부지 : 580평 법당 : 15평
• 삼성각 : 4평(조립식)
• 요사채 : 35평(현대식)
• 가액 : 9천 5백만원
011)9704-2558
043)832-4785

사찰 안내
• 대지 192평
• 요사채 70평, 법당 20평
• 방 6개, 욕실 2개
• 주방 3개, 거실 3개
• 법당단청 했음, 미륵부처님 모셨음 산새 수려함 큰스님 병환으로 급매
• 가액 3억 2천 답사후 결정
031)952-7905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구시 남구 대명 7동 → 삼각로타리
• 3층 건물 중 3층(85평)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 월 80만원
• 시설비 : 삼존 부처님, 법당 시설 완비 (시설비 1000만원) 가액 조정 가능
• 포교당, 불화, 탱화, 화방(불교) 전통찻집 운영하실분도 환영
011)507-7712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 금정구 남산동 80번 종점
• 평수 : 45평
• 가격 : 보증금 4천만원 월세 30만원
• 시설비 : 일천만원(최상급)
016)296-5833

사 찰 안 내
• 위 치 : 대전 • 부지 : 108평 • 법당 : 20평
• 요사 : 40평 • 가액 : 1억 2천(산 아래)
※ 전국 사찰 표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하여 드립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찰 안내 절터안내 사찰(납골당)안내
• 위치 : 언양 인보
• 부지 : 260평
• 법당 1동, 요사채 1동
• 일반주택을 개조
• 교통편리함
• 양도가 : 1억 1천
• 위치 : 마산시 진동면
• 부지 : 730평
• 300평 종교용지 허가
• 법당 기초 공사 완료
• 도로 전기유. 산속의 터
• 양도가 : 9500만원
• 위치 : 양산시 물금 부근
• 대지 : 600평
• 법당 37평, 약사전, 약사전, 관음전, 콘크리트 기와집
• 납골당 2층 50평
• 최신식 납골당, 민원무
• 양도가 : 5억 5천
영남지방 전문 사찰 컨설팅 (양도, 인수하실 스님 상담환영, 절대 보안유지)
佛國불사 018-563-9575 (홈페이지 www.pungsu-serve.com)

포교당안내
• 위치 : 대구시 서구 평리 4동(시내소재)
• 건물 3층 법당 (46평)
• 기존시설 :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칠성부처님, 문수원불 52불 관세음보살원불 30불, 대형에어컨
• 요사채 : 방 3개(주방포함)
• 가액 : 보증금 1천오백만원 월 45만원 (시설비 1천만원, 가액조정)
016)875-0934

경남 사찰(급)안내
• 부지 : 약 3천평 • 법당 : 27평
• 요사채 : 50평 • 주지실 : 12평
• 삼성각 : 12평(목조)
• 특징 : 좌청룡 우백호가 두루 좌고 소나무가 우거지고 삼천포 앞바다가 멀리서 보임
• 주차장 : 200평 대형차량진입가능
• 가액 : 4억 5천 ※ 불사할 것 많음
017)844-9448
016)207-5600

사찰부지 안내
• 위치 : 김해 근교
• 대지 10만평
• 건물 : 120평(방 9개) 有
• 평당 10,000원
• 총매가 10억(분할 판매가)
• 암자터로 최적지
함께 불사도 가능(비구니스님환영)
011)9593-6670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구시 북구 복현동 5거리
• 건평 : 약 40평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현장 방문 후 가액 조정)
019)534-1127
053)981-4145

주인직인개인공고
• 사찰명 : 망경대
• 소재지 : 태백시 소도동 321
위 사찰 주지 직인을 2002.3.25일자로 개인하며 이후 전직인 사용은 무효임을 공고함
2002. 3. 25
대한불교조계종 제 4교구
망 경 대
주 지 적 담

사 찰 안 내
• 위치 : 지리산 육모정 근처 • 대지 : 850평 중 종교부지 : 300평
• 전 : 700평 [하천부지 : 300평, 주택지 : 283평]
• 대웅전 : 20평 • 산신각 : 4평 • 독성각 : 2평
• 요사채 : 방 4개 조립식 건물 • 회의실 : 13평 1동
• 현시세 평당 9만원 매매가격 3억 5천만원(절충가능)
• 불사 할 수 있는 도량. 스님 및 법사님 환영
063)625-9992 011)9642-8833 011)9642-1202

사찰(터) 안내
• 위치 : 경남 고성 물령간
• 부지 : 약 800평(준농림지) 안정 공단 부근, 인구 30만 신도시 개발지
• 특징 : 지산이 높고 좌측에 계곡이 깊어 사철물이 철철 흐름 앞에 삼면이 바다로 확터어 아주 좋음
• 가액 : 4천 5백(절터로 명당)
017)844-9448
016)207-5600

암자 별장 최적지
• 위치 : 경남 함양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리산 천왕봉이 보이는 두매산골 아담하고 조용한 명당터
도로와 계곡이 접하고 있으며 자연석돌 많음
• 가액 : 답사 후 결정
011)570-1317

사찰(급)안내
• 위치 : 목포시 항동(중심가)
• 대지 : 104평, 인법당, 방 3개, 부엌
•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전망 좋은 곳
• 가액 : 4천 5백만원
033)661-4869

사찰 안내
• 위치 : 공주 신풍면 선학리
• 건물 : 단독주택 대지 80평 (방 3개, 부엌1, 다락, 마루, 자연수도물)
• 특징 : 인수하셔서 사찰로 운영해도 무방함
• 가액 : 전세 700만원 마당 앞까지 주차 가능
02)871-7686
019)204-7686

향토 시골집 안내
• 건물만 양도 합니다
• 대지 50평 건평 20평
• 가액 1천만원
018)306-6717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시내
• 법당 : 50평
• 요사 방 4개
• 보증금 6000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2,500만원
• 대로변 위치 포교 최적지
011)530-1975

토굴 안내
• 충북 단양읍 소재 유진 빌라 6동 306호 14평 3층
개인적인 학문연구나 건강휴양처로써 나만의 공간이되어 걸맞 풀어놓고 편히 쉴 수 있는 토굴이라 생각하고 마련할 스님이나 불자님은 연락바랍니다.
투자의 가치가 있는 곳 입니다.
• 가액 2100만원
011)9770-1581

포교원 안내(급)
• 위치 : 김해 동상동
• 법당 : 삼존불,지장,산신,용왕,지장소불, 108불, 영가단, 후불, 흙탱화, 신중탱화, 지장탱화, 산신탱화, 용왕탱화
• 평수 : 3층 50평 (방3개,주방,사워실,주차장완비)
• 전세 : 3,000만원 월세 47만원 (시설비 2500만원) 절충가능
017)550-6581

신축사찰 안내
• 위치 : 전남 장흥군 용산면 녹원리 113-1
• 부지 : 약 10000평 이상
• 신축 대웅전 20평, 요사채 1
• 실 2억 7천, 가액 1억 7천 전세도 가함
亂世最吉詳之地
061)867-2878

포교원 양도 안내
• 위치 : 서울 강남 사거리에서 5분 도심 포교의 중심
• 보증금 250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2,000만원)
• 집기물 : 부처님,탱화, 에어콘, 냉장고, 세탁기, TV, 경장, 시설일체 제공
• 몸만오시면 법회 가능
011)9937-0108
02)3477-8478

사찰 안내
• 영월군 하동면 내리 계곡 앞
• 태백산 소백산 경계선
• 6만평 도량안에 부지 2000평
• 동강 내리 계곡이 앞에 흐르고 좌우 백호가 두텃하며 연꽃안에 봉황이 알을 품고 있는 형국이며 경관이 아주 좋음 기와건물 40평 법당, 방 8칸, 주방 되어 있고 천탑천불 조성하기 위하여 자연 돌 수십톤 확보되어 있음. 자금관계로 매도
• 대물사 이루실 분 환영
018)223-2101

사찰 안내
• 위치 : 영덕 영해 중간 지점
• 400평 중 250평만 이전 됨
• 요사채 : 40평 • 법당 : 20평
• 종무소 : 8평
• 뒤는 강이며 마당앞까지 차진입 가능. 도로근접
• 가액 : 7천 5백만원
016)540-0027

원룸 안내
• 영도 신선동 층 13실
• 7실 현재 임대수입 발생 중 (월 수 2백만원)
• 실인수 1억 1천
• 6실 (현 신축 중 - 예상임대 수익 월 170만원)
• 실인수 7천
018)280-8766/018)520-8818
(주) 한마음 건설

토굴 안내
• 위치 : 경북 봉화군 춘양면 애당리 백두대간
• 상태 블럭조 17평 집 1동(재래식) 1991평(실사용평수 4000평) 불사할 수 있도록 터 잘 되있음 전망좋고 좋은터
• 가액 : 5천 5백만원(시세보다 쌈)
011)9542-2537



이선옥의
선무 건강법 ㉝

• 광목천 수인 익히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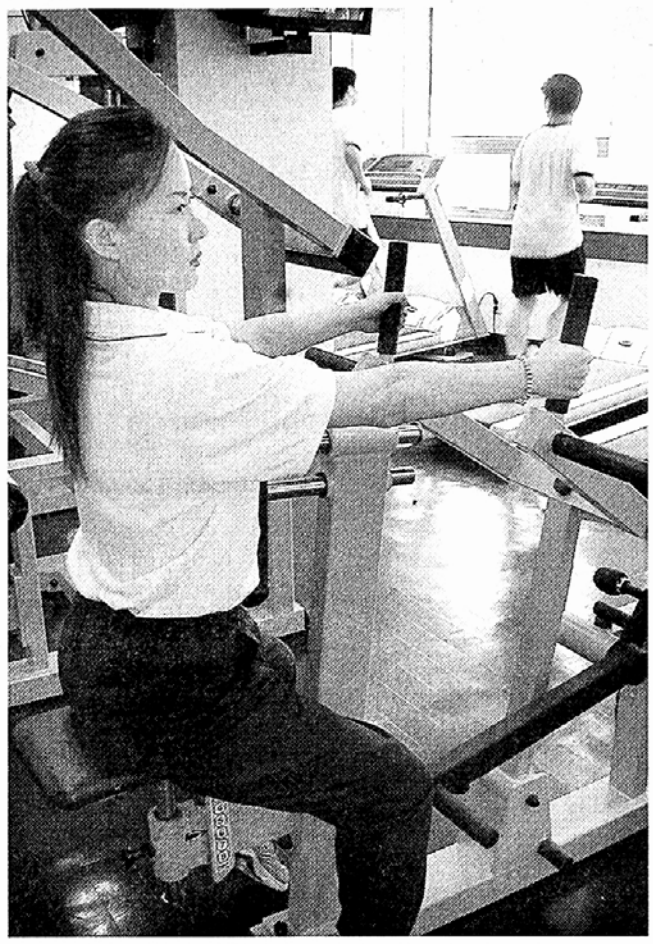


1. 심장으로 손을 가져와서 광목천수인을 취한다. 광목천수인은 사명수인에서 새끼손가락을 편 모양이다. 이때 가운데 손가락만 살짝 잡아준다.
2. 광목천 수인을 취한 상태에서 '이' 소리를 내면서 손을 천천히 위로 올린다.
3. 호흡을 조절하며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온다.

몸 균형 잡아주고
혈액순환도 도와

4. 오른다리를 앞으로 피면서 '뭐' 소리를 내며 손을 위로 천천히 올린다.
5. 손을 위로 올리면서 왼쪽 다리의 뒷꿈치를 곧추 세워 몸의 균형을 유지한다.
6. '꼬' 소리를 내면서 상체를 앞으로 조금 숙이며, 오른다리를 땅에 내딛고, 몸의 중심을 앞쪽에 싣는다.
7. 다시 처음의 자세로 천천히 돌아온다.
8. 이 과정을 수차례 반복하여 연습한다. 몸의 균형을 잡아주고, 혈액순환을 돕는다.

봄철 건강 이렇게 지키세요



◇감기와 꽃가루 알레르기, 기관지 천식 등은 봄철에 주의해야 할 질병이다.

낮·밤 기온 큰차이 … 감기 걸리기 쉬워
건조한 공기·꽃가루 알레르기 대비

• 봄철에 주의해야 할 질병

꽃샘 추위가 남아 있긴 하지만 이제 완연한 봄이다. 하지만 봄은 낮과 밤의 기온 차가 커 조금만 방심해도 건강을 해치기 쉬운 계절이다. 또한 건조한 공기나 꽃가루 등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 때문에 곤욕을 치르기도 한다. 봄철 건강관리법에 대해 알아보자.

△감기 등 호흡기 질환 조심= 감기는 1년 동안 어른은 평균 2~4회, 어린이는 6~8회 걸리는 아주 흔한 병이다. 특히 낮과 밤의 기온이 10℃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일교차가 심하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 더 잘 걸린다. 예방법으로, 아침과 저녁에는 체온을 보호하고 땀의 흡수가 좋은 긴 옷을 입도록 한다. 어린이들이 밖에서 놀고 땀을 많이 흘린 경우에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몸을 깨끗이 씻어야 바이러스의 공격을 피할 수 있다. 감기는 대개 직접적인 신체접촉을 통해 옮겨지며 이때 균에 감염된 콧물 등과 같은 분비물이 타인에게 전달된다. 이럴때 마스크를 쓰면 바이러스 전염이 훨씬 감소된다. 따라서 감기에 걸린 사람은 다른 가족을 위해 기침할 때는 손으로 가리고, 콧물이 묻은 손은 자주 씻어주는 것이 좋으며, 외부에 나갈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감기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것을 피하는 것도 예방에 도움이 된다. 감기 치료는 증상에 대한 치료가 주종인데 미열이나 근육통이 있을때는 아스피린이 좋고 기침, 가래 등에는 진해거담제가 효과적이다.

△알레르기성 비염= 알레르기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은 봄이 괴롭다. 증세가 더 심해지기 때문이다. 알레르기성 비염은 재채기, 콧물, 코막힘 등의 증상이 있다. 원인은 꽃가루, 먼지, 곰팡이, 동물의 털 등 다양하다. 갑자기 온도나 습도가 변할 때도 생긴다.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평소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사람은 미리 전문의를 찾아가 예방법을 상의하거나 약을 처방받아 두는 것이 좋다.

△알레르기성 결막염= 황사가 이어지면 눈병환자들로 안과가 붐빈다. 봄철의 건조한 공기가 자극성 또는 알레르기성 결막염을 잘 일으키기 때문. 눈이 가렵고 눈물이 많이 나며 충혈이 되고 눈에 뭐가 들어간 것같은 이물감을 느끼는 것이 주된 증상이다. 외출을 줄이는 것이 가장 좋으나 불가피하게 외출했다가 귀가하면 미지근한 물로 눈과 콧속을 깨끗이 씻어내는 것이 좋다. 소금물은 눈을 자극하므로 가능하면 피해야 한다.

△기관지천식= 황사가 폐로 들어가면 기도 점막을 자극해 정상인 사람도 호흡이 곤란하고 목이 아프다. 기관지가 약한 천식환자나 폐결핵 환자가 황사에 노출되면 호흡이 아주 어려워질 수 있다. 천식환자는 황사가 심하면 외출을 삼가는 것이 좋다. 공기도 건조하므로 가습기로 습도를 높여줘야 한다.

△피부= 건조한 날씨, 황사에 꽃가루까지 겹치면 피부는 가려움증, 따가움이 생길 수 있으며, 심하면 발진이나 발열, 부종으로 이어지는 피부염과 피부 알레르기가 발행할 수 있다. 피부관리에서 가장 신경써야 할 것은 화장보다 세안이다. 얼굴에 먼지나 꽃가루가 남아 있으면 알레르기를 일으키기 쉬우므로 미지근한 물과 저자극성 클렌징폼, 미용비누로 세안을 하는 것이 좋다. 너무 잦은 목욕이나 비누 사용은 삼가야 한다. 또 목욕을 할 때도 뜨거운 물보다 미지근한 물을 사용한다. 목욕 후에는 온몸에 보습제를 발라주도록 한다. 얼굴을 너무 강하게 문지르지 말고 깨끗한 물에 여러번 헹궈낸다. 외출 전에는 크림을 발라 피부에 보호막을 만든다.

(도움말 주신분= 김동훈 을지대학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건강 담당=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봄철 운동법

봄철의 피로와 나른함을 풀기 위해서는 맨손체조와 가벼운 스트레칭, 산책 등이 좋다. 갑자기 심한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이 긴장돼 근육통을 유발하기 쉽다. 또 하루 10~30분 팔을 힘차게 흔들며 빠르게 걷기를 하루 2~3회하면 스트레스로 쌓인

맨손체조 · 매일 30분 걷기 유익
운동 전 가볍게 몸풀기 필수

몸의 노폐물을 연소시켜 버리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뱃살을 줄이기 위해 하는 윗몸일으키기도 처음에는 1분에 40번 정도부터 출발해 점차적으로 60번 정도까지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봄철에는 일시적인 황사 현상으로 새벽 공기가 좋지 않으니 실외운동보다는 실내에서 하는 운동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권한다.

특히 60세 이상의 노인들은 운동하기 위해 차가운 아침공기를 갑자기 쐬면 뇌출혈과 심근경색 등을 유발할 수 있으니, 실내에서 충분히 몸을 풀고 산책이나 조깅에 임해야 한다. 좀 여유가 있다면 헬스클럽에서 다양한 기구를 통해 기초 체력을 다지는 것도 봄철 만성피로에서 탈피해 활력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인터넷 사이트 건강샘 제공)

봄미각

봄이 되면 계절의 변화에 신체리듬이 적응하지 못해 나른하고 피곤하고 목덜미가 무거우며, 소화도 잘 안된다. 이것을 이기려면 규칙적인 생활과 더불어 비타민, 무기질, 단백질등의 영양소가 풍부한 과일과 야채를 많이 먹어주는 것이 한 방법. 비타민B1과 · C가 많고 입맛을 돋우는 음식이 좋다.

식사는 아침 거르지 않는 것이 좋으며 비타민B1이 많은 음식으로는 보리, 콩, 시금치, 땅콩, 잡곡밥 등이 있으며, 비타민C는 과일과 야채, 냉이, 달래, 쑴바귀 등 봄나물에 많이 들어 있다.

사찰음식전문가 이여영씨가 추천하는 '그린샐러드' 요리법을 배워두었다가 가족들과 함께 봄미각을 만끽하자.

▶그린샐러드

재료: 양상추50g, 치커리30g, 비타민 30g, 알파파 30g, 양파 1/2개, 방울토마토 5개 (드레싱재료) 올리브유 40g, 다진양파 40g, 식초2큰술, 양겨자1/2작은술, 올리브1개, 다진마늘1/2큰술, 소금, 후춧가루

비타민 B1 · C 많은 음식 섭취
보리 · 콩 · 달래 · 쑴바귀 등 좋아

▷만들기

1. 양상추, 치커리, 알파파는 깨끗이 씻어 먹기좋은 크기로 손으로 뜯은다음 얼음물에 담가둔다.
2. 양파는 링모양으로 얇게 썰어 얼음물에 담가둔다.
3. 비타민은 씻은후 먹기좋은 크기로 손으로 뜯어놓고, 방울토마토는 4등분한다.
4. 드레싱재료를 믹서에 한꺼번에 넣고 간 후 냉장고에 넣어둔다.
5. 먹기직전 얼음물에 담가두었던 야채는 물기를 빼고, 나머지 야채들을 접시에 예쁘게 놓고 드레싱을 뿌린다.

"서울 도심서 인도음식을 …"

전문음식점 '타지' 명동 한복판에



◇왼쪽부터 커리, 달, 차파티, 라이타.

부처님의 나라 인도사람들은 어떤 음식을 먹을까. 명동 한복판에 자리잡은 인도 레스토랑 '타지(THE TAJ)' 에 가면 그 궁금증을 금방 풀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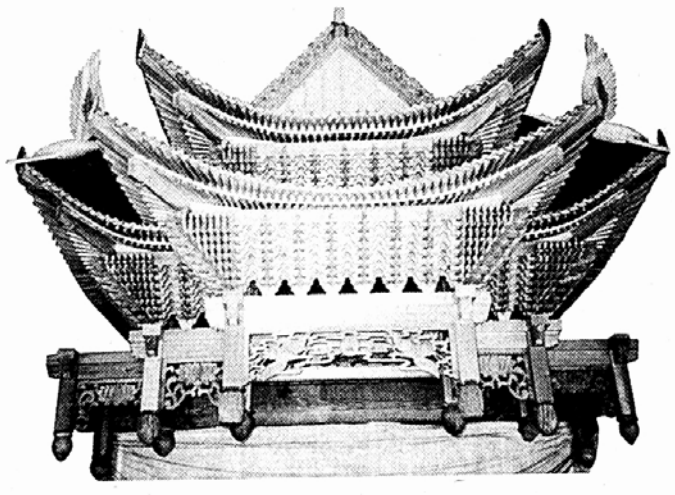
산악인 출신의 오송호씨가 6개월전에 문을 연 '타지' 는 점심시간에는 새우, 야채, 치즈 커리 등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각색(?)한 커리(Curry)와 인도 정식 탈리(Thali)를 저렴한 가격에 맛볼 수 있다. 특히 커리는 양파, 토마토, 요구르트에 향신료(기본적인 향신료는 마살라)를 넣고 걸쭉하게 끓

커리 · 탈리 등 우리 식성맞게 조리

이는데, 주로 쌀밥이나 차파티와 같은 주식의 반찬으로 먹는다. 또 '큰 접시' 라는 뜻의 '탈리' 는 주식과 콩 종류인 '달' 커리, 요구르트, 야채 스프 등을 큰 접시에 수북히 담아내는 것을 말한다.

카레와 비슷한 '달 (Dhal)' 은 부드럽게 삶은 콩에 마살라를 가미한 것으로 콩에 따라 맛과 모양이 다르다. 만두피에 야채와 민트소스를 듬뿍 얹어 삼각형 모양으로 만들어내는 인도식 만두 '사모사' 도 별미다. 하지만 인도인들의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인도 홍차 '차이 (Chay)' 다. 아침식사 대용으로 마시는 '차이' 는 찻잎에 우유와 설탕, 때로는 가지가 들어간 인도인들이 즐겨 마시는 차다. 이외에도 '타지' 의 인도 주방장들이 직접 만든 우유죽 '라이타' 와 요구르트에 설탕과 물을 넣은 '라씨 (Lassi)' 도 손님들이 즐겨 찾는 메뉴다. (02)776-0677

누리공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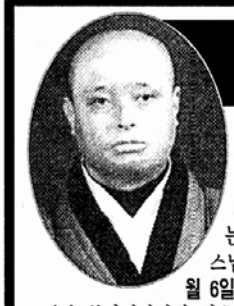


불단 · 닫집(천궁)
전문 공방입니다. 법상 · 경탁등
박연호 합장

TEL : 031)543-7073(공방)
H·P : 011)703-9130
FAX : 031)543-5727

"승가건강비법 신비의효능"

[마·가·목]



산승이 전신 화상으로 인하여 혈액 순환의 장애가 있어 수족이 차고 냉하여 온몸의 마비와 건강의 악화로 고통을 받고 있던 중, 오대산에서 백일기도를 드리고 있던 차, 금강산에서 출가 수도하시던 노스님을 오대산에서 뵙게 되었는데 옛부터 금강산 승가에서 내려오는 마가목의 비법을 노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건강을 되찾게 되었던 바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산승이 출연 KBS-2TV 건강하게 삽시다. 프로에서 불가건강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 방영이후 전국의 많은 불자님들의 방문과 요청이 있었으나 워낙 희귀목인지라 많은 양을 구할 수 없어 10년이 지난 지금에야 두재분량을 탕재로 하여(한박스 60봉) 한달분을 보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효능은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로,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에 좋다.
셋째, 중풍에 특효하며 동맥경화,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당뇨와 관절염, 고지혈증에 특효하다.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으며 숙취를 해소한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문의 원증태고 보우국사 열반사지 소설산 왕방 수구암
전화번호 : (031) 585-1502
청강 대진 합장

※ 마가목만 복용하면 위장에 부담이 있으므로 승가의 비법이 있습니다.
시주금은 불사기금에 쓰입니다.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KBS 1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방영

제 1기 佛教儀式 (범음 · 범패) 學人모집

한국불교범음회에서는 학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초급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다루는 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불공시식 등
·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기초범음, 범패)
· 고급과정 (6개월)	요잡바라, 천수바라, 작법(나비춤), 사십구재, 예수재, 수륙재 (전문 범음, 범패)

• 모집인원 : ○○명 (선착순)
• 개강일시 : 2002년 4월 22일 (음 3월 10일) 오후 2시
• 매주 강의 요일 : 수, 목 (오후 5시 - 7시)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 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원광사 회장겸 강주 김도진 화상
사무실 051)554-1518
회 장 011)846-1518
총 무 011)816-3909, 054)372-3639

한국불교범음회 의식교육원

불교 이래서 좋다

송성준 주니엔터테인먼트 대표

"불법 그늘속 항상 자신감"



가수나 탤런트와 같이 대중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는 연예인들의 매니저 일을 하다보면 그들과 같이 탈선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 겉으로는 화려한 직업이지만 대중들의 인기가 식으면 주체하기 힘든 허탈감에 사로잡혀 한 순간에 무너지기 쉬운게 대중연예인들이기에 항상 옆에서 그들을 지켜보며 함께 생활하는 매니저들도 자연히 그들을 따라 행동하게 된다.

이런 유혹과 위기가 닥칠때마다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나는 내 자신을 항상 돌아보면서 마음을 가다듬곤 한다. 또 언제든지, 어떤 상황을 맞이하든지 흔들리지 않고 내 자신의 무게중심을 세울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이기 때문에 나는 불교가 좋다. 내 자신을 낮추고 타인들에게 보시행을 펼치다보면 그 모든 복이 나에게로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도 사회생활을 하며 새삼 깨달았다.

대학시절부터 어머니를 따라 사찰에 나가기 시작한 나는 설악산 봉정암 등 적멸보궁에 많이 올라가 기도하면 모든 '업(業)'이 소멸된다는 지도법사 스님의 말씀에 4번씩이나 가파른 산길을 올라가 기도할 정도로 열심히 정진해 왔다. 이런 기도덕분인지 아침마다 집을 나설때면 누구를 만나든 조그만 업이라도 짓지 않으려고 마음속으로 다짐한다.

특히 나의 조그만 행동과 말 실수가 내가 맡고 있는 연예인들에게 큰 피해로 돌아가는 직업이다보니 이런 마음가짐은 일을 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평소부터 겸양의 습관이나 행동이 몸에 배어있지 않으면 어렵다. 그래서 흐트러지거나 유혹이 따를때마다 내 자신을 절제와 겸양의 미덕을 갖출수 있게 채찍질 해줄 수 있는 불법의 그늘속에 살기에 어떤 사람을 만나도 즐겁고 자신감이 넘친다.

"발표법문주제 다양하고 신선"

조계사 청년회 · 본사 설법대회 공동 개최

최우수상 황상훈: '선, 새로운 패러다임 창출의 주춧돌'
우수상 이규호: '불교의 실천론'
유준열: '과학과 종교'
장려상 김영만: '포교를 위한 사회전반의 분위기 조성'



◇3월 23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 청년불자들의 설법대회. 유준열 씨가 '과학과 종교'를 주제로 법문하고 있다.

"3천년전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전도의 길을 떠나라고 설하셨습니다. 또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게 법을 설하라고 전도 선언을 했습니다."

3월 23일 설법대회가 열리고 있는 조계사 대웅전. 첫번째 법사로 나온 금강부 김영만 씨가 '포교를 위한 사회전반의 분위기 조성'을 주제로 설법하고 있다. 1백여명의 청중들도 귀를 쫑긋 세우고 김씨의 말에 몰두한다. 하지만 첫 번째 순서라 긴장해서인지 말의 속도가 빨라 내용 전달이 잘 되질 않는다. 그래도 설법 주제인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애써 강조하기 위해 손짓까지 동원하며 혼신의 힘을 다한다. 본사와 조계사청년회가 청년불자들의 포교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한 '이와같이 나는 들었다(설법대회)' 행사에는 조계사 청년회원 총 8명이 참가해 열띤 경합을 벌였다. 특히 이번 설법대회는 '포교를 위한 분위기 조성', '과학과 종교', '찬불가에 대해', '머피의 법칙과 12연기' 등 청년불자들답게 법문 주제가 다채롭고 신선해 호응을 얻었다.

이번 대회에서 최우수상(사자후상)은 '선, 새로운 패러다임 창출의 주춧돌'을 주제로 설법한 황상훈씨가 차지했다. 또 우수상(법륜상)은 '불교의 실천론'을 법문한 이규호씨, 우수상(여시아문상)은 '과학과 종교'의 유준열씨, 장려상(감로상)은 '포교를 위한 사회전반의 분위기 조성'의 김영만씨가 각각 수상했다.

특히 최우수상을 차지한 황상훈 씨는 심사위원들로부터 내용은 물론 강의식으로 차분하게 법문해 청중들이 이해하기 쉬운 설득력 있는 법문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심사위원장인 덕혜스님(정법사 주지)은 "설법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전하는 자의 태도와 자세, 전달력이 더 중요하다"며 "신행활동을 하면서 보고, 듣고, 느낀 체험한 부처님 가르침을 자신의 목소리로 표현하는 설법은 포교에 대한 자신감을 극대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스님은 "우선 설법 할 때에는 그날의 청중 숫자에 따라 목소리 크기를 조절하고 손과 몸 동작을 적절히 사용해 전달 효과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설법이 끝나기전에는 마지막으로 설법 내용을 다시한번 정리해 핵심사항을 청중들에게 인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법 요령을 덧붙여 조언했다.

정우식 조계사 청년회장도 "앞으로 청년불자들의 적극적인 포교 능력 배양을 위해서라도 설법대회를 정례화 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년 담당=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禪의 가치 알리고 싶었어요"

설법대회 최우수상 수상 황상훈 씨



"앞으로 더 잘하라는 격려의 뜻으로 알고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종립대인 동국대를 다닌 덕분에 불교를 접할 기회가 많았는데, 이번 설법 주제 역시 학부때 교양과목으로 배운 동양 철학과 불교학이 밑거름 역할을 했습니다."

3월 23일 열린 설법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차지한 황상훈씨(동국대 대학원 반도체 전공)는 이렇게 피력했다. '선(禪), 새로운 패러다임 창출의 주춧돌'을 주제로 설법한 황씨는 특히 내용면에서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지난해 8월부터 조계사 청년회에 가입해 신행활동을 해 왔다는 황씨는 "서양의 많은 학자들이 동양사상, 특히 불교사상에서 미래를 이끌어갈 대안을 찾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현대사회에서 선이 차지하는 가치에 대해 알려주고 싶었다"며 "〈육조단경〉에서 설하는 선(禪)은 서구문명의 합리성과 과학적 논리에서 나타나는 많은 문제점을 뛰어넘는 동양사상의 합리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어 예로 들었다"고 이번 법문을 요약 설명했다.

1주일에 한번씩 있는 종교행사를 통해 힘든 군생활을 이겨보기 위해 마음을 낸 것이 불교를 믿게 된 계기였다는 황씨는 대학시절부터 꾸준히 불교공부를 해왔다고 한다.

담배를 끊읍시다

흡연과 여성건강

여성이 흡연을 하면 임신과 출산에도 문제가 있으며, 저항력이 떨어져 각종 질환에 걸리기 쉽다.

1. 수정 능력

흡연은 여성의 수정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한 연구에 따르면 피임약을 복용하는 여성 중 담배를 피우는 여성은 피임약을 중단한 후에도 불임일 확률이 비흡연자에 비해 2배나 된다. 또한 흡연 여성은 비흡연자에 비해 자궁외 임신이 2.2배나 높게 나타났다.

2. 임신과 출산

1980년 미국 Surgeon General Report에 의하면 흡연하는 여성의 유산 확률이 비흡연자보다 1.7배 높으며 주산기 사망도 2.16배나 높다고 한다. 여기서 주산기라 함은 주로 임신 29주에서 출생 후 1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또한 임신한 여성의 흡연은 태반 박리, 전치태반, 임신 중 자궁출혈, 조기 양수파열 등의 위험을 야기 시킨다.

3. 각종 질병에 대한 저항력 약화

흡연 여성은 호흡기 질환이나 심장병, 만성 기관지염 등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고, 동맥 경화, 심장병, 중풍, 폐암에 걸릴 확률 또한 남성보다 크다. 여성 흡연자가 호흡기 질환으로 숨질 위험은 남성 흡연자의 2배, 심장마비, 중풍 등 혈관성 질환으로 숨질 위험은 1.5배 가까이 높다.

자궁외 임신율 비흡연 여성의 2.2배

네티즌 불교동아리 순례

새내기 불교동호회

불교문화예술연구회

불교문화유적 답사 · 예술연구 목적

如是我聞

경전공부 · 시와 음악 · 불교정보실 운영

△불교문화예술연구회(http://www.freechal.com/shacamuni)-불교문화예술연구회는 불교문화답사를 하고 불교예술을 연구하는 곳이다. 2002년 3월 24일 개설

△불광사 학생법회(http://www.freechal.com/bulkwangstudent)-불광사 학생법회 홈페이지로 신달과 목련이 꾸미고 있는 곳이다. 3월 24일 개설

△대각불교청년회(http://www.freechal.com/daygac)-부산대각사 불교청년회 모임의 장. 3월 24일 개설

△수국사 아기코끼리(http://cafe.daum.net/suguksachildren)-수국사 어린이회 선생님과 학생들이 꾸며가는 아기자기한 곳. 3월 23일 개설

△如是我聞(http://cafe.daum.net/zerospace)-누구나 쉬어가는 공간…. 편안한 의자가 되어 드리겠다는 카페 주인의 글이 방문자를 반기는 곳. 경전공부, 토론마당, 시와 음악, 불교 정보실 등으로 꾸며져 있다. 3월 23일 개설



◇'불교와 문학' 카페.

△불교와 문학(http://cafe.daum.net/bulkoy)-불교에 접근하며 불교문학을 연구조사. 불교문학(시), 불교문학(소설), 불교 사찰, 불교의 인물, 작품 발표 등의 코너 개설. 3월 21일 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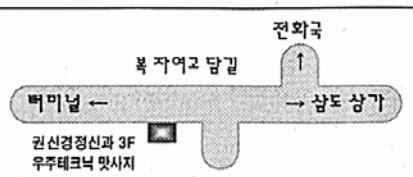
△불교만화동우회(http://cafe.daum.net/okbuddha)-불교만화를 통해 함께 하는 마음을 담는 카페를 표방하고 개설한 곳이다. 교계 최초의 불교만화연구소를 개소하고 전국불교만화공모전을 개최했던 다일심 김선아 소장의 카페. 3월 19일 개설

△정토선재(http://www.cyworld.com/club/main/club_main.asp · club_id=50115620)-정토회 청소년모임인 정토선재는 아직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도화지 같은 곳. 3월 6일 개설

우주 테크닉 맛사지

오늘은 기분이 좋아 ~♪♪♪♪~ ♪♪♪
저 하늘 높이 날개를 펴고 날아 갈것 같아요
오늘은 기분이 좋아 ~♪♪♪♪~ ♪♪♪
오래전 부터 바라던 꿈이 이루어 질것 같아요
꽃들이 너무 예뻐요
이세상 너무 눈이 부셔요
작한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모두다 아름다워요
오늘은 기분이 좋아 ~♪♪♪♪~ ♪♪♪
마음속 깊이 바라던 꿈이 이루어 질것 같아요

오래전 부터 지구가 여기 저기 파괴되고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인체의 비밀은 자연에 있고 우주의 비밀은 사람 몸 속에 있습니다.
내몸이 밝아지면 가정은 물론 나라와 지구의 미래도 밝아 집니다.
지금 회로를 연결하러 오십시요.
자연과 사람은 둘이 아니고 하나 입니다.



자율신경 중추신경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허스테리 신경질적 성격 기억력 회복 기혈순환 치매예방 오십견 굽은등 자세교정 혈액순환 림프순환 기순환 안성피로 불면증 원인 모를 질병 신경순환 모든 순환 맛사지

우 330-130 충남 천안시 성황동 23-35

서규리 연구소 041)564-4999 041)564-4469

승복, 법복안내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여 항상 처음 이라는 자세로 변함없이 제품 생산 · 연구에 임하는 저희 업체에서는 부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성껏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고궁 재질에 세련된 디자인으로서 저렴한 가격으로 스님 및 불자님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많은 지도편달 바라며, 최선을 다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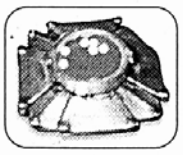
- 에동승복 직원일동 -



※ 장삼, 가사, 바랑 및 기타의류는 맞춤주문 받습니다.

해동승복
대구 고속터미널 ← 중앙 → 동부정류장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 4동 399-1
TEL : 053)741-8131
FAX : 053)741-8132
H.P : 011)549-8130
※ 지역 대리점 모집

대웅전법당 적멸보궁 불사안내문



신도님 가정 불보살님의 가호가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정원암 불사를 비롯하여 많은 불사에 도와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연이 있는 곳에 발원이 있고 발원이 머무는 곳에 성취가 있습니다. 불교는 인연을 말하는 불교입니다.

성취되는 부처님 법은 구원의 신비이며 자비의 기적이라고 일컬어 왔습니다.

본 정원암에 수많은 신도님 인연과 작목을 필요로 하는 때가 왔습니다. 본 정원암에서는 부처님 진신 금강 광명사리를 모시고 있습니다. 천막속에서 지내게 되니 늘 황송한 마음이 들게 되어 죄송스럽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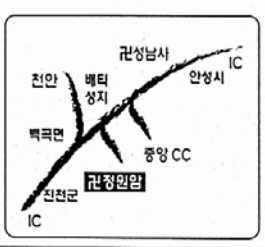
적멸 보궁을 짓는데 될 수 있도록 많은 신도님께서 동참하시어 만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원암 대중일동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불사동참 입금계좌

- 국민은행 245-01-0040-958
- 한빛은행 334-293233-02-001
- 조흥은행 914-04-286470

※ 예금주 : 정원암



충북 진천군 백곡면 양백리 6번지 H.P 011-493-6003

권 대한불교 조계종 정원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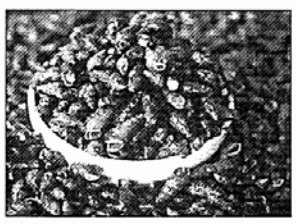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 재래식(가마솥)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 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50년전부터 시행…수익금 사회 회향

템플스테이 어떻게 되가나

1. 시행, 두 달 앞으로…
2. 우리는 이렇게 준비한다
3. 일본의 경우

"대부분 사찰에 호텔급 신도회관" | 다목적홀·대회의실 갖춘 곳도
예불·다도·참선 등 상시 운영 | 예약제 철저·4개국어로 홍보

"일본에서는 '템플스테이'라는 용어도 없으며, 사찰들은 2002년 한일 월드컵과 관련해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

얼른 듣기에 부정적으로 들리는 이 말은 일본 불교계가 월드컵과 관련한 준비를 100% 갖추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드러낸 표현이다. 일본은 1950년 제2차 세계대전 패전후 무너진 사찰을 복원하면서 신도들과 관광객들을 위한 숙박시설을 마련했기 때문에, 한국과 같은 별도의 준비 없이 언제나 사찰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것. 한마디로 한국이 처음 시도하는 템플스테이를 일본은 이미 50년전부터 시행하고 있다는 말이다.

일본의 사찰들은 대부분 경내에 '신도회관'의 역할을 하는 현대식 숙박시설을 갖춰 국내외를 막론한 일반인과 스님들에게 일정액의 숙박비(1박시 5000~1만5000엔)를 받고 사찰문화를 체험토록 하고 있다. 그래서 아침 4~5시 예불시간이 되면 기본적으로 새벽예불에 동참하고 다도, 사찰 수련프로그램에도 참여한다.

정토종 본산 증상사, 천태종 본산 연력사, 조동종 본산 총지사, 일련종 본산 본문사 등 큰 사찰들은 300여명 이상이 숙박할 수 있는 객실을 갖추고 있으며 인터넷 예약 등 철저한 예약제를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다.

자하현(滋賀懸)에 소재한 천태종 총본산 연력사(延曆寺)는 '연력사 회관'에 60개의 객실과 회의실, 다실 등을 갖추고 좌선지관(坐禪止觀), 끽다(喫茶), 정진(精進)요리, 국보관람 등을 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개방하고 있다. 교토에 소재한 정토종 총본산 지은원(知恩院)도 435석의 다목적홀과 180석의 대회의실, 갤러리, 매점 등을 갖춘 화순회관을 숙박 및 연수시설로 운영하고 있다.

도근현(島根縣) 일전사(一畑寺)는 일전산장에서 각종 단체와 기업, 중고등학교에서 온 내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등산, 법문, 좌선, 식사작법, 경내산책, 정원 감상, 사경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심지어 신귀산(信貴山) 총본산의 경우 세 곳의 숙박시설을 프로그램별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휴양 및 온천, 기도, 법문, 사경을 위주로 운영하는 옥장원(玉藏院), 무병장수, 사업성취 등을 발원하는 기도중심의 성복원(成福院), 사찰 정원과 전통요리를 감상할 수 있는 천수원(千手院) 등으로 특화하고 있다.



◇일본 정토종 총본산 지은원 경내에 있는 화순회관. 다목적 홀 등 호텔급의 편의시설을 갖춘 회관으로 불자들과 내 외국인들에게 사찰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일본 북해도에서부터 오사까까지 사찰의 조경에 대해 연구하고 돌아온 홍광표 동국대(조경학과) 교수는 "일본의 사찰들은 대부분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호텔급의 신도회관을 갖추고 있다"며, "이는 모든 것을 신도와 방문객들의 편의 위주로 사찰을 꾸며 온 오랜 전통때문"이라고 말했다. 홍교수에 따르면 모든 편의시설이 철저하게 신도와 내방객 위주로 이뤄진 것은 일본 불교가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 오래전부터 자리잡힌 이러한 전통은 신도는 물론 시민들과 외국인들에게 개방된 사찰의 이미지를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숙박시설을 갖춘 사찰들은 지역 관광센터와 연결되어 있어 배낭 여행자들까지 묵을 수 있을 정도로 체계적인 예약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50여개소 이상의 사찰 숙박시설들이 일본 유스호스텔협회에 가입되어 있을 정도다.

사찰 홍보도 뛰어나 인터넷을 통한 예약은 물론 사찰 홍보 팜플렛을 일어, 영어, 중어, 한국어로 제작해 사찰방문 기념으로 무료배포하고 있다. 게다가 일본국제관광진흥회(서울사무소=http://www.jnto.go.jp/korean/)와 각 지자체를 통한 철저한 홍보 및 예약시스템은 외국인들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한다. 1964년 설립된 일본국제관광진흥회(Japan National Tourist Organization)는 세계 각국 주요도시에 14곳의 사무실을 설치하고 외국관광객을 위한 여행객 안내 센터 운영, 관광객 유치시설의 일괄 관리, 국제회의 유치 등 광범위한 유치활동을 펼쳐 왔다.

관광전문가들은 우리의 템플스테이가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숙박 예약체계의 확립과 외국인의 정서에 맞는 쾌적한 시설 및 서비스 제공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다. 아울러 꽉 짜여진 프로그램보다는 자연을 관조하고 휴식을 취하면서 자유롭게 한국불교를 체험할 수 있는 편안한 문화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한 신도 및 방문객 위주의 일본 사찰 숙박의 성공을 타산지석으로 삼기 위해서는 이번 2002 월드컵 템플스테이 사업을 계기로 상설적인 사찰 숙박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박진용 사무국장은 "일본의 사찰들은 거의가 종교법인으로 등록된데다 재정이 투명하게 관리되기 때문에 신도들이 보시하는 마음으로 숙박비를 내고, 사찰도 이를 삼보정재로서 사회복지와 포교를 위해 회향하고 있다"며 템플스테이의 상설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선각종 월드컵 성공기원 가두캠페인



대한불교선각종(총무원장 정암)은 3월 22일 대구시내 일원에서 2002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홍보활동을 펼쳤다. 선각종 월드컵 승려홍보단과 영·호남 불자 5백여명은 대구 국채보상공원 앞에서 대구백화점 광장까지 가두캠페인을 펼쳤다. 승려홍보단 소속 스님들이 행진하고 있다. 주용직 광주지사장

동울산 반야장학회 10명에 장학금



동울산사암연합회 반야장학회(회장 동파)는 3월 26일 대원사에서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반야장학회는 경제형편이 어려워 학업에 애로를 겪고있는 학생들에게 3년전부터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올해도 지역내 7개 중학교에서 10명의 우수학생을 추천받아 1인당 한 학기에 30만원씩 총 600만원을 지급한다. 이번에 지급된 장학금은 수년간 스님들이 탁발시주와 일일찻집 행사 등을 통해 마련한 기금이다.

김재경 기자

달마동상 중국서 이운 와우정사에 봉안



열반종(총무원장 해월)은 선종의 초조(初祖)달마대사의 동상(사진)을 중국에서 이운, 3월 21일 용인 와우정사에 봉안했다. 높이 3m 입상(立像)인 이 달마상은 열반종과 중국불교협회 교류 10주년을 기념해 중국 하남성에서 조성돼 이운된 것이다. 해월 총무원장은 "우리나라에는 달마스님을 그린 선화는 많이 있으나 등신상은 친견하기 어려웠는데 이번 달마대사동상 봉안을 계기로 더욱 선수행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부고속철 2단계 공사 반대"

범어사 내원사 통도사 공동대책위 결성

고속철 관통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금정산과 천성산의 범어사(주지 성오), 내원사(주지 혜등), 통도사(주지 현문)가 공동대책위를 만들고 공동 대응에 나섰다. 3월22일 내원사에서 모임을 가진 각 사찰의 주지스님들은 "범어사 통도사 내원사 전 사부대중의 이름으로 경부고속철도 공사 2단계 대구-부산간 신설 노선을 강력히 반대하며 우리의 결의가 관철될 때 까지 공동 노력할 것"이라는 공동 결의문을 채택했다.

또한 공동대응을 구체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한 실무준비위를 구성하고 사무국을 범어사에 두기로 했다. 범어사 실무위원을 맡은 범어사 총무국장 도관스님은 "환경관련 법률 변호단의 도움을 받아 법적인 대응을 준비하는 한편 서명운동, 건교부 장관, 공단 이사장 항의 방문, 생태환경평가 공동조사, 신도 및 주민 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천미희 기자

무량본종 정기종회

대한불교 무량본종(총무원장 령관)은 3월 26일 서울 종로구 홍지등소재 총무원 회의실에서 제 9차 정기종회를 열고 2001년도 결산액 1억8천5백만원과 올해 예산 2억1천3백만원을 승인 통과시켰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새 종회의장에 대광스님(경주 원해사) 감찰원장에 혜천스님(전 남종무원장)을 각각 선출했다.

이경숙 기자

게시판

▲교육생 모집=공창사회복지관은 30~60대 초반의 주부 20여명을 대상으로 고용 촉진 단기 훈련 교육생을 모집한다. 교육기간은 4월 8~12일까지. (051)363-2063

▲청소년 동아리 공모전=양정청소년수련관은 부산 지역 청소년 동아리를 대상으로 2002년 청소년 동아리 공모전을 개최한다. 당선된 동아리에는 운영금이 전달. 응모기간은 4월 13일까지. (051)868-0750

▲수강생 모집=양정청소년수련관은 4월 상설강좌와 청소년, 어린이 강좌 수강생을 모집한다. 개설강좌는 고전무용, 헬스, 탁구교실, 컴퓨터, 한자, 노래교실, 만화, 청소년 힙합댄스, 양화제작 등. (051)868-0750

▲지도교사 모집=용호사회복지관은 특수교육 전공자 및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장애아동을 위한 방과후 교실 프로그램 지도교사를 모집한다. (051)628-6737

▲월드컵 친절교육=관음사·영남불교대학은 6일 오후 2시 사찰 3층 법당에서 2002년 월드컵 및 밝은 도량을 위한 친절교육을 실시한다. 월드컵 중앙협의회 교육위원 김세환 씨의 강연이 이어진다. (054)472-6268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중로구 평창동 45번지
☎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bokbat@kornet.net
마스터/위저드 김희균

조각작품으로
한불 한불 정성껏 조각하여 모십니다
雪山白玉佛
우리부처님
코리아붓다
KOREA BUDDHA
http.www.korea buddha.co.kr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 8동 1653-6 새한빌딩 401호
TEL : 서울 (02) 864-8834 부산 (051) 637-2333
FAX : 서울 (02) 839-2185 부산 (051) 637-6888
雪山玉佛
釋迦世尊께서 成道하신 雪山玉石으로 造成한 圓滿 慈悲 하시고 遠徹 智慧가 具足하신 無上圓滿 聖像
二五四五年 二月 二十一日
小林 正美 謹書
고불총림방장 서옹 큰 스님 / 추천서

군법당 위문품보내기 지원 절실

5만개 예정…각 종단 적극 참여 요청

군불교진흥회

군불교진흥회(이사장 정각)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일선 군장병 불자들에게 5만여개의 위문품을 전달할 계획이다. 그러나 위문품 제작 · 발송비가 1억5천여만원에 달해 종단과 불자들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군불교진흥회는 이달 22일부터 5월 18일까지 전군 군법당에 5만여개의 '자비의 위문품'을 전달, 군불교 활성화를 꾀한다는 내용의 군법당 위문품 보내기운동 계획을 3월 26일 발표했다.

이를 위해 5월 11일까지 각 종단 및 불자들로부터 1억 5천여만원을 모금하고, 군법사 없이 군종병이 운영하고 있는 군법당과 경기 · 강원일대 전방부대를 중심으로 위문품을 전달할 계획이다. 재원은 군불교진흥회 회장단과 이사진의 특별후원금을 비롯해 불교계 각 종단과 신행단체의 지원금, 가두모금 등을 통해 조달한다.

재원 조달과 관련, 군불교진흥회는 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회장단 및 이사진의 특별후원금과 각 종단의 지원금 대폭 상향 조정 요청은 물론 후원 종단수 확대에 나섰다. 그러나 지난해 후원했던 조계종, 천태종, 진각종, 일승종, 법사종 등 5개 종단 외에는 추가로 후원의사를 밝힌 종단이 없는 상태. 지난해 5만개를 목표로 잡았다가 재원 부족으로 2만 5천여개의 위문품을 전달한 전례에 비춰 보더라도 특별후원금과 종단 지원금이 늘어나지 않을 경우 5만개의 위문품 전달 계획은 실현 가능성이 요원하다는 것이 군불교진흥회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군불교진흥회는 각 종단의 적극적인 참여를 거듭 요청하는 한편 가두 모금운동과 군불자 자녀를 둔 불자들의 후원금 확대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

군불교진흥회 이하전 법사는 "위문품 하나가 어려운 여건속에서 신행활동을 펴고 있는 군불자들에게 마음의 감동을 불러일으킨다"면서 "각 종단의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불교진흥회는 3억원의 불사금을 투입, 육군 306보충대대 군법당 건립을 지원한다. 이달말 기공에 들어가는 306보충대대 군법당은 법당 150평, 요사 30평 등 총 180평 규모로 불사가 추진되며, 10월 낙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매주 800~1500명의 장정이 입소하는 306보충대대는 그동안 군법사와 군법당 없이 대회의실에서 300~500명의 불자 장정이 비좁은 가운데 인근 2군수지원사령부 군법사의 진행으로 법회를 봉행해 왔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국립공원 내 전통사찰들의 가치를 증명하는 연구가 최근 나와, 그동안 논란이 됐던 사찰관람료 징수 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조계종 국립공원 제도개선특별위원회는 지난해 사찰환경연구소에 위탁해 진행했던 '국립공원 내 전통사찰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연구'가 최근 끝났다고 3월 26일 발표하고 이와 관련한 정책토론

'국립공원내 전통사찰 공익적가치' 연구완료

관람료문제등 해결 전망

회를 16일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국립공원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서 가치가 클 뿐만 아니라 전통사찰의 역할에 대한 학문적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16일 개최되는 정책토론회에는 사찰환경연구회 연구진과 종단 환경실무자, 환경부 국립공원 정책담당자, 시민환경단체 실무자들이 참여해, 이 연구의 학문적 성과를 검증함은 물론 종단 정책 및 국가 정책에 반영할 방안을 모색한다. 강유신 기자

도와주세요

급성백혈병 "수술비 필요해요"

佛子공학도 이정훈군



백혈병으로 투병 중인 한 공학도 불자가 수술비가 없어 애를 태우고 있다.

지난해 경희대 전자학부에 특차로 합격했을 때만 해도 앞날이 창창했던 이정훈 군(21 · 사진). 올해 초 이 군에게 갑작스레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발병했다.

골수이식만이 유일한 생존 수단인 이 군. 다행히도 동생 정철 군(19)과 조직이 일치해 수술을 기다리고 있지만, 3천만원 전세집에 근근히 살고 있는 집안형편은 1억원이나 넘게 드는 수술비를 감당할 처지가 못 된다.

현재 이 군은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경구용 항암제 치료에 의지한 채 힘겹게 병마와 싸우고 있다.

도움주실 분은 (02)734-8050(생명나눔)으로 연락하거나 온라인 계좌(농협 053-01-243778:예금주 생명나눔)를 이용하면 된다.

김철우 기자

북한산 관통도로 강행할 듯

건교부, "노선변경 힘들다" 공대위에 회신문

건설교통부와 LG건설 등이 북한산 관통도로 건설과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보임에 따라 다시금 불교계와의 긴장국면이 조성되고 있다.

건교부는 3월 25일 사찰환경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위원장 성타)에 전달한 회신문을 통해 "군부대, 주택 등 지장물로 인해 새로운 건설을 추진하기 어려운 만큼 북한산 관통도로 노선 변경이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LG건설 등 10개 건설회사도 3월 15일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 회룡사 등 사찰들을 상대로, 북한산 관통도로 건설 공사 방해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러한 건교부와 LG건설 등의 반응은 3월 5일 열린 범불교도 대회에서 천명한 불교계의 환경수호 의지에 반대되는 것이라, 향후 불교계의 대응양상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 대해 회룡사 법현 스님은 "비구니 스님 폭행에 대한 일언반구의 사과나 보상도 없는 상태에서 LG건설 등이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것은 불교계를 무시한 행위"라고 말했다.

한편 불교계는 3월25일, 28일 공대위의 청와대 박지원 정책특보와 국회 문광위 면담을 연속적으로 갖고, 31일 의정부 송추 공사현장 식목 행사를 갖는 등 북한산 살리기 여론 확산에 나서고 있다. 강유신 기자

외규장각 도서반환 자전거투어 캠페인



인천 강화 전등사(주지 계성)와 삼랑성 역사문화축제 조직위는 3월 27일 강화군 강화읍 고려궁지에서 외규장각 도서 반환촉구 자전거 투어 발대식을 갖고 강화 북단 38㎞에 걸쳐 행사를 가졌다.

이날 전등사 신도 등 100여명은 자전거에 도서반환 촉구 문구가 쓰인 깃발을 달고 고려궁지~강화대교~은암자연사박물관~양사면 창후리 강화 북단을 힘차게 달렸다.

사진=강화군사 편찬위 제공



◇진입로 준공식에는 향천사 주지 옹산스님, 권오창 예산군수, 이 자비성 향천사 신도회장(이상 오른쪽 네번째부터 왼쪽으로) 등 2백여 명이 참석했다.

예산 향천사 진입로 확충

충남 예산 향천사(주지 옹산)가 최근 사찰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준공식을 가졌다. 이번에 완공된 진입로는 폭 12m의 1Km 길이로, 그동안 도로가 좁아 사찰을 찾는 관광객 및 인근 주민들이 겪었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천불전과 선원 등 전통사찰의 모습을 유지해 온 향천사는 이번 진입로 확장과 함께 도량을 정비하는 등 관광사찰로서의 면모도 가꿔나갈 계획이다. 한명우 기자

혜암 종정사리 86과 정각의 집에 영구봉안

조계종 10대 종정 혜암스님 황금법사리 86과가 해인사 원당암 미소굴내에 정각의집(깨달음의 집)에 영구 봉안됐다.

해인사는 3월 29일 보경당에서 해인사 주지 세민스님 등 2백여 스님들과 2천여명의 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혜암당 성관대종사 황금법사리 이운봉안식을 불교전통의식으로 봉행했다. 한편 지난 1월 13일부터 3월 28일까지 봉행된 사리친견법회에는 연인원 15만명의 불자들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김원우기자

조계사 인근 고층빌딩 허가취소

건축주 "손배소 청구하겠다"…법정 비화 조짐

조계사 인근에 신축예정이었던 97m 주상복합빌딩 건축허가가 취소됐다. 이로써 그동안 조계사의 반대로 착공이 미뤄져 온 빌딩 건축이 무산됐다.

그러나 건축주인 '넥스트 이미지'가 공사방해 등으로 조계사에 대해 형사 고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을 밝힘에 따라 법정싸움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종로구청은 '건축허가를 받고 일정기간(2년)이 지나서도 착공하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건축법 제8조 8항을 적용해 주상복합빌딩 건축허가를 취소했다고 3월25일 밝혔다.

문제의 주상복합빌딩은, 삼양식품이 97년 11월에 현재 규모로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 2000년 10월 1차 용도변경을 한 뒤, 지난해 넥스트 이미지에 매각했다.

이에 대해 넥스트 이미지 김정원 사장은 "건축허가가 취소된 것은 그동안 조계사가 공사를 방해했기 때문"이라며 "형사고발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한편, 추후 행정소송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계사는 주상복합건물 신축이 수행환경 및 종로일대 문화벨트를 훼손한다며 반대해왔다. 한명우 기자

'경찰난입' 규명 잇단요구

"명확한 해명없으면 3차 선언문 발표"

재가연대 등 불교단체

참여불교재가연대, 우리는선우,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등 13개 불교단체들은 3월 22일 '조계사 경찰난입 진실규명과 불교정신 회복을 위한 제1차 333인 선언'을 발표한 데 이어, '28일 제2차 333인 선언문을 발표하고 총무원 측의 구체적인 재발방지방안과 진상규명을 재차 요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아직도 총무원이 명확한 진상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납득할만한 해명이 없을 경우 제3차 333인 선언문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강유신 기자

경찰청 예규 개정 필요

경승실장직, 경승단장이 당연직으로 수행케

대한불교경승단(단장 도영)은 경승실장 선출과 관련, 현행 호선을 통해 선출하도록 규정한 경찰청에 예규를 경승단장이 당연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해 줄 것을 경찰청에 요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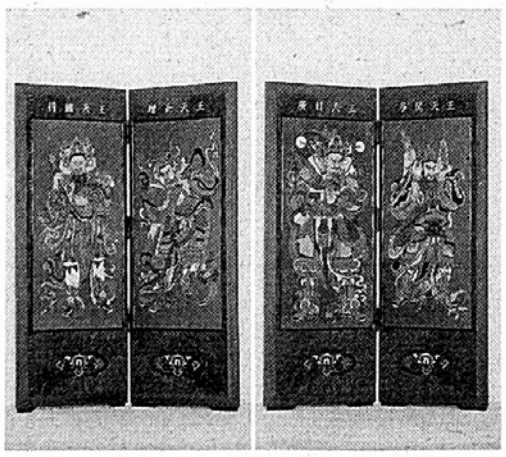
경승단장 도영스님은 3월 19일 경찰청 성낙식 차장을 만난 자리에서 "현행 경찰청 예규는 경승실장을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경승단의 체계적인 조직관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난해 11월 제정한 경승단칙과도 위배된다"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성낙식 경찰청 차장은 "경찰청 예규와 경승단칙의 조율을 통해 경찰청과 경승단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봉영 기자

"세상의 온갖 악(惡)을 경계하며 불법(佛法)에 귀의하는 중생을 수호하는 호법신으로서…
부처님을 모신 사찰은 모두 청정도량임을 증명해주시는 사천왕 4분을 모신"

사천왕(四天王) 병풍



⊙ 사천왕이 모셔진 사찰은 신도들의 발길이 그치지 않고 사찰이 나날이 번성한다 하여 사찰을 운영하고 계시는 스님들께서 사찰내에 모셨으면 하고 원하시던 사천왕이 장소에 구애 받음이 없이 영구적으로 편리하게 모실수 있도록, 목재와 광동판을 사용하여 성품(聖品)으로 조성되었습니다.
특히 포교당이나 작은 사찰을 운영하고 계시는 스님들께서 모시기가 적절한 규격으로 조성되었사오니 이번기회에 사천왕 네분을 모셔 보십시요. 원력을 세우신 스님께는 큰 도움을 주실것이며, 스님의 신도들을 악과 재난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심(佛心)을 더욱 깊게 넣어주시어 도량의 번성에 큰 기여를 해 주실것입니다.
현재 본 사천왕 병풍을 보신 신도들이 자신의 공덕을 짓기위해 자신이 다니는 사찰에 사천왕 병풍을 보시하고자 많은 분들이 문의해 오고있습니다.

특징
① 법당이나 요사채 등 신도들이 들어오는 입구 양쪽에 펼쳐 놓을 수 있도록 사천왕을 2폭씩 나누어 모셨습니다.
② 훼손되지 않고 영구적으로 모실 수 있도록 네분 모두 각각 황동판위에 모시어 표면에 특수 코팅처리를 하였기 때문에 오랜세월이 지나도 때가 묻거나 변색 되지 않으며 먼지 등이 묻었을때는 고운 융걸레 등으로 닦으시면 됩니다.
③ 병풍은 전체가 모두 두꺼운 무늬목 목재로 되어있어 변형되지 않고 영구적이며 2폭씩 양쪽으로 펼쳐놓았을 때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안정감이 있도록 조성되었습니다.

규격 (2폭)높이:153cm 폭:120cm 무게:30kg

※ 카다로그를 원하시면 연락주시는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직접 보시기를 원하시면 날자를 정하여 스님을 찾아 뵙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하기책자 3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모든 중생의 소원 성취시키는 또 하나의 신비한 도량

동해안 바닷가에 현신하신 관세음보살 계신 도량 휴휴암(休休庵)



◇破 愼劫 沈默 海中觀世音菩薩 (억겁동안 침묵에 계시다가 선정에서 깨어나신 관세음 보살님)

이 시대에 이루어진 또 하나의 신비한 도량 휴휴암(休休庵). 영동고속도로 현남톨게이트를 지나 양양 방향으로 5분정도 달리다 보면 눈앞에 펼쳐진 시원한 바다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기괴암석의 놀라운 절경 속에 자연과 정말 잘 어우러진 불도량을 발견하게 된다. 휴휴암은 바닷가에 인접한 사찰 중에서도 국내유일의 천수관세음보살님을 모시고 있는 기도 도량이다. 양양군 관진리 1번지에 있으니 불법 번창 시작점의 역할을 인연짓고 있으며, 수행승의 정진으로 일구어진 사찰

중생의 업보 세속의 번뇌망상을 씻어버리고 ...

인 만큼 마음의 고향에서 느껴볼 수 있는 아늑함이 존재한다. 근래에는 바다의 해중관음보살님의 출현으로 불자들의 끊임없는 참배와 기도가 이어지고 있는가 하면 묘한 이적들이 이루어지는 신비한 도량으로 회자되고 있다.

휴휴암 주지 홍법스님의 넉넉함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스님, 불자라면 어느 누구나 휴휴암에서 쉴 자격이 있다며 누구에게나 서슴없이 빈방을 내어준다. 본시 불제자라면 부처님 도량에서 휴식하고, 기도하고, 공부할 자격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말씀이다. 휴휴암은 원을 세우고 일심 정진하는 스님 및 대중들에게 좋은 기도처로서 훌륭한 사찰임을 여러가지 체험과 기이한 일들이 증명해 주고 있다.



◇해중관세음보살님께 기도드리는 불자들



◇휴휴암에서 바라본 거북바위 (장수바위)

묘적전은 이름만큼이나 묘한 이적을 통해 지어졌다. 묘적전 점안식을 3일 앞두고 단청작업은 끝났지만 서둘러 마무리 공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특히 법회를 보아야 했기 때문에 법당 마루 평탄작업이 시급했고 이 일이 큰 화근으로 다가왔다. 마루를 평탄하게 갈아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수많은 먼지가 빙금 끝낸 단청, 기둥 심지어는 천수관세음보살상에까지 수북하게 쌓여 행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법당 안이 먼지 천지가 되버린 것이다. 스님은 진공청소기 및 걸레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먼지 제거에 나섰으나 먼지는 그대로 였고, 나오는 것은 한숨뿐 막막하기만 한 상황이었다.

밤 늦도록 먼지 제거 작업에 지친 스님은 그대로 법당 안에서 잠이 들고 말았다. 꿈 속에서 휴휴암 앞 바다에 맑은 물에서 노스님, 젊은 스님, 동자승, 청신사, 청신녀, 수백 수천의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 빨래하고, 멱감고, 야단법석이 나 있어 스님은 이게 웬일인가 하고 쳐다보다 잠이 깼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 법당안에 있어야 할 먼지가 하나도 남김없이 사라지고 깨끗한 법당이 되어있지 않은가! 스님도 믿을 수가 없어 기둥을 문질러 보고, 단청도 만져 보았지만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은 엄연한 현실이었다. 순간 스님은 이것이야 말로 천수관세음보살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는 생각에 너무나 감동하여 고맙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환희심으로 가슴이 울컥하였다고 한다.

특히 근래 휴휴암 앞 바다에 현신하신 해중관세음보살님은 휴휴암이 관음기도성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전설



◇해중 관세음보살님께 기도 드리는 거북 남순동자

탁트인 동해 절경속 방생 명소

을간직하고 있다. 스님이 휴휴암이 지어질 때 까지도 계시지 않았던 관세음보살님을 친견하게 된것은우연치 않은 동기에서 비롯되었다.

3년전 성도재일 날 신도님들과 철야정진을 한 후, 아침에 떡을 찾으러 간 보살님들이 강릉시내에서 휴휴암에 오는 도중 무지개를 보았고 휴휴암에 가까이 오면 올 수록 무지개가 더욱 선명해 졌다는 것이였다.



◇방생하는 모습

철야정진을 마친 신도들도 묘적전에서 나와 무지개를 보니 법당을 향하여 바다로 원을 그리고 있었다.

모든 신도들은 벅차오르는 환희심에 합장을 하며 절을 하였다. 그러나 스님으로서 바로 나가 볼 수는 없었고 후에 나가보니 무지개는 서서히 바다쪽으로 움직여가고 있었다. 스님은 오늘 성도재일에 아침부터 무지개가 뜨니 보통 상서로운 일이 아니구나 생각했다.

이후 휴휴암 바닷가를 중심으로 바다 앞쪽부터 무지개가 원을 그리며 떠있는 현상을 몇번 주지실에서 보게 되었다. 이러한 일이 자주 일어나자 스님은 바다에 나가 상세히 보게 되었고, 3년전 어느날 휴휴암 앞바다에 화판을 쓰고 쉬고 계시는 관세음보살님을 친견하게 된 것이다.



◇달마바위

휴휴암은 이름만큼 쉴 수 있는 명소들이 아기자기 하게 펼쳐져 있다. 자연법당이라고 할 수 있는 거북바위(너래바위, 장수바위에는 약 5천명 정도 인원이 기도 드릴 수 있을 만큼 그 넓기가 한량없다.

본래 관세음보살은 보타 낙가산에 백의 관세음보살로 계시는데 이곳이 바로 그 성지가 아닐까!

거북바위에서 바다에 누워계신 해중관음보살님께 기도 드리러 오는 불자들의 행렬이 근래에 끊임없이 이루어 지고 있다. 주위에 산재해 있는 바위들은 마치 큰거북을 호위하듯이 새끼거북 모양을 한 바위들이 둘러있는데 특히 해중관세음보살님께 거북 가족이 불법을 배우러 가는 듯한 느낌에 사로 잡힌다.

휴휴암 도량 자체가 동해안 기도성지로써 중생의 업보, 세속의 번뇌 망상을 쉬는 곳이기 때문일까, 힘들고, 지치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휴휴암은 진정한 휴식처가 될 것이다.

"쉬고 또 쉬는 사찰 휴휴암"



◇휴휴암 주지 홍법스님

휴휴암은 팔만사천 번뇌를 모두 다 쉬어라 하는 뜻에서 이름지었습니다. 마음과 몸 모든 것을 편안하게 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해중관음보살님께서 휴휴암 앞 바다에 떡 하니 누워 쉬시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휴휴암 묘적전에서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원을 세우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 집니다.

1600년 전 불교가 들어와 130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번창하였습니다. 약 3000년 전에 이 세상에 석가모니부처님께서 오셨고 석가모니부처님 이전에 연등부처님, 비바시부처님, 과거칠불이 계시었습니다.

그런데 휴휴암 앞 바다에 나타나신 관세음보살님께서는 지구가 처음 형성되었을때 부터 같이 계시었던 것입니다.

이곳이야 말로 세계적인 불교성지가 아니겠습니까. 자연적으로 이처럼 형성되어 편안히 쉬시고 계시는 것은 복잡한 세상에서 얽히고 설킨 일들이 있다지만, 휴휴암에서는 모든 것을 내려 놓고 쉬라는 법문을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중관세음보살님을 친견하고 가시는 불자님들께서는 두루 편안하고, 발원하시는 일 모두다 이루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발가락 바위

● 휴휴암 기도처 안내

주소 :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광진리 1번지

전화 : 033)671-0525 033)671-0093

011)366-6903



양양 휴휴암 주지 홍법 합장

기도드리며 생활하실 스님이나 절에서 생활하실 신심있는 보살님 구합니다. 보시를 드립니다.

휴휴암을 다니면서 겪은 체험 이야기



◇관세음보살님을 친견하기 위해 매일같이 모여드는 불자들

"어린시절부터 불교와 인연이 되어 30여년 동안 오로지 부처님의 말씀을 의지해 생활해 왔습니다."

정 보살님과 홍법스님의 인연은 2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홍법스님께서는 삼화사 주지소임을 맡아 보시였고, 휴휴암을 건립할 때까지 보살님은 스님을 도와 온갖 불사를 도왔다.

휴휴암이 창건되고 난 후 보살님의 딸이 결혼을 하게 되었고, 여전히 휴휴암에 들러 기도 드리는 등 신앙생활은 여전하였다. 그러나 4년이 넘는 결혼생활에도 자식을 갖지 못하여 딸이 몹시 힘들어 하는 모습은 부모로서도 차마 볼 수 없는 고통이었다. 딸과 사위는 매우 건강하고 자식을 갖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고 병원에서도 원인을 찾아내지 못하였다. 보살님은 오로지 관음보살님께서만이 자식을 점지해 주실 것이라고 원을 세워 딸을 위해 백일기도에 들어갔다. 집 근처 절에서 매일 새벽녘에 정성을 다해 백일 기도를 드렸다. 그러던 어느날 우연히 소금강에 볼일이 있어 딸과 함께 가던중 휴휴암에 들리게 되었고, 스님을 친견하면서 딸이 자식이 없다는 이야기를 우연하게 말씀드리게 되었다.

스님께서는 바로 "그러면 몇일 있어 관음재일에 대중공양 드릴 사람이 없으니 보살님과 따님이 오셔서 공양준비를 해 주십시오.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기에 관음재일에 딸과 함께 대중공양을 정성들여 시봉했다. 그날 저녁 몹시 피곤하여 어떻게 잠들었는지도 모르게 잠이들었다.

그런데 이날 꿈 속에서 백의 관세음보살님께서 빛으로 화하시어 오시는데 차마 말로는 표현을 할 수 없는 장엄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였다. 관음보살님을 3번 친견한 후 문뜩 잠에서 깼는데, 꿈에서 깨어서도 그 백의 관세음보살님 모습이 하도 생생하여 한 없이 앉아 있었다. 아마도 휴휴암 묘적전에 모신 천수천안관세음보살님께서 꿈에 현몽하신 것 같았다.

아직 100일 기도를 회향하기 전이라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고 더욱 신심이 일어 정성드려 기도 드릴 뿐이었다. 꿈속에서 관음보살님을 친견한 20일 이후 딸에게 생각지도 못한 기쁜 소식이 왔다. 아이가 임태 되었다는 것이다. 병원에서도 참 기가막히다는 말 뿐, 원인을 모르겠다는 말만 되풀이 한다는 것이다.

'정말 묘하고 묘한 일이구나.' 감탄 하며 새삼 휴휴암 관음보살님의 위신력에 머리가 숙여졌다.

앞으로 휴휴암에서 아기 2돌 대중공양을 할 참이라고 웃으며 말씀하신다.